

표지

「청년이여!」 중에서...

| 월남 이상재

우리 인생이 인생다운 인생노릇을 하려면
먼저 저 스스로의 '나'를 잃지 말아야 한다.

나를 잃지 않으려면 나를 찾아야하고
나를 찾으려면..... 무엇이 나인지를 알아야 한다.
..... 진정한 나를 어디서 찾을까?
인생의 목숨되는 '정신'이 그것이니.....

정신의 나는
하늘이 주시어 사지백해(四肢百骸)를 주관하고
천지간의 모든 사물을 다스리는 권위를 지닌 것인 즉,
하늘의 진리를 살피고 받들어
정의와 도덕을 힘써 행하고,
어떻게 하여야 이를 잃지 않을 수 있을까
깨어 살피고 분발하여,

어떠한 일에 임하던지
어떠한 물(物)을 대하던지
내가 거기에 있느냐, 없느냐 하고
항상 스스로를 보살피야 한다.



chapter. 하나 청소년YMCA 동아리활동

1장. 청소년YMCA란?
생명평화청소년 그 모습 그대로의 다양성 인정 

- 1. 청소년YMCA란 무엇인가요? 13
 - 1-1. 목적을 알면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14
 - 1-2. 청소년은 학생이 전부가 아니죠 15
 - 1-3. 청소년들이 하고 싶은 일? YMCA가 하고 싶은 일? 17
 - 1-4. 청소년YMCA가 있기까지 19
 - 1-5. 청소년YMCA 앞으로는 이렇게 말하세요 35
- 2. 청소년YMCA 활동은 왜 하나요? 37
 - 2-1. 청소년YMCA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들 38
 - 2-2. YMCA가 지향하는 청소년상 40
- 3. 청소년YMCA 회원되기 42
 - 3-1. 청소년YMCA 회원은 42
 - 3-2. 청소년YMCA 동아리 회원은 43

2장. 청소년YMCA의 시작
청소년YMCA의 시작, 이것만은 꼭 해야 한다!! 

1. 청소년YMCA 만들기	50
1-1. 어디서 활동할까? 학교동아리? 회관동아리.....	50
1-2. 신입회원모집하기 : 회원은 회원이 모집한다!!.....	51
1-3. 청소년YMCA로 첫 발 던기 & 발판 마련해 주기.....	54
1-4. 활동거리 찾기 - 우리 동아리 활동내용 만들기.....	56
2. 청소년Y로서 함께 모여 이야기하는데 필요한 것들	59
2-1. 회칙 만들기.....	59
2-2. 회원대표 선출하기.....	60
2-3. 집회.....	61
2-4. 총회.....	65
3. 함께 활동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것들	67
3-1. 사업계획 세우기.....	67
3-2. 활동에 필요한 비용 마련하기.....	68
3-3. 실천하기.....	69
3-4. 우리의 활동 다시 생각해보기(평가와 성장).....	70
4. 함께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기	71
4-1. 회원 간의 관계와 소통.....	71
4-2. 후배들 챙기기, 선배들 대접하기.....	73
4-3. 관계만들기 (선생님 & 부모님).....	74
4-4. 공부하기.....	75
4-5. 활동장소 관리.....	75

3장

청소년YMCA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전국 청소년YMCA 활동사례 77

1. 청소년 정치참여운동	80
2. 청소년 경제참여운동	84
3. 청소년 사회참여운동	88
3-1. 자원봉사활동.....	88
3-2. 축제 및 문화활동.....	90
3-3. 언론 및 미디어 운동.....	91

4장. 청소년YMCA연합회

청소년YMCA연합회의 역할과 필요성



1. 청소년YMCA 연합회 왜 만들어야 하나??	101
2. 청소년YMCA 연합회는 어떻게 만들까??	103
3. 연합회의 역할은 무엇이고 어떻게 운영할까??	106
4. 청소년YMCA 연합회에서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은??	109
5. 전국적인 연대활동은 어떻게 하나??	114

5장. 내가 선택한 YMCA

YMCA란 어떤 곳일까?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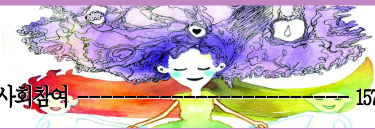
1. 내가 활동하는 YMCA는 어떤 곳?	121
1-1. YMCA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122
1-2. 목적문으로 살펴본 YMCA	125
1-3. YMCA의 기구와 조직	134
2. YMCA와 에큐메니컬 운동	137
2-1. 기독교와 YMCA	137
2-2. YMCA와 에큐메니컬 운동	138
2-3. 청소년YMCA와 에큐메니컬 운동	139
3. 청소년YMCA는 계속되어야 한다. Since 1844	141
3-1. 세계YMCA의 역사	141
3-2. 한국YMCA의 역사	143

chapter. 셋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대한민국 청소년이 되기 위해

6장. 지역사회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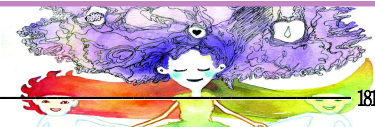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청소년의 목적있는 사회참여 157



1. 지역사회와 청소년의 사회참여란 무엇인가? 160
2.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 161
3.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만드는 방법 165
4. 지역사회 네트워크! 이렇게 활동해 봅시다. 167
 - 4-1. 청소년들간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례..... 168
 - 4-2. 청소년단체와 성인들로 구성된 단체와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례..... 176

7장. 지구촌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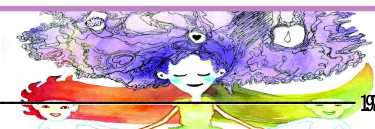
지구촌시민으로서 지구촌의 공존질서 만들기 181



1. 왜 지구촌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할까요? 183
2. 지구촌이란 무엇인가요? 185
3. 지구촌의 평화 공동체 YMCA 192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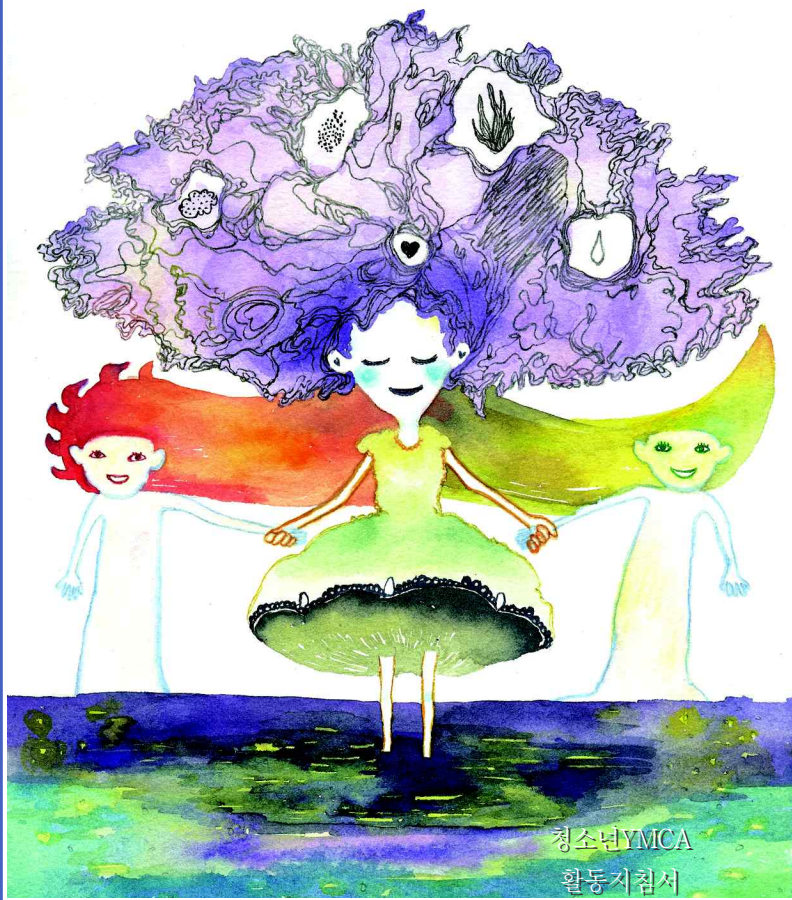
청소년YMCA활동 참고자료 197





Chapter. 하나

청소년YMCA 동아리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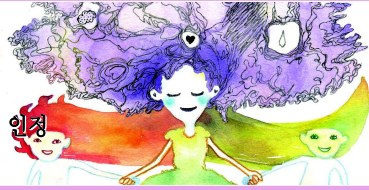
청소년YMCA
활동지침서



1장. 청소년YMCA란?

1장. 청소년YMCA란?

생명·평화·청소년 그 모습 그대로의 다양성



1. 청소년YMCA란 무엇인가요?



사람들이 어떤 모임이나 단체에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서 통용되어지는 여러 이름을 들으며 적응해 갑니다. 예를 들면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될 때 많은 부분 생소해 집니다. 환경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불리어지는 여러 가지 이름들의 새로움 때문이지요. 교수, 모꼬지, 동방이라든지 해오름식 등 여러 용어들이 생소하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수개월내에 적응하게 마련입니다. 자주 불리어지고 자주 듣기 때문이겠지요.

요.

우리가 지금 설명하려는 ‘청소년YMCA’도 처음 듣는 여러분들은 조금은 생소하게 전해져 올 것 같습니다. 초창기에 YMCA운동에 참여하며 ‘교교Y’라든지 ‘지도력’, ‘자원지도자’ 등 여러 단어에 생소함이 있었거든요.

이 글을 쓰면서 가장 주요한 목적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이 청소년시기 YMCA에 참여하면서 그 근본 목적을 조금 더 빨리 이해하고 즐겁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가면 대다수 사람들은 기도하고 찬양하는 곳이라고 빨리 이해합니다. 학교도 마찬가지로 공부하는 곳으로 이해하죠.

그럼 YMCA는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기독교단체라고도 하고 청소년단체라고도 하고 거기에 청소년들이 참여하면 청소년YMCA라고 하는데 그 뜻은 무엇일까요? 또 운동(Movement)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아는 운동은 축구나 농구 등을 생각했었는데 전혀 다른 의미로 쓰여지거든요. 이렇게 알듯 말듯한 여러 용어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회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꼭 알아야할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1-1. 목적을 알면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수년간 청소년들을 만나며 YMCA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하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YMCA에 대해 물어보면 많은 청소년들이 단체의 이름에 대한 해석만을 이야기 합니다. 영(Y), 맨(M), 크리스천(C)까지는 아는데 A에서 끝갈 막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이름 자체에 녹아있는 무수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이 글을 읽는 우리 청소년들은 YMCA를 묻게 되면 대문자 용어를 해석하려 하지 마시고 먼저 목적문을 이야기 하셔야 됩니다. 목적문(Mission Statement)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YMCA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념공동체'라고도 하지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사회운동 단체이지만 각 나라마다 지방마다 행하는 운동내용이나 구성원의 전문성과 조직관계 등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적문'입니다.

다음은 세계YMCA목적문입니다.

“기독교청년회(YMCA)는 성경대로 예수그리스도를 하나님과 구주로 믿어 그 신앙과 생활에서 그의 제자 되기를 원하는 청년들을 하나로 뭉치고 또 그 힘을 합하여 청년들 가운데 그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855년 8월22일 세계YMCA연맹 창립총회에서 채택)”

목적문은 세계 어느 YMCA를 가더라도 똑같습니다. 이러한 목적문에 맞게 우리의 모든 활동이 연계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우리만의 목적문이 존재합니다. 1976년 정치적인 암흑기에 우리나라 최고의 신학자와 석학, 회원들이 모여 한국의 목적문을 만들어 냈습니다.

“기독교청년회는 젊은이들이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함께 배우고 훈련하며 역사적 책임의식을 개발하고, 사랑과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일하며 민중의 복지향상과 새문화 창조에 이바지 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76년 4월 23일 제23차 대한YMCA연맹 전국대회에서 채택)

우리나라 전국의 60개가 넘는 지역단체마다 활동들이 다양합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이 목적문입니다. 이러한 목적문에서 정의한 내용과 맞는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부터 우리 청소년들은 YMCA가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바로 이 목적문을 이야기 해주시면 됩니다. 이 목적문을 이루기 위해 청소년운동, 시민운동 등을 행하는 것이라고요!

단체에서 운동(Movement)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정의를 간단히 요약하면 ‘뜻을 이루기 위해 행하는 모든 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 뜻은 우리의 목적문에 고스라니 녹아 있습니다. 그 목적문을 이루기 위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다양한 활동을 행하는 곳이 바로 YMCA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을 행하기 위한 모임들이 단체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아기스포츠팀, 어린이Y, 중학Y, 고교Y, 청년Y, 와이즈멘 등 다양하죠. 그런데 근래 YMCA에 참여하는 청소년회원들을 **청소년YMCA**라 하며 통칭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1-2. 청소년은 학생이 전부가 아니죠

청소년YMCA란 ‘YMCA의 목적문(Mission Statement)을 실행하기 위해 과거 중학Y와 고교Y, 개별 동아리회(Club)활동의 혼합 모임’의 이름입니다. 또한 지역마다 존재하는 청소년동아리연합회를 통칭해서 부르기도 하지요.

과거의 YMCA는 중·고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활동하였습니다. 학생은 권리적인 측면에서 위치권의 한부분임에도 청소년기 거의 대부분 이러한 학생이라는 위치권 하나로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경향이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다니지 않는 친구들도 있고 학교를 자퇴하는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학생이 아닌 청소년들도 단체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또, 청소년기에는 ‘학생’이라는 역할도 있지만 ‘지역사회의 시민’, ‘소비생활의 주체’, ‘문화 생산자’와 같은 다양한 역할과 책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고 운동할 수 있는 곳이기에 **‘청소년YMCA’**라고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2004년 ‘제37차 한국YMCA전국대회’¹⁾ 청소년포럼에서 YMCA의 청소년들을 대표하고 대변할 수 있는 조직체를 만들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1) 한국YMCA전국대회 : 1914년 한국YMCA전국연맹이 결성된 이후로 가맹된 시청년회 YMCA의 회원대표들이 모여 전국 YMCA의 운동방향과 과제를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구. (자세한 설명은 ‘5장 내가 선택한YMCA’를 참고해주세요.)

이 때 제안되었던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리 단체에서의 조직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청소년조직은 무수히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의 우리 목적에 따른 운동 내용을 어떻게 풀어 갈 것이며, 그 이념에 동참하는 청소년을 어떤 방법으로 동참 시킬 수 있는냐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마다 분파 되어 있는 청소년을 하나로 묶어 정책적으로 운동의 결과를 유추해 낼 수 있는 힘을 어떻게 모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타 청소년단체들은 힘을 자신들뿐만 아니라 타 조직과 연계하여 내용의 결실을 만들어 내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조직 내에서조차 청소년조직체를 연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타 단체와 같이 자기 조직과 타 기관간의 조직을 연계하는 것은 차치(且置)하고라도 우리 안의 조직체조차도 연대할 수 있는 연계망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은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YMCA역사 속에서의 다양한 조직에서 실질적인 운동을 담보했듯이 지금의 고교YMCA나 동아리연합회 등 지역YMCA에 산재해 있는 많은 조직을 연계하고 운동의 내용을 결집하여 진행시킬 수 있는 힘을 만들어 내는 것은 어찌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따라서 전국적 세계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우리 조직체에서 최소한의 힘을 결집할 수 있는 운동의 근본 조직을 형성해야 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전국조직으로서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테지만 실무간사의 입장에서 전국조직체의 틀을 간단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한국YMCA 청소년조직은 중부, 서부, 동부권의 3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권역별 대표자들을 선출하고 그 대표자들 중심으로 연맹차원의 청소년대표조직을 구성합니다. 각 권역에서는 지역 조직체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마다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별 준거집단 형식과 회원중심의 고교Y, 학교 내의 동아리조직과 회관 중심의 동아리 연합회, 수련원·문화의 집 등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을 각 분야별로 대표성을 이끌어 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역별 대표자가 권역별 대표성을 이끌어 내고 권역별 대표가 전국연맹단위의 대표성을 갖도록 조직한다는 것입니다. 방법으로는 동령회 만큼은 권역별로 나누지 말고 전국연맹단위에서 진행하되 대도시나 소도시나 각 지역별로 참가인원을 대표청소년 몇 명(약 5명 미만)으로 제한하여 전국적 조직체를 매년 구성할 수 있도록 유도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대를 중심으로 정책적 내용은 정리해 나가며 권역별(중부·서부·동부) 대표성의 조직체를 중심으로 하령회를 준비했으면 합니다. 따라서 차후 진행하는 동령회의 내용은 YMCA이념과 역사, 리더십, 선거(민주적 의사수렴구조)를 중심으로 한 집중 교육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권역별로는 학교 내의 교교YMCA, 위탁시설, 회관중심 동아리조직 등 몇 가지 분야로 나누어 대표자들을 선출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연맹중심으로 청소년들의 자발적 의견과 행사 등의 내용들을 함께 진행 시킬 수 있는 홈페이지를 제작해 청소년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지역별 이슈와 내용은 이 권역별 진행 팀에게 모든 것을 양도하고 중앙의 연맹 청소년대표는 그 틀을 구성하는 것을 연맹 담당 간사와 유기적으로 협의합니다. 청소년 관련 사업들도 1개 정도는 이러한 대표성이 있는 청소년들과 협의하고 여건이 허락하면 사업안도 함께 구상하여 장기적인 내용을 채울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리더십 아카데미나 청소년인권운동에 대한 중점 프로그램을 개설해 선출되어진 청소년들은 여건이 허락하는 한 지속적인 집중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유기적 연대체로서의 성장가능성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방법이 있을 테지만 우선 급한 것은 연맹 단위의 전국조직체의 대표성을 가질만한 청소년이 없다는 것입니다. 2)

이러한 문제제기와 함께 권역별 청소년조직체를 형성하여 현재의 청소년YMCA가 조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YMCA가 현재의 모습까지 있기까지 한국YMCA청소년조직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 청소년들이 하고 싶은 일? YMCA가 하고 싶은 일?

이러한 자발적 모임(조직)의 구성원인 청소년YMCA 회원들은 조직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목적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한편 조직은 청소년을 통하여 그 목표를 실현하려고 하게 되지요. 춤 동아리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부분 청소년들은 춤을 추고 싶어 오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몇몇 청소년들은 이성교제를 목적으로 오게 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은 춤 연습을 하기보다는 이성교제에 더욱 집착하게 되며 춤 동아리 회원간의 여러 불편한 관계를 만들게 됩니다. 본래 춤 동아리 목적과 참여한 친구의 목적이 다르게 되는거죠.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청소년YMCA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은 단체에서 자신의 가치관·지식·기술 등을 익히고 실천하며 성장합니다. 단체는 청소년에게 지위와 역할을 제공하게 되죠. 이러한 활동을 진행하며 청소년 자신이 지도력을 성장할 수 있음은 자명합니다.

2) 2004, 한국YMCA 청소년운동 조직제안, 37차 한국YMCA전국대회 청소년포럼

생명평화운동의 리더! |

여기에서 중요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청소년의 목적과 단체의 목적이 같으면 이상적이나 청소년이 단체에서 행하고자 하는 목적과 단체가 바라는 목적이 다르면 여러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 지점에서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춤을 추거나 그룹사운드 동아리에서 락 음악을 하더라도 다른 단체나 기관의 청소년 동아리와 청소년YMCA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춤 동아리라도 기본적으로 춤 동아리는 춤을 좋아해서 모인 청소년들이 모여서 동아리를 만들어 활동을 합니다. 축제나 여타 행사 등의 무대에서 춤을 추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지요. 그러한 활동가운데 YMCA청소년동아리 활동은 다른 단체의 청소년들처럼 공연을 합니다.



이와 함께 더 나아가 청소년YMCA가 행해야 할 일들이 존재합니다.

국회의원선거나 지방의회, 시장 선거 등에 청소년들을 대변해서 춤으로 퍼포먼스를 만들어 알리기도 합니다. 또한 어려운 또래 친구들을 위해, 또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춤을 활용해 봉사활동도 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산YMCA의 댄스 동아리들은 토요일 오후면 장판을 들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도심가운데로 나가 춤을 추고 모금을 합니다. 그 모금액을 봉사활동 동아리에게 주어 지역의 독거노인 분들을 지원하기도 하지요. 이뿐만 아니라 락 동아리 연합회 청소년들은 연합 행사를 주최하고 진행하여 모금도 하고 동영상 시디도 제작하여 판매하고 그 수익금 전액을 동남아의 재해로 힘겨워 했던 청소년을 위해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과거의 YMCA전통에서 보여 지듯이 우리의 목적에 부합하는 문화 창달뿐만 아니라 복지향상까지도 실천 할 수 있는 타 단체와 다른 소중한 차이점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문화 창조에서의 의미도 되새겨 봄직한 중요한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마냥 연예인들의 흥내만을 내며 창조적이며 역동적인 청소년의 모습이 없는 동아리는 청소년YMCA의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음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같은 노래를 하더라도 청소년인권에 대해 평화에 대해 개사를 해서라도 노래할 수 있는 창조적인 생각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4. 청소년YMCA가 있기까지

청소년YMCA의 조직을 뜻하는 회(Association)는 조직(Organization)과는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건 **자발성에 기초한 모임**이라는 것이지요. 누군가가 강압적으로 단체활동을 하라며 강요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단체에 춤을 추거나 노래를 하건, 락 음악, 봉사활동, 선교활동, 토론 등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이 모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참으로 뜻 깊은 일입니다. 자발적 활동을 통하여 사회화 과정도 일어나게 되며 책임과 의무가 공동으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현재의 청소년YMCA가 있기까지 한국YMCA 청소년운동조직은 다양한 변화를 해왔습니다.

1) 학생YMCA의 탄생

우리나라 최초의 YMCA는 배재학당에서 1901년 만들어진 학생 YMCA이며 중국, 홍콩의 학생YMCA와 교류를 하였습니다. 학생YMCA가 정확하게 어떻게 어떤 경로를 통해 창립되었는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윤치호와 서재필이 1985년 귀국하여 배재학당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조직한 우리나라 최초의 학생조직인 협성회(協成會, 1986년, 배재학당이 학숙청년회(學熟靑年會)로 바뀌어졌고 이 학숙청년회가 개편하여 학생YMCA가 되었다고 추정할 뿐입니다. 그렇게 추정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협성회를 조직하고 이를 지도하며 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던 윤치호, 서재필이 갑신정변 후에 미국으로 망명하여 유학할 때에 학생YMCA 활동을 하였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협성회와 학생Y가 같은 학교에 조직되었던 유일한 학생조직이었다는 점이고, 셋째는 1898년 독립협회의 해산 이후에 1899년 청년 150여명이 외국의 선교사들에게 YMCA창설을 위해 파송되어 왔을 때에 이미 배재학당에 학생YMCA가 존재하였다는 점입니다. 어쨌거나 1901년 황성기독교청년회(현재의 서울YMCA, 1903년 창립)보다 먼저 학생YMCA가 존재하였다는 것은 사실이며, 1902년에는 세계학생기독교연맹(WSCF)에 가맹하였습니다.

학생YMCA의 창립은 독립협회로 대표되는 개화자강운동의 흐름과 기독교의 에큐메니칼(기독교 교회 일치운동)운동과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조선시대를 개혁하고자 하였던 갑신정변의 실패 후에 미국으로 망명했다가 기독교인이 되어 돌아온 윤치

생명평화운동의 리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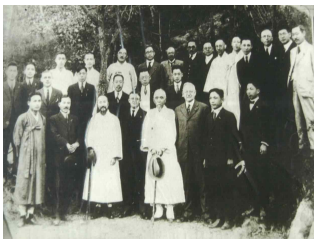
호, 서재필이 독립협회를 조직하고 협성회를 조직한 것입니다.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발상이라고 할 만한 공화정(왕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사람이 정부를 구성하여 통치)을 주장할 만큼 독립협회는 근대적 민주주의의 모습을 구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독립협회의 주도에 의해 열린 만민공동회는 민주주의를 이루어 나가는 통로였다. 또한 한글 보급 운동, 독립신문 등을 통한 계몽활동들이 독립협회의 해산으로 무산되어 켜고, 지도자였던 이상재, 김정식, 이승만, 김규식 등은 옥고를 치루고 윤치호, 서재필 등은 외국과 시골로 피신하게 됩니다.

독립협회를 통해 개화운동에 앞장섰던 협성회 회원들은 지도자를 잃고 좌절하게 됩니다. 이때에 아마도 협성회의 회원들이라고 추정되는 150여명의 청년들이 독립협회의 후신으로서, 독립협회의 구실을 할 수 있는 조직으로서의 1899년 YMCA 창설을 요구하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학생YMCA는 이러한 시대적 정신을 가지고 창설되게 되었습니다. 현재와 같은 모습의 YMCA는 아니었지만 청년정신, 기독교이념, 민족주의, 개화사상, 자강의식과 같은 정신과 뜻으로 뭉쳤던 것입니다. 또한 어떤 시청년회보다도 먼저 한국사회에서 YMCA의 싹을 틔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일제하의 학생YMCA운동



독립협회로 옥고를 치루었던 대다수의 지도자(이상재, 윤치호, 김정식, 김규식, 남궁억 등)들이 함께 1904년 황성기독교청년회에 가입하면서 YMCA는 독립협회의 계승자 구실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YMCA도 이들 지도자들의 지도로 인해 비약적인 발전을 하여 1908년 김규식이 최초의 학생YMCA 담당간사가 되었습니다.

▶YMCA 초기 지도자들

1910년 진관사(津寬寺)에서 제1회 학생 하령회(6월 22일-27일, 46명 참가)열리게 되고 이는 우리 나라 최초의 캠프입니다. 이를 계기로 기존의 배재학당, 일본 유학생들의 모임인 재일본 한국YMCA, 상동청년학관 이외에도 경신학교, 한영서원, 기청학관, 세브란스의전 등에 학생YMCA가 창립되어집니다. 같은 해에 미국으로부터 이승만이 귀국하면서 학생YMCA 담당간사가 되어 1911년 전국을 순회하면서 학생Y를 조직하게 되고 제2회 학생학령회(대회장 윤치호)가 개성에서 21개

학교 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그러나 활발한 YMCA기독교계의 활동에 위협을 느낀 일본 총독부는 총독 암살음모사건(일명 105사건)을 날조하여 윤치호를 비롯하여 다수의 학생Y회원들과 기독교계 인사들을 검거하였고 이승만, 김규식 등은 미국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이때 일제는 학생하령회가 식민지 체제를 전복하고자 모인 것으로 조작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5인 사건으로 치명적인 상처를 받았던 학생YMCA는 이에 굴하지 않고 그 기세는 더욱 확산되어 전국적으로 계속되었습니다.

1913년 제3회 학생하령회가 개최되고, 이러한 학생 하령회는 1916년 제6회에 이르기까지 개최되었습니다. 하령회는 학생YMCA를 확대해나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1914년 1개의 도시YMCA와 9개의 학생YMCA가 조선기독교청년회연합회(현재의 한국YMCA전국연맹)을 창립하게 됩니다. 또한 1919년 재일본 한국YMCA에서 유학생 회원들이 모여 28독립선언을 하였고, 3·1운동에 학생Y는 당시에 유일한 학생조직으로 주도적인 참여를 하게 됩니다.

3·1운동의 민족대표 33인중 1명이 기독교인이고 그 중 9명은 YMCA관계 인사였습니다. 1908년 지금의 서울YMCA 종로회관의 자리에 황성기독교청년회관이 들어선 다음에 회관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긴 것은 교육사업이었습니다. 체육사업, 학관사업을 통한 소년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어집니다.



▶ 학생Y 농촌봉사활동

1920년대 학생Y활동 중에 가장 주목하여야 하는 점은 물산장려운동과 YMCA농촌사업의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물산장려운동은 평양YMCA 총무인 조만식 등의 기독교인들이 주도하여 전개한 것으로 식민지 치하에서 잠식된 민족경제를 소생하려는 운동의 일환으로 국산품애용과 생산진흥을 강조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점차로 민족의식의 자각, 자급운동과 외래상품배척운동으로 발전하는 범국민운동으로 번져나갔습니다.

농촌사업은 도시보다는 당시 전인구의 8할 이상이 거주하던 농촌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여야 한다는 자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정신적 소생, 사회적 단결, 경제적 향상이라는 3대 강령을 채택하고 농민교육, 새로운 종자 보급, 협동조합의 확대의 방식을 중심으로 전개하였고 농촌봉사활동을 중심으로 학생Y의 대부분이 이에 참여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조직적 활동도 활발하여 1921년에는 조선기독교청년회연합회 내에 학생부

생명평화운동의 리더! |

를 설치하고 이대위를 초대간사로 임명하였습니다. 몇 년 동안 개최하지 못했던 하령회가 1921년 금강산에서 개최되고, 1926년 제12회 하령회를 마지막으로 1927년부터는 YM/YWCA의 연합 하령회가 개최되어졌습니다. 60여개 학교 120여명의 남여 학생들이 모인 '제1회 조선남여학생 기독교청년회 연합회 하령회'가 그것입니다.

하령회에서는 사상문제, 학생문제, 신앙문제 등을 다루었고, 표어는 '앞으로 가자'였는데 주로 농촌에 기독교적 이상촌을 건설하는 것을 논의하였습니다.

1928년에는 제2회 하령회가 '보아라'라는 표어로 개최되었고 토론의제는 1)오늘의 조선기독교, 2)오늘의 경제문제, 3)오늘의 조선학생문제 등이었습니다. 강사로는 배은희, 백낙준, 홍중숙, 채필근, 서춘, 이순택, 김필례, 조만식, 윤치호, 신흥우, 홍병선 등 당시 조선의 지성인들이 주축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령회는 1931년 만주사변이 있기 전까지 개최되어졌습니다.

1931년 만주사변 이후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이 아시아를 상대로 더욱 더 노골화되면서 YMCA와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가중되었습니다. 이러한 탄압의 영향으로 1935년 연합회 내에 학생부와 농촌부를 폐지함으로 학생Y와 농촌사업은 급속도로 위축되어갔습니다. 1938년 조선YMCA가 일본YMCA 산하로 들어가면서 서울YMCA만 형식적으로 남게 되고 그 외 전국의 모든 YMCA와 학생Y는 완전히 폐쇄되었습니다.

3) 해방 후의 고교·중학YMCA의 운동



▶ **군산 군상고YMCA 클럽**

‘하이-와이’클럽은 고등학교 기독교청년회 클럽의 약칭으로서 고등학생을 위한 YMCA운동의 일종이며 학생들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운영되는 모임입니다. 현재의 청소년YMCA가 있기 바로 전에 고교Y라는 이름으로 통상 지칭했던 조직이지요.

고교Y(Hi-Y)는 국제적 초교파적 성격을 지닌 것
과 민주주의적 생활방식을 실천하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하이 와이는 고등학생만으로 조직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고등학교 내에 조직되는 것이나, 클럽활동이 그 본질에서 이탈하지 않는 한 고등학교학생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교회 또는 지역을 단위로) 이를 조직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현재 청소년YMCA라고 집약하는 활동의 가장 가까운 과거 조직인 셈입니다.

1945년 해방과 6.25의 극심한 혼란 속에서도 YMCA의 재건은 서서히 진행되어 갔습니다.

지도력, 건물, 재정, 회원들이 모두 없어진 가운데 일제시대에서 YMCA활동을 하였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게 되고 전국 각지에서 재건총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독교학생들은 좌우의 극심한 대립의 사회와 학원 상황 속에서 기독교학생회라는 자생적인 모임을 갖게 되었고, 일제시대 때에 학생Y의 뿌리를 두고 있는 몇몇 학교들로 학생Y가 재건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해방 후에 최초로 1946년에 진관사에서 하령회가 열리고 47년에는 YM/YWCA가 합동으로 남녀하령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여기에 참석한 학생들은 전국에 산재한 기독교학생회를 YMCA가 통합하여 강력한 지도력 하에 조직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본격적인 학생Y 재건을 위한 YMCA의 내적준비가 너무나도 부족하였습니다. 당시의 기독교학생회는 학원 사회 속에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자생적으로 생겨난 각 학교의 기독교학생회를 전국적인 운동체로 연결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연세대학교, 이화여대가 중심이 된 학생Y와 경동교회 기독교학생회의 계열, 서울대학교 기독교학생회가 중심이 되어 기독교학생회의 통합을 활발히 논의하였으나 신학적 이유로 결별하고 나머지 기독교학생들로 1948년 한국기독교학생회전국연합회(KSCF, 1969년에 창설된 KSCF와는 별개)가 결성되었습니다. 이 연합회는 18개 대학과 54개 중고등학교의 기독교학생회가 참여하였다. 그러나 곧 이 연합회는 YM/YMCA계열과 비Y계열의 분열되었습니다.



▶ 하이-Y 회원들의 집회 모습

학생Y는 49년 제4회 남녀학생하령회(주제 : 신앙을 실천에), 51년 제5회(주제 :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고난의 극복), 52년 제6회(주제 : 해결은 그리스도로 부터)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1952년 18개 대학과 30개 중고등학교로 학생YMCA전국연맹을 결성하였는데 일제시대에 간사였던 현동완이 총무로 부임하면서 무엇보다도 중요시한 것은 소년사업이었습니다.

신앙운동, 보이스카웃 운동, 삼각 소년회, 소년 평화운동, 어린이 합창단, 소년시운동(BOY'S TOWN)이 그것이다. 특히 소년평화운동(평화구락부, PMC, PEACE MAKER'S CLUB)은 1926년부터 시작되어 해방 후에 재건되었으며 한국Y 특유의 소년사업모델이었습니다. 1950년대 이후에 청소년운동의 주류를 이루었던 HI-Y운동과 좋은 대조를 보여주며, 기독교 신앙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1953년은 청소년YMCA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 많았던 해입니다. 먼저 고교와이이 학생와이(대학생와이)로부터 분리되어서 연맹 이수민간사(후에 세계 YMCA동맹 총무)가 소년부간사가 되고 고등학교YMCA(HI-Y)전국연맹이 창립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학교별 클럽 혹은 연합클럽으로서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지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부터 고교Y는 학생Y와 별도의 조직체계를 가지고 자체사업을 전개하게 되는데 1953년에는 대학생과 분리하여 별도의 고등학생 하령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소녀Y클럽(여자고등학교YMCA클럽)과 중학Y클럽이 조직되면서 급격한 양적팽창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가능하게 하였던 것은 6.25동란 중 피난지 부산에서 YMCA전문학교를 통한 수준급의 전문사역자 양성사업이 실효를 거둔 것과 특히 코스톤 부처의 그룹웍 교실을 통하여 그 실습과목으로 전개된 소년목적클럽이 개발되어 전국 14개 도시에서 간사들에 의하여 발전되었으며, 1953년 연합회에 소년사업부를 신설하고 YMCA 전문학교 제2기 졸업생 이수민을 소년부 간사로 기용하여 전국적 발전을 꾀함으로써 한국 기독교청년회의 기간 프로그램의 하나로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울중학교 'Jr. HI-Y'는 1952년 전란 중에 최초로 조직되었으며 HI-Y로 발전되었습니다. 1951년에 '하이-Y'란 명칭이 몇몇 학교에서 사용하게 되었으며 1952년 초 YMCA전문학원 학생들은 미국에서 실시된 것(미국의 HI-Y클럽지침 번역) 같은 그룹활동의 원리·방법·프로그램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받았는데 그들은 그룹생활을 통하여 개성의 발전을 이룩한다는 확실한 그룹웍의 목적과 성인지도자의 강요함이 없는 선도와 회원 자신들의 결정으로 프로그램을 추진해나가는 소집단 단위의 클럽활동의 이념에 열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훈련받은 간사들이 자기들의 YMCA로 돌아가자 보고된 소년클럽의 수는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HI-Y에 이어 Jr. HI-Y와 그레이 -Y, 클럽들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러한 조직들이 연대하여 '시연맹'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이와이의 목적은 "학교 가정 사회 안에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높은 생활수준을 창조 유지 발전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그 강령으로는

- ① 깨끗한 언어(Clean Speech)
- ② 깨끗한 운동정신(Clean Sportsmanship)
- ③ 깨끗한 학문(Clean Scholarship)
- ④ 깨끗한 생활(Clean Living)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맹 소년부(청소년부) 위원회의 하이와이의 방침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인의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 ① 클럽집회, 사회봉사, 레크리에이션 등을 통하여 친구를 사귀는 일
- ② 인격도야를 위한 교육적 프로그램을 갖는 일
- ③ 회원의 사회적 시야를 넓히고 역사적 책임의식을 계발하는 일
- ④ 다른 사람과 우호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일
- ⑤ 종교적 인생관을 수립하는 일
- ⑥ 사회생활에 필요한 각종 기술을 습득하는 일

둘째는 학교에 봉사하는 프로그램으로서

- ① 교내에 진지한 학구정신과 결백한 운동정신을 조성하는 일
- ② 학교 내 미화작업을 하는 일
- ③ 불신학생에게 전도하는 일

셋째는 사회봉사 프로그램으로서

- ① 재해 발생시에 구호 모금을 하는 일
- ② 지역사회에 새로운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일
- ③ 농촌봉사대를 파견하는 일
- ④ 가정과 동네에 민주풍토를 조성하는 일
- ⑤ 사회 및 교회에 봉사하는 일

이러한 하이 와이의 조직들이 자연스럽게 하령회를 만들어 갔습니다.

1954년에는 전국 하이Y 하령회가 처음으로 YMCA에서 단독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지방 하이와이 간부 지도자 및 간사, 하이 와이 전국연맹, 연합회 소년부 위원회의 중심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27개 지방에서 모인 186명의 대표수는 전년도 ‘하이와이’, ‘와이틴’이 합동하여 개최한 하령회 대표 수보다도 훨씬 많은 수였습니다. 이 집회의 중요한 특징은 하이 와이 조직과 클럽 프로그램의 증진을 위해 계획된 오후 시간의 ‘하이 와이 연구’시간과 워십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하이-와이 임원’과 ‘하이 와이 노래책’이 출판되었습니다. 조직 내의 회원구성원들 중 하이와이 하령회의 대표들은 주니어 하이 와이 출신이 상당히 많았으며, 지도자 중의 많은 수가 하이 와이 출신이었습니다. 이렇듯 조직체계 내에서 꾸준히 연계되어졌습니다.



▶하이Y 전국대표자협의회 (1964)

있는 YMCA세계동맹에 송금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1954년 고교Y가 전국적으로 102개에 달하고 중학Y클럽도 1955년 32개에 달하게 되자 같은 해에 중학Y 단독으로 전국대회를 개최하고 전국연맹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1956년 고교Y 자력으로 전국연맹에서 발간하는 월간 '하이Y'가 창간되고, 4월 15일을 HI-Y의 날로 제정하였습니다.

1959년에는 세계난민구호운동에 호응하여 모금운동을 전개, 총 246,350환을 제네바에

이때부터 고교Y는 대학Y와 함께 YMCA의 대표적인 운동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1960년의 4.19는 YMCA에 있어서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창립 이래 한국사회 속에서 예언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던 YMCA가 8.15에서 4.19에 이르기까지 격동의 역사현장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는 자성의 목소리가 드높았습니다. 고교Y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자성은 향토개발운동으로 이어집니다. 대학Y에서 개발되고 고교Y에 의해 추종된 워크캠프(WORK CAMP)가 향토개발운동으로 수렴되어져 추진되었던 것입니다.

고교Y운동은 60년대에도 꾸준히 전개되어 1969년 말에는 그 클럽 수가 200여개에 이르게 되었고 60년대 초 후반에도 계속 방학 중에도 노동캠프 스타일의 농촌봉사에 주력하였습니다. YMCA내에서 사회개발운동이 대두되면서 십대의 장이라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고교생들의 관심사와 생활주변의 문제, 사회문제 등을 논의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발표하곤 하였습니다.

고교Y는 1969년 대학Y의 통합(KSCF로 학생기독교운동의 통합)과 학도호국단의 설치 이래로 급격한 침체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1975년 학도호국단의 설치와 입시교육의 강화로 고교Y는 학원 내에서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활동의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활동의 침체는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 외에 지도방침의 결함이라는 내부적인 요인이 작용하였다는 반성이 YMCA내부에서 제기되었습니다. 봉사활동 등의 외부적 활동에 치우치면서 모든 활동의 근거가 되었던 기독교적 인격과 가치관의 형성이라는 클럽 회원의 내적 의식의 강화가 부족하였다는 지적이 그것입니다. 의식의 약화는 봉사활동을 중심으로 한 활동적인 목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을 때에 새로운 활동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의 상실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4) 21세기를 지향하는 고교YMCA 운동 전개

1980년 4월 15일부터 2일간 진행된 제 25차 연맹 전국대회는 한국YMCA운동의 시대적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한국의 민주화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민주적인 통일작업을 위하여 노력하며 민중의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근로자, 농민, 도시 빈민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기존 사업을 확대하며 중학Y, 고교Y, 대학Y, 청년Y 운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국YMCA 상호간의 정신적 물질적 협력 체제를 굳게 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추어 대구YMCA는 지침서 초안을 내어 연맹 프로그램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출판되었으며, 그 뒤를 이어 수정 보완하여 지역YMCA 마다 중학Y, 고교Y 지침서를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한편 1982년부터 영남지역에서의 명맥만 유지하던 하령회가 부활된 것은 1997년 연맹의 주도하에 각 지역 청소년부 간사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져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올림픽 이후였습니다. 국가적으로 청소년 관련된 법령을 정비하고 제도를 개편하는 일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당시 ‘청소년 어울마당’이라는 청소년 건전 놀이 공간 및 문화 보급의 목적성 사업이 전개되었습니다. YMCA는 이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놀이문화 보급 및 놀이공간 확보, 청소년 동아리활동에 관심을 기울이게 시작했습니다. 각 지역별로 펼쳐지는 청소년 어울마당을 비롯하여 청소년 토론의 광장 등은 YMCA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각 시청년회 별로 청소년수련관의 위탁 운영, 사회체육시설 위탁운영, 사회복지관의 위탁운영을 통해 청소년 동아리 활동이 급성장하게 됩니다. 다양화되는 매체 및 홍보물, 음반, 영화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목표로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신설되고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발족하게 됩니다. 각 지역YMCA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지정 받아 활동을 하게 되고 이에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이 교육 정책에 의해 권장되면서 한층 YMCA 청소년 운동은 활기를 찾게 되었습니다.

5) 생명평화운동의 주체로서 청소년YMCA운동

1997년 하령회가 부활된 이후 중부지역(서울, 경기, 강원), 서부지역(대전, 충청, 호남, 제주), 영남지역(대구, 부산, 경남, 경북) 세 권역으로 나누어 진행되는 하령회는 지금까

생명평화운동의 리더! |

지 꾸준히 지역의 청소년 회원활동의 네트워크를 근간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 프로그램의 급속한 양적 팽창과, 위탁운영을 통해 급성장한 청소년 동아리활동 속에서 YMCA 청소년 회원운동으로서 고백과 헌신을 강화하고, 지역의 청소년 회원 조직운동을 확대하기 위해 2006년 2월 고려대 서창캠퍼스에서 “생명평화운동의 리더! 청소년YMCA 전국 동령회”를 진행하여 중부, 서부, 영남지역의 청소년YMCA 연합회가 조직되었고, 이를 대표하는 회원체계인 “청소년YMCA 전국대표자회”가 조직되었습니다.

“청소년YMCA 전국대표자회”는 청소년 시민사회를 강화시키기 위한 531지방선거참여운동, 18세 참정권 확보운동, 지역사회 정치·경제·사회·문화 참여운동 및 평화로운 지구촌 건설을 위한 북한 통일자전거보내기 모금운동, YMCA 평화의 날 모금운동, 내몽골나무심기 워크캠프, 동티모르 재건과 치유를 위한 커피모금 등 생명, 평화운동을 지역사회 곳곳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 내몽골 나무심기 워크캠프 (2004)



▶ 18세 참정권 확보를 위한 캠페인 (2005)



▶ 북한 통일자전거보내기 캠페인을 위한 청소년 평화종주단 (2006)



▶ 생명평화운동의 리더! 청소년YMCA 전국 동령회 (2007)

또한 청년들의 YMCA의 의사결정의 참여와 회원 주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38차 한국YMCA 전국대회 (2006년 6월)에서 만15세 청소년회원권을 제안하였고, 전국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통과되었습니다.

한국YMCA 새로운 운동 100년을 향한 비전선언문

“꿈꾸는 젊은이, 함께 가꾸는 지역사회, 평화로운 지구촌”

오늘 한국YMCA 운동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우리 기독교청년공동체는 파리기준과 한국YMCA목적문이 우리의 운동과 선교사명의 뿌리임을 확인한다. 우리는 기독교청년회가 종교, 성, 연령의 구별없이 개방적인 회원정책을 지닌 열린 교회로서, 청소년과 청년을 Y운동과 시민사회의 주역으로 세우며, 여성 지도력의 역량강화에 특별한 강조를 두는 평신도 에큐메니칼 사회운동체임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한국YMCA운동 2세기의 새로운 장정(長征)을 떠나는 결의로 청년이 중심이 된 회원 운동체, 선교 정체성을 강화하는 기독교사회운동체, 정의, 평화, 창조질서를 회복하는 생명공동체 건설에 헌신할 것을 다짐한다.

경제가 주도하는 세계화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식량과 의료, 건강은 물론 문화마저 상품화하며,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생명을 조작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근원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 지구적인 생태위기와 자원고갈은 물론 제3세계에서는 기아와 빈곤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와 난민에 대한 인권침해와 착취는 가중되고 성과 인신의 매매는 AIDS와 같은 불치의 병을 확산시키고 있다. 사회적 편견과 차별, 종교간의 갈등이 깊어져 각종 폭력이 사회질서를 위협하고 인류의 양심에 심각한 도전을 던지고 있다.

우리 사회의 권위주의적인 중앙집착과 유착은 여전히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남아있고 지역사회의 자율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경제이윤에만 집착한 세계화는 무한경쟁으로 치닫고 사회적 상식과 가치를 짓밟아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창조질서의 생명사슬을 파괴하고 있다. 또 패권적인 군사주의가 한반도 주변의 안보와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한다.

우리의 새로운 비전

하나님의 선교 도구로 쓰여지기를 기도하는 우리는 지난 세기의 힘의 문화가 남긴 시대적 도전 앞에서 그 나라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이를 위해 YMCA는 앞으로 10년 동안 청년들의 특성인 용기와 감동을 양성하고 창조적인 청년학생문화를 만들어 갈 것이다. 우리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터전으로서 지역사회를 세우는 일에 힘을 쏟을 것이다. 정의롭고 생태적인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생명과 평화가 넘치게 함으로써 시장적 세계화의 폐해에 저항하는 공간을 만들 것이다. 나아가 지구촌

시민사회의 상식과 가치가 뿌리내리게 할 것이다. 평화와 생명의 상생,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는 관용, 모든 사람이 스스로 서서 참여를 권하고 연대를 만들어 보이지 않는 타자에 대한 책임을 나눠지며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지구촌의 새로운 정신을 키워갈 것이다. 우리는 성경이 보여준 새하늘과 새땅의 비전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평화와 생명과 정의가 한반도에 강물처럼 흐르는 꿈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 꿈이 성육신하여 우리 운동의 시간표와 공간 안에서 꽃 피우도록 기도할 것이다.

이에 “꿈꾸는 젊은이, 함께 가꾸는 지역사회, 평화로운 지구촌”을 새로운 선교사명 100년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의 비전슬로건으로 채택한다.

1. 우리는 열린교회요 에큐메니칼 선교운동체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선교사명의 시대적 성육신을 위해 이념추구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2. 우리는 청소년의 자발적인 소통과 참여를 통해 21세기 생명문화 감수성과 지구시민의식을 지닌 청소년 시민사회를 육성하는데 애쓴다.

3. 우리는 청년이 중심이 된 회원운동체로서의 특성을 강화하고, 청년지도력을 개발하며, 여성과 청년의 시민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4. 우리는 참여민주주의와 사회적 정의, 생태적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성숙한 시민사회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건설을 위해 민주시민지도력을 육성하고 주민의 참여? 자치역량을 키우는 시민정치운동을 전개한다.

5. 우리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와 생태적, 문화적 소수자들을 치유하고 보살핌을 물론, 이들을 삶의 주체로 세우기 위한 섬김과 나눔의 문화를 만들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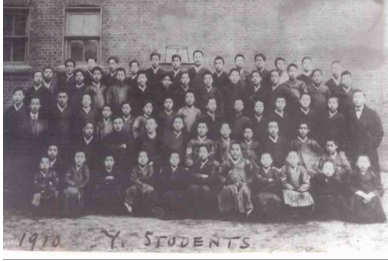
6. 우리는 민족공동체와 함께 상생과 희망의 미래를 열기 위해 민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와 평화 그리고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교류협력과 평화통일운동에 앞장선다.

7. 우리는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의 구현을 위해 생명가치에 기반한 녹색농촌 만들기, 도농공동체운동, 생활협동운동 등 대안적 사회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8. 우리는 생명과 평화, 다양성과 관용의 정신을 바탕으로 보이지 않는 타자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감 등 지구시민(Global citizen)의 덕목을 키우는 지구시민 평화교육에 매진하며, 정의와 평화에 기초한 지구시민사회의 건설을 위한 국제연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위의 선언문은 ‘한국YMCA 비전선포식(2004. 5월)’에서 발표된 자료입니다.

하령회의 역사



▶ 학생YMCA 제1회 하령회(1910)

하령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식 캠프의 시작입니다. 하령회가 YMCA에서 가지는 역사적 의미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학생 하령회는 학생들의 연합운동이었습니다. 학생들은 하령회 때 일단 학교를 떠나 다른 학교 학생들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학생 하령회는 개최되는 계절에 따라 하령회 또는 춘령회라고 했는데 학생들은 방학을 이용하여 서로간의 친목과 교양증진을 도모한다는 뜻도 있고 이 밖에 국내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강연회를 가짐으로써 학생들이 정신적 풍부함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교류와 친교를 통해 기독교적 신앙심을 키울 수 있는 연합 행사였습니다. 하령회에서는 전국적 상황을 통해 정신적 풍부함이 삶의 현장인 지역으로 돌아가 각 학교에 YMCA를 탄생시키게 되었습니다.

1910년 6월 22일부터 27일까지 서울 근처의 진관사에서 제 1회 하령회가 열렸습니다. 이 하령회는 김규식 간사의 주관하에 전국 각지에서 46명의 학생들이 초청되어졌으며, 6개교과 4개국의 외국에서 16명의 강사가 초청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한국 역사상 기독교적으로는 초교과적이고 국제적 집회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 1회 하령회는 국가의 운명이 다하여 가는 때로 일본 제국 세력이 우리나라를 침탈하기 4개월 전의 일 이었습니다. 이 하령회를 계기로 각 학교에 학생YMCA가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1911년 말까지는 배재학당과 상동청년학교의 YMCA가 부활되고 경신학교, 세브란스의학교, 한영서원에도 학생YMCA가 조직되어 6개 학생YMCA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학생YMCA를 지도할 간사를 구하게 되는데 미국 프린스턴대학을 졸업한 이승만이 서울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귀국 후 전국을 순회하면서 서울로 들어오는 길에 개성에 들려 제 2회 하령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제 2회 하령회는 윤치호를 대회장으로 하여 93명의 학생이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황을 이룬 것은 10개월 전에 체결된 한일합방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제 3회 하령회는 1912년 6월 25일부터 30일까지 서울의 북한산성에서 열렸습니다. 57명으로 인원은 줄었지만 이 하령회는 눈물과 흥분으로 가득했습니다. 1회, 2회 하령회의 회장이던 윤치호와 양전백 목사와 또 학생다수가 소위 데라우찌 삼살 혐의로 수

생명평화운동의 리더! |

감되어 있었기 때문에 회장이 공식인 채 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제 4회 하령회는 1913년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었으며, 참가 인원이 일본에 의해 50명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이상재 총무의 지도하에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러나 그 지도의 역점이 기독교 청년회의 수호에 놓여졌고, 주력사업으로 공업교육과 자립에 중점을 두어 성과를 거두었으나 2년간 하령회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제 5회 하령회는 1915년 4월에 광주에서, 제 6회 하령회는 1916년 7월에 평양에서, 제 7회는 1921년 금강산에서, 제 8회 하령회는 1922년 개성에서, 제 9회 하령회는 1923년 서울에서, 제 10회 하령회는 1924년 개성에서, 제 11회 하령회는 1925년 공주에서, 제 12회 하령회는 1926년 평양에서 열렸습니다.

이러한 학생YMCA의 기운을 받아 YMCA-YWCA가 연합하여 1927년 8월 23일 서울 성북동에서 제1회 조선 남녀 학생 기독교 청년회 연합 하령회가 “앞으로 가자”라는 표어로 60여 학교 남녀 120명의 학생이 모여 각종 사상문제, 신앙문제, 학생문제 등을 다루고, 주로 농촌에다 기독교의 이상촌을 건설하는 것을 논의했습니다. 제 2회 YMCA 연합 학생 하령회는 “보아라”라는 표어로 열렸고 토론의 주제는 오늘의 조선 기독교, 오늘의 경제문제, 오늘의 조선 학생 문제 등이었습니다. 강사로 윤치호, 신흥우, 김필레, 배은희, 백낙준, 홍종숙, 채필근, 서춘, 이순택, 조만식 등 당시 조선의 지성인들이 주축이었습니다. 제 3회 연합 하령회에서는 조만식은 “조선기독교학생의 태도와 사명”이라는 주제 강연으로 “세계의 어느 나라든지 조선처럼 일이 많은 나라는 없고 동시에 조선 청년처럼 사명이 큰 사람은 없을 것이다”라고 역설함으로써 기독교 학생들의 긍지를 심어 주었습니다. YMCA-YWCA 연합학생 운동은 국제적 연대협력 활동도 활발히 하여 1928년 12월 인도 마이솔에서 열렸던 “세계학생기독교연맹” 위원회에 조선 남녀 기독교 청년회 대표로 김필레를 추천했습니다.

하령회는 조선기독교청년회 하기수양캠프로 대체되어 열렸습니다. 1936년을 끝으로 하령회를 대체한 하기수양캠프는 끝을 내게 되는데 그 이전의 하령회와는 다른 프로그램이 실시되었습니다. 특히 1936년 이전의 하령회는 행동위주의 프로그램으로 행동과 대결과 헌신이 주종을 이루었지만 수양회는 YMCA의 경건성을 소생시키는 운동으로 전개 되었으며, 명상과 체념과 대망이 참석자들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수양회는 대부분의 학생 및 학생부 간사들이 참여하지 않았고 YMCA의 위축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지켜온 YMCA의 정신이 퇴색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YMCA는 해방 후 까지 암흑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947년 8월 13일부터 7일간 서울 우이동 진관사에서 단절된 하령회가 YMCA-YWCA

연합 하령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하령회는 한국YMCA의 재건의욕을 교회와 사회에 YMCA를 과시하는 신호탄으로 그 중요성을 갖습니다. 이를 계기로 늦게 발동이 걸린 조선기독교청년회의 재건 작업은 무서운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6·25 동란을 맞아 회관이 불타고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이러한 전통은 1959년까지 13회에 걸쳐 연합 하령회가 개최되었습니다.

1950년대 하령회는 지난날의 정신은 사라지고 HI-Y 건설 운동에 주력하게 되면서 향토 건설운동 등이 활발하게 펼쳐졌으나 4·19를 군사력에 의해 무력으로 집권한 박정희 독재정권에 의해 학생운동은 1980년대 이후로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신을 내부적으로 계승하기 위한 노력은 있었는데 이것이 1963년 대전에서의 1월 9일 전국대회, 1964년 1월 7일부터 10일까지 대구에서 대표자회의, 1966년 서울대회, 1967년 전국대회가 열렸습니다. 다만 1982년부터 영남YMCA가 중심이 되어 고교Y가 해마다 여름에 연합 하령회를 열어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1997년 한국YMCA 전국연맹은 단절된 하령회의 역사를 부활시키고 선배들에 의해 계승된 학생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충북 제천시 박달제에서 “영원한 만남, 푸른 꿈을 위하여” 라는 주제로 전국 각지의 학생과 지도자들이 300여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1998년부터 중부지역(서울, 경기, 강원), 서부지역(대전,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광주, 제주지역), 영남지역(부산, 대구, 경북, 경남지역)로 나누어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전 하령회는 일본이라는 국가의 적을 향해 기독교 신앙에 충실한 행동과 항거, 투쟁이 중심이었다면, 현재는 간부 중심의 동령회, 회원중심의 하령회로 구분되어 실시되고 있습니다. 주제도 역시 평화운동, 삶의 질 향상운동, 주체로써의 청소년을 만들어가는 청소년을 골자로 연합적 성격을 갖는 고교YMCA 연합 행사로 열리고 있습니다.



▶청소년YMCA전국 동령회(2007)

2006년부터는 전국 회원대표 및 임원이 참여하여 전국 청소년YMCA 회원대표를 구성하는 전국 동령회와 권역 중심의 회원대회인 하령회로 구분되어 진행되고, 생명평화운동의 주체, 청소년이 지역사회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주체가 되는 청소년 시민사회의 건설, 청소년 평화실천운동을 주제로 열리고 있습니다.

삼동 소년시 (YMCA Boys' Town)

1950년대 한국YMCA의 복지형 프로그램의 전개는 서울YMCA 삼동(三同: 德智體)사업의 영향 아래서 이루어진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울YMCA는 창설 이래 두 개의 프로그램 선호경향을 보여왔습니다. 하나는 “민중의 계몽”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으로 ‘기독교청년회 학관’을 통한 실업교육과 20, 30년대의 농촌사업으로 나타났으며, 또 하나는 “민중의 복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으로서 ‘삼동’의 이름 아래 이루어진 모든 구호봉사활동으로 나타났습니다.

6.25 동란 이후의 서울YMCA는 복지사업과 YMCA프로그램을 등식화할 정도로 거래의 아픔을 치유하는데 전력을 경주하였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시도가 1953년에 난지도에 창설된 ‘삼동 소년시(YMCA Boys' Town)’였습니다. 서울YMCA의 전통적인 삼동사업을 소년시 형태로 전개한 것입니다. 주한미군의 물질적 지원을 받아 성장하기 이전 현동완 총무와 소년부 황광은 간사의 지도로 YMCA 한 칸 방에서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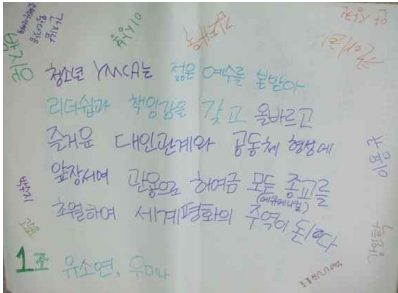
1952년 100여명의 시민(청소년)을 모으고 정식 발족하여 난지도 황무지를 개척하여 4개월만에 20여채의 주택 학교 보건 시설 등을 준공하였습니다. 1955년 120여명의 총선거로 선출된 김용호(17세) 시장 밑에 8국(생활, 농림, 상공, 문화, 보건, 재정, 교체, 인사)이 있어서 시장을 보좌하고 있으며 민주행정을 철저히 하기 위하여 시의회(인구 15명에 한사람씩)가 있어서 법을 세우고 행정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소년군사령부가 있고 시민은 병역의 의무가 있어서 누구나 소집을 받으면 훈련을 받고는 “조사대(경찰)”, “경비대(군대)”에 편입되어 시의 치안과 난지도 전역을 경호했습니다. 소년시는 국민학교와 중학교가 있어서, 시민은 모두가 오전 중은 학업에 전념하고 오후는 각자 맡은 임무수행을 하는데, 자급자족을 목표로 각자 하루 3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여 심신과 기술을 연마하며, 저녁은 하루 12명 씩으로 구성된 각 주택에서 자유롭게 학습, 오락, 휴식을 했습니다.

노동에 대한 대가는 “소년은행” 발행의 화폐로 지불되고 이것으로 모든 면에 소통되고 있으며, 소년병원 목욕탕 등의 보건시설을 비롯하여 양복점, 농장, 목장, 상점, 공작소, 우편국, 호텔, 도서관, 연극단, 합창단, 소년YMCA, 그리고 신문사도 있었습니다.

10대의 청소년들이 하나의 시를 형성해 재정, 치안, 일터 등 모든 것들을 총괄하고 진행했다는 것은 현재의 우리 청소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1-5. 청소년YMCA, 앞으로는 이렇게 말하세요

2007년 2월22일부터 24일까지 조치원 고려대 캠퍼스에서 진행된 ‘전국 동령회’에서 청소년YMCA에 대하여 참가한 청소년회원들이 정의한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 ▷ “청소년YMCA는 경험을 통해 얻은 진실된 믿음과 능력을 바탕으로 책임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노력하여 당당히 청소년의 안전과 자유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우리 청소년YMCA는 지역과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과 합치는 청소년의 피해를 막기 위해 앞장서는 선자로써 각자 역할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청소년YMCA는 책임감 있는 중재로써 적극적인

로 참여하여 안전과 위생이 남는 동비방을 만들어가면서 넓은 사랑과 맑고 건강한 마음으로 자부심을 바탕으로 활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청소년YMCA는 젊은 애들 놀라라 리더십과 책임감을 갖고 올리고 즐거운 대인관계와 공동체 형성에 앞장서며 관용으로 하여금 모든 종교를 초월하여 세계평화의 주역이 된다.”

▷ “청소년YMCA는 평화를 위하여 사랑과 화합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우정을 나누며 용감한 자부심을 가지고 보람찬 마음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고 자아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청소년YMCA는 하의 뜻과 믿음 아래 꿈과 화합의 공동체 선지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간절한 만남의 YMCA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YMCA 선배들이 정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평화, 사랑, 희망, 우정, 젊은 예수, 인권, 자유 등의 포괄적인 의미와 함께 소외계층과 나눔, 참정권, 종교초월, 자아실현 등의 세부 방침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청소년YMCA는 앞에서도 살펴본 듯이 고교YMCA와 중학YMCA 뿐만 아니라 각 지역 시청년회의 다양한 청소년동아리들을 포괄하여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청소년YMCA는 “YMCA목적에 동의하는 회원으로써 생명을 살리며 평화를 실천하는 10대 청소년”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생명평화운동의 리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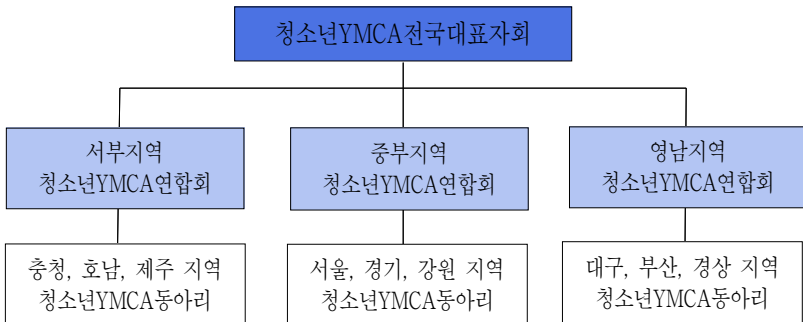
이제 우리 친구들은 자신 있게 말하세요. 앞으로 친구들이 청소년Y가 뭐하는 거니? 묻는다면 **YMCA목적, 생명, 평화, 청소년**, 이 네 단어는 반드시 들어가야겠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소중한 내용들이 모두 포함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청소년YMCA가 있기까지 몇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

2004년 37차 한국YMCA전국대회 청소년포럼을 기점으로 2006년도에 전국동령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청소년YMCA'라는 용어가 정확하게 사용되어졌습니다. '청소년YMCA'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고교Y와 중학Y를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물론 지역의 동아리연합회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 시청년회의 청소년모임들을 통칭합니다.

지역별 청소년YMCA가 연계하여 한국YMCA의 청소년회원들의 각 지역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조직을 '**청와대(청소년YMCA전국대표자회의)**'라고 칭하게 되었습니다.

중부(서울, 경기, 강원), 서부(충청, 전라, 제주), 영남(경상)의 세 권역별 대표자들을 중심으로 전국 청소년대표자들이 구성된 대표들의 연대체이며 2006년 동령회(전국 청소년YMCA 대표자대회)에서 결성되었습니다. 현재 '전국 동령회'를 통해 권역별 임원이 선출되어지며, 권역별 대표자는 한국 청소년YMCA 회원들의 대표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갖습니다.

<2007 청소년YMCA전국대표자회 조직도>



2. 청소년YMCA 활동은 왜 하나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바로 당신입니다. 물론 저이기도 하죠. 세상의 모든 생물은 소중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의 모든 생물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자연의 모든 생명과 함께 더불어 공존할 수 있는 바른 삶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그 소중함에 대해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것이지요.

가장 소중한 사람이 나이기에 나를 가장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랑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만큼’ 남을 사랑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 상대를 해치며 힘겹게 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이 힘겨워 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 청소년YMCA 회원들은 오직 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참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잘되기 위해 주변인들은 어찌되어도 상관없다는 그런 삶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건 우리 청소년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행하는 일이 아닐 거예요. 우리 친구들을 둘러싼 환경 그 자체가 이상하게도 우리 친구들을 많이도 힘겹게 하도록 구조화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더라도 그 환경에서 살아남아 오로지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세상을 산다면 얼마나 주변인들이 힘겨울까요?

청소년은 지금 현재 이 시간 권리의 주체라며 많이도 이야기 하곤 합니다.

현재 청소년은 학습권, 발달권, 생존권 또는 행복추구권 등의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기보다는 단지 교화, 교육의 객체나 보호, 시혜의 객체로, 또는 질서 규율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기초적 사과의 기반 위에 만들어진 법제구조가 현재 우리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를 깰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내용은 우리 헌법에 존재합니다. 청소년은 헌법상의 기본적 권리 주체이지요. 왜냐하면 청소년도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개개의 국민이 헌법에 보장되는 기본적 인권의 주체가 됨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 지켜져야 합니다. 인권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이 권리의 대부분은 국가가 책임지고 권한을 부여한 부분이기도 하면서 천부인 권으로서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반드시 지켜져야만 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기본적 권

생명평화운동의 리더! |

리가 잘 지켜졌을 때 세상은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평화를 일구는 매우 중요한 방법의 하나이지요. 청소년YMCA는 이러한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세상의 삶에서 깨어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목적에 따라 생명과 평화가 숨쉬는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장으로 써 놓으니 우리 친구들이 오해할 만 합니다. 어렵고 고민스럽게만 청소년YMCA활동을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년YMCA 활동의 특성(이유) 중 매우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재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재미는 세상에서 말하는 술, 담배를 하며 어른 흉내 내며 취하는 재미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르답니다. 청소년들의 모임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만들어지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2장청소년YMCA 이런 것도 할 수 있다에서 자세히 설명) 이러한 즐거움을 기본으로 본질적인 목적은 청소년 여러분 개인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해 청소년YMCA 활동을 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행복을 만들어 내기 위해 청소년YMCA활동을 행하며 움직여야할 몇 가지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2-1. 청소년YMCA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

첫째로 자기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짧은 예수) 사랑과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가치관을 형성합니다.

YMCA는 교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차별이 아닌 차이가 있다는 것이지요. 최상위의 목적은 같으나 그 목적을 풀어 행하는 과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그리스도의 사명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그 어디가 아닌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체 내에 교회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본질적인 목적에 닿아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모두 아는 내용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짧은 공생의 삶을 통하여 세상의 많은 이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사랑이 무엇인지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도 않으셨으며 그렇다고 혁명을 일으켜 많은 이들이 피흘리게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분은 자신을 십자가에 세워 세상의 모든 이들의 죄를 안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삶 자체를 본받는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로 인해 변화되어 왔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그 삶 가운데에서 가장 힘겨움을 가졌으나 이후 가장 큰 행복을 맞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그 삶을 본받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들을 사랑하셨지만 불의를 보면 어떻게든 해결하려 노력하셨습니

다. 단,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슴 가득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닳아야 하는 지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근래 학교폭력, 왕따 문제 등 다양한 청소년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청소년YMCA회원들은 예수님께서 그려셨던 것처럼 친구들과의 관계를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친구들 가슴이 평화로워져야겠지요. 가슴 가득히 그리스도의 정신인 사랑 안에서 평화를 일구기 위해 노력하며 생명을 살리는 활동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평화로운 인간관계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양합니다. 그 다양함 속에서 일치를 추구하는 정신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체 내에 여러 모임들이 있습니다. 동아리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청소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그 청소년들의 다양한 동아리들이 활동하는 내용은 다르나 YMCA에 가입하는 순간 추구하는 목적은 같아집니다. 따라서 춤을 추거나 노래를 하거나 또는 봉사활동을 하더라도 우리의 목적문이 맞닿아 있게 되는 거랍니다. 그 안에서 다양한 소통이 일어납니다.

물론 친구들과 다투기도 하고 언쟁도 높아집니다. 하지만 사회에서 추구하듯이 어떠한 경제적인 목적이나 사리사욕을 위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 안에서의 평화로운 인간관계가 맺어진답니다. 그래서인지 하령회나 동령회를 마치면 전국의 어느 지역에서나 활동을 하는 대다수의 회원들이 매우 친해집니다.

셋째로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주체성과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단체내의 조직(모임, 동아리 등 자치조직)이 만들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러 활동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회장, 부회장, 서기, 총무 등의 임원이 만들어지게 되지요. 혹 지기, 바라지, 살림이라는 우리 고유의 이름으로 명칭을 정하기도 합니다. 어떤 모임에 가보니 최고머슴, 상머슴 하며 자신들을 낮추는 의미의 이름으로 명명하기도 하더군요. 이렇듯 자신들의 수평적 관계 안에서 여러 일들을 나누어 맡아 진행하게 됩니다. 중요한건 회장이라서 가장 높은 위치에서 지시하고 하는 등의 권위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모든 임원과 회원들이 수평적인 관계 안에서 자신의 각자 역할마다의 특성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랍니다.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주체성과 창의성은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가 추구하는 나라는 하나님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이지요.

넷째로 삶의 목적을 설정해 꿈을 그리며 실현할 수 있습니다.

생명평화운동의 리더! |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는 수년간 많은 청소년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회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행하며 자신의 꿈을 설정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봉사동아리에서 나름 데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서 사회복지학과를 진학하였고, 사진촬영을 열심히 하다가 사진학과에 들어가는 등의 실제적인 활동을 만들어 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춤을 추거나 노래를 하면서 음반을 만들어 데뷔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들 모두가 단체 내에서 자신이 행하는 활동에 따라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경영학을 전공한다며 춤을 추는 친구들도 있었고 자원봉사를 하면서 선교를 위해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안에서 소중한 자신의 꿈을 그리며 실제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직체(모임)에서 자연스레 민주적 의사수렴이 일어나며 수평적 리더십과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를 많이 보곤 합니다. 다양한 문화와 여러 활동을 통해 자연스레 지도력이 성장하게 됩니다.

다섯째로 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다양한 활동 중에 청소년들의 권익을 위해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또한 선거철이 되면 청소년들이 실제 원하는 내용을 수집하고 실태 조사하여 제안하기도 합니다. 토론 동아리 등은 토론을 통하여 제안하기도 하고 춤 동아리나 락 동아리 등의 문화 동아리는 음악과 몸짓을 통하여 제안합니다. 18세 선거권 운동부터 두발자유화 운동까지 다양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유해환경을 조사한 내용을 발표하는 등의 여러 활동들이 첨가되어 있지요. 이렇듯 지역의 개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이로운 여러 책임 있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됩니다.

2-2. YMCA가 지향하는 청소년상

청소년세대는 한국YMCA의 꿈이자 희망입니다.

생명과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소중한 지도력입니다. 먼 미래도 아니고 과거도 아닌 지금 이 순간의 희망입니다. 그 희망을 꿈꾸며 실현시키고자 우리 청소년들이 존재합니다. 그 희망은 타의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허락하며 목적하신 그 생명 그대로를 인정하며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YMCA가 꿈꾸는 청소년은 바로 이런 청소년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타인의 가치를 존중하며 나와 타인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청소년들입니다. 자신이 속한 지역에서 최선을 다해 활동하나 마음속은 세계를 넘어서

있는 청소년입니다. 이 나라를 넘어 지구촌의 넓은 세상을 바라보며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며 평화를 이루고자 움직이는 청소년입니다.



우리의 목적문(Mission Statement)은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고”로 시작됩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사명자 이상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사랑 하셨습니다. 그 사랑 그대로 12명의 제자를 훈련

하시고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원한이나 분노가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민중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연유한 일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12명의 제자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그 12명중 한명을 제외한 남은 제자들이 이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그 소명을 우리 청소년들이 가져야 합니다. 노래를 하거나 회사원이 되거나 공무원이 될지라도 지금 이 순간 목적문의 내용을 가슴 안에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자신 안의 물음을 끊임없이 행하며 살아가는 청소년이기를 바랍니다. 그 삶 자체로서 희망일 것입니다. 그 삶의 시간에 나만의 욕심과 자만과 명예가 아닌 근본 목적인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중한 지도력이 되기를 꿈꾸기를 바랍니다. 나중 자신의 직업이 운전을 하는 기사일지라도 환경미화인일지라도 그 안의 사명은 남다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 많습니다. 생명에 따른 자유의지, 다양성 등 참으로 귀한 것들을 많이도 허락하셨습니다. 세계의 60억 인구 중 한명이라도 똑같이 일치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실로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그리는 이상에 맞추어 타인들을 변화시키고자 최선을 다합니다. YMCA의 이상적인 지도력을 꿈꾸며 훌륭한 선배지도력을 내 안에 갖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선배 지도력을 앞에 세우고 똑같이 맞추려 하는 것 또한 잘 못된 일입니다. 다양성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그 생명 그대로의 본질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행하며 지금 이순간의 우리 청소년들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의 중심에는 “생명과 평화”가 존재합니다.

“그 생명 그대로를 존중하며 평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삶”

바로 YMCA가 그리는 청소년상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다.” [마: 5장9절]

3. 청소년YMCA 회원되기

3-1. 청소년YMCA 회원은...

청소년YMCA 회원이 되신 여러분, 지금까지 청소년YMCA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읽으셨는데요. 여러분은 YMCA 회원으로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YMCA 청소년 회원이라면.. 이런 청소년이 아닐까?’ 먼저 YMCA 회원활동을 시작한 선배들이 의견을 모아 작성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년YMCA 회원은...

- ① 젊은 예수의 뒤를 따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한국YMCA 목적문 중)
- ② 자신과 세상에 사랑과 정의가 넘치는 꿈을 꾸입니다.
- ③ 전 지구적 공존의 비전을 갖고 모든 생명을 존중합니다.
- ④ 우리 지역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시민입니다.
- ⑤ 새로운 도전을 통해 서로 협력하며,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만듭니다.
- ⑥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어떤 일에서든 평화로운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 ⑦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고 어려움을 같이 나눕니다.
- ⑧ 물질적 가치보다는 지속가능한 삶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 ⑨ YMCA 활동을 널리 알리고 동참하도록 노력합니다.
- ⑩ 이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깨닫고 실천합니다.

이 YMCA 청소년 회원으로서의 실천방식은 어느 것이 제일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고 이야기 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가장 인상적인 내용이 무엇이나에 따라 그 것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목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YMCA 청소년 회원의 상’은 오늘날 이 시대에 ‘청년예수’가 살아서 활동한다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본 것입니다. 여러분도 상상해 보시길 기대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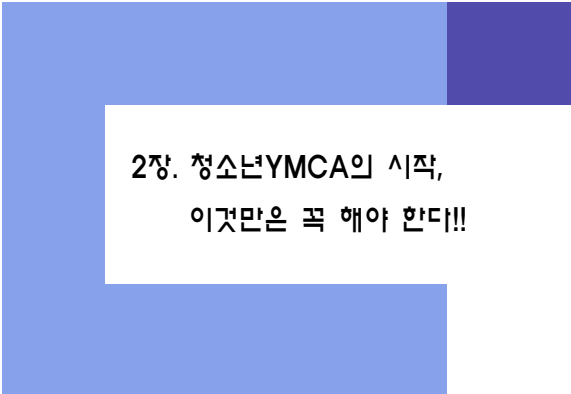
3-2. 청소년YMCA 동아리 회원은...

청소년YMCA 활동을 시작하려고 하는 여러분, 혹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여러분.. 우리가 즐겁게 열심히 하는 청소년YMCA 동아리의 회원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 우리 동아리에 현재 어떤 자랑하고 싶은 점이나 어려운 점을 갖고 있지는 않나요?

YMCA 청소년 회원으로서 우리 동아리활동을 살펴봅시다~

<00 지역 청소년YMCA 동아리활동 살펴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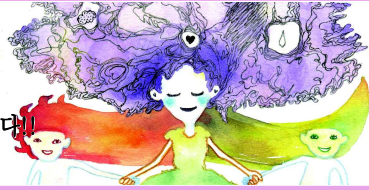
번호	문항	절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정말 그렇다
1	우리 동아리에는 「따」가 없다.					
2	우리 동아리는 개인의 능력과 개성을 존중하므로 동아리 일을 맡길 때 개인의 의사를 존중한다.					
3	우리 동아리는 회칙을 가지고 있다.					
4	우리 동아리는 정해진 시간에 정기집회를 꼭 연다.					
5	우리 동아리는 전 회원이 참여하는 투표로 대표를 선출한다.					
6	우리 동아리는 대표의 책임과 권한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편이다.					
7	우리 동아리는 일년 간의 활동 계획을 세운다.					
8	우리 동아리는 일년 간의 재정계획을 세운다.					
9	우리 동아리는 동아리 회원의 회비를 잘 관리하는 편이다.					
10	우리 동아리는 계획대로 회비를 지출하는 편이다.					
11	우리 동아리는 동아리가 속한 단체나 기관 혹은 연합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12	우리 동아리는 지역사회에 기여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2장. 청소년YMCA의 시작,
이것만은 꼭 해야 한다!!**

2장. 청소년YMCA의 시작

청소년YMCA의 시작, 이것만은 꼭 해야 한다!



내 학창 시절 가장 가까이 있는 일반에 가장 큰 전환점을 얘기하려면 청소년활동을 빼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푼 기대를 가지고 사귄 고교 시절 뭔가 튀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산만한 경험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들 다 안하는 활동들 많이 가입했습니다. 달에 있는 채워달라에 올릴 공연을 위한 혹한한 훈련에 들어갔고 무척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혹한도 잠시.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땀을 흘리는 것은 물론. 동지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알았고 회원들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나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다니던 학교라는 곳은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지 않는 청소년들의 열정과 역량을 모두 담아내지 못하는 공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을 만고 동지 활동의 또 다른 재미를 느끼며 이제 한번 제대로 활동하려고 하는데 날벼락이 떨어 진건죠. “잠깐만요 차차간 외에는 약이 차차라 그리고 운동장에서도 약이 차지 말고 동아리에서만 연습해야요. 그럼 동아리에서 연습하면 되지 않나요?” 그와 같은 동아리장은 정말 만다며 바야고 고실 자하 광으로 쫓겨 나고 그것도 학부 고실 연습한 할 처럼 몽둥이 들고 내쳐서 별 잔고를 다하고 올라가는 선생님 더 이상 학교에서 우리가 설 자리를 찾지 못했어요. 탈출구가 필요했어요. 뛰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찾던 곳이 YMCA였습니다. 함께 활동하던 친구들이어서 들었는지 YMCA야를 하려고 일단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저희 동아리 활동 하고 싶은데 여기서 활동해도 되요?”,

그때 우리를 맞아주시신 M간사님...“그래 그럼 일단 함께 할 친구들이랑 같이 와”.

그래서 함께할 친구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있는 패스트푸드점에 들어가 팔거나 감자나 주먹밥 10개가 있어서 동태를 만들기 위해서 서서 시간씩 시간가는 줄 모르고 화하던 생각이 나네요. 이때가 평생 눈치 보면서 말이죠.

YMCA는 정말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마음껏 약물을 칠 수 있었고,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은 모두 현실로 가능했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학에서 활할 때는 약나옷 등 필요한 것들은 모두 학에서 지원했지만, YMCA에 오니까 이제 모든 걸 우리끼리 알아서 해야 했어요.

금전적인 문제 회원 간의 갈등 후회를 배움하고 교육하는 것 등 모든 것을 동리 내서 논하고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런 갈등이 있을 때 다 향가 가는 패스트푸드점에 들어가 팔거나 감자나 주먹밥 서서 시간씩 회의하면서 스스로 개척해 나갔어요.

몇 번 가까이 이제 눈치도 안 보더라고요. 제 자랑하는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생각해도 그때 저희 열정은 정말 대단 했었던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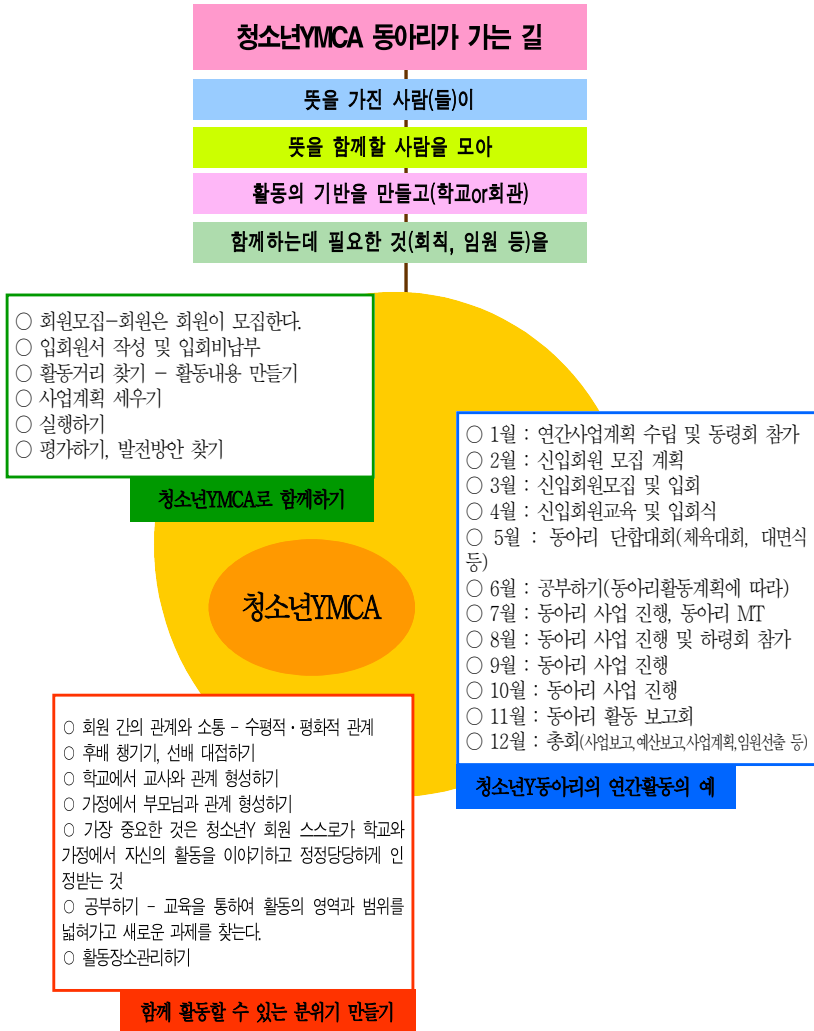
그 열정으로 졸업 무렵 17부터 37가 함께 그렇게 꿈에 고된 단독 공연을 올렸을 때 그 동영의 어려움과 갈등들을 해쳐온 사람들이 주먹처럼 스쳐 가던 그 설렘과 기쁨이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여러분도 이런 기분 느껴보신 적 있나요?

지금 청소년YMCA와 함께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제가 느낀 것보다 훨씬 더 큰 설렘과 기쁨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함께 시작해 볼까요. ^^

청소년YMCA! 이것만은 꼭 해야 한다.



1. 청소년YMCA 만들기

어떤 모임을 만들거나 조직을 구성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맘이 통하는 친구 한명만 함께 한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둘이 함께 서로 함께 생각하는 모임의 대략의 틀을 그리는 것으로 시작하여 함께할 친구들을 모으기 시작하면 훨씬 쉬워지니까요.

청소년YMCA활동에 꼭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떤 활동이든 다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터넷 동호회나 취미모임과 같은 모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앞서 이야기 한 것 같이 청소년YMCA는 다른 모임과 그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청소년YMCA를 만들려고 마음을 모은 친구들이 있다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과 YMCA의 목적과 방향이 얼마나 일치되어 있는지 서로 너무 다르지는 않은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신들의 활동이 YMCA의 목적과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게 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죠.

또한 활동할 지역YMCA가 가지고 있는 상황도 고려 해봐야겠죠? 뭐 이런 부분은 지역에서 청소년Y를 담당하는 선생님과 이야기하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안 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어떤 활동 내용이던지 함께 할 친구들이 있다는 것과 우리가 만들어 간다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여러분은 지금부터 YMCA라는 자동차에 올라타는 겁니다. 청소년YMCA라는 엔진을 달고 여러분의 활동은 네 바퀴가 되어 힘차게 돌아갑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열정이라는 기름만 넣어주면 됩니다.

마음을 모은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럼 이제 자동차에 기름을 넣어 볼까요?

1-1. 어디서 활동할까? 학교동아리? 회관동아리?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모임들은 어디서 활동하건 자신들의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청소년Y는 어디서 활동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청소년Y는 활동장소가 어디냐에 따라 크게 **학교동아리**와 **연합(회관)동아리**로 나뉘집니다. 단지 활동장소의 차이뿐만 아니라 또 다른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학교동아리는 소속되어 있는 특정 학교를 중심으로 회원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정식 CA동아리로 등록하고 담당선생님도 계십니다. CA활동시간에는 YMCA의 지도자선생님이 직접 학교로 방문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학교담당선생님과 함께 YMCA회관이나 기타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활동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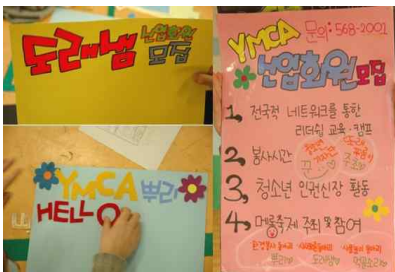
이와는 좀 다르게 연합동아리(또는 회관동아리)는 대개 여러 학교의 친구들이 함께 모여 만들어집니다. 특정학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의 CA시간과는 관계가 없으며 학교의 지도를 받지도 않습니다. 대신 YMCA회관에서 집회를 갖고 이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집회신고, 청소, 정리 등등...)

물론 학교동아리가 회관에서 활동하는 것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합동아리와 똑같이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점은 학교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뿐입니다.

학교동아리와 연합동아리는 어느 형태가 더 바람직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형태의 차이일 뿐 활동과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청소년Y의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이후에 연합회의 가입과 활동참여에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형태의 차이보다는 여러분이 왜 이 활동을 하려고 하는지, 왜 YMCA에서 활동하는지, YMCA의 회원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신나고 재미있게 활동하는 것, 자신의 활동에 신념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1-2. 신입회원모집하기 : 회원은 회원이 모집한다!!



함께 활동할 친구를 모아 선생님을 섭외하고 동아리의 활동 계획을 세워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활동해서 동아리의 기반을 만들고 멋진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하지만 고교생이라는 특성상 한 기수가 이삼년씩 활동하며 계속 동아리를 이끌어 갈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럼 뭘 해야 할까요?

생명평화운동의 리더! |

후배를 뽑아야겠죠? 처음에는 마음에 맞는 몇몇 친구들끼리 모여 시작할 수도 있겠으나 회원을 더 늘리고 싶거나 후배들을 뽑고 싶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활동을 어떻게 알리느냐입니다.

가장 좋은 홍보방법은 여러분이 직접 가서 가입을 권유하는 것이 되겠지요.

또 되도록 많은 친구들에게 소문을 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홍보 포스터나 안내문을 각 학교, 친구들이 잘 다니는 길목에 붙여 놓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포스터나 안내문은 동아리 회원들이 직접 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들의 활동에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서 볼 수 있거든요.

포스터나 안내문을 제작했다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붙여야겠죠. 가장 홍보효과가 좋은 곳은 학교일 것입니다. 학교에 붙일 때는 교무주임선생님이나 학생주임선생님에게 미리 허락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신문, 지역신문도 좋은 홍보처입니다. 어떤 동아리는 안내전단을 직접 배포하기도 하고 학교동아리의 경우에는 쉬는 시간이나 점심·저녁시간에 반마다 돌아다니면서 직접 설명하고, 홍보하기도 합니다.

홍보하기 전에 미리 생각해야 할 중요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몇 학년에 몇 명이나 신입회원을 받을 것인지, 신입회원을 받았을 때 우리 동아리의 운영에 지장이 되는 점은 없는지(예를 들어 악기를 배우는 동아리라면 악기의 숫자와 모일 장소 등을 고려해야 하고, 봉사 동아리라면 앞으로 봉사활동에 얼마나 많은 인원이 배치되어야 하는지 등), 이후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우리 동아리의 분위기를 익히게 할 것인지 등입니다.

포스터나 안내문에 들어갈 기본적인 내용은

- ① 동아리의 이름, 소속, 목적, 활동내용
- ② 참여자격, 인터뷰 날짜, 인터뷰 장소
- ③ 문의할 전화번호(연합동아리의 경우, 마땅한 번호가 없을 때는 언제나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지역 청소년Y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세요) 등이 있습니다.

새로운 회원을 뽑을 때 그냥 오는 대로 다 회원으로 받을 수는 없겠죠?

일단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고 우리 동아리에 필요한 사람인가? 우리 동아리의 활동에 대한 관심 정도 등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신입회원을 뽑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만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럼 인터뷰를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을 생각해 봅시다.

- 누가 인터뷰를 할 것인가
- 인터뷰 장소에 책상이나 의자 등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 인터뷰 장소로 어떻게 안내할 것인가?
- 인터뷰에 참가한 친구들의 이름이나 학교 등을 이름표로 붙이게 할 것인가 아니면 들어오는 대로 번호를 정하여 인터뷰 위원들이 물어보고 각자 적을 것인가.
- 인터뷰에서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
- 인터뷰기준은 어떻게 정할 것인가? (예를 들어 태도, 지식 등 몇 가지 항목에 10점 만점 점수를 줄 것인지 아니면 그냥 종합점수를 줄 것인지)
- 합격자는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인터뷰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 합격자 발표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문자, 이메일, 전화, 공고문, 인터넷홈페이지 공지 등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 만약 응시한 친구들이 너무 적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 홍보를 좀 더 해야 할 것 같네요. 아니면 추천을 받거나 신입회원들이 친구들을 데려오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위의 내용들은 가장 일반적인 사항으로써 동아리의 특성, 목적 등에 따라 조정되고 변경되거나 첨가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정말 할 일이 많지요? 신입회원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YMCA는 회원조직입니다.

회원 한명 한명이 주인이 되고 활동의 주체가 되어 YMCA를 이루어 나갑니다. 앞서 언급했던 YMCA의 목적과 활동방향이 어떻게 나아가느냐는 회원 한명 한명에게 달려 있습니다. 청소년Y에서 회원모집과 후배 양성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회원은 여러분이 YMCA활동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그 기반이 됩니다. 회원조직이 얼마나 탄탄한가에 따라 청소년Y의 활동의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1-3. 청소년YMCA로 첫 발 딛기 & 발판 마련해 주기

1) 정식으로 YMCA회원 가입하기(입회원서 작성, 입회비 내기)

청소년Y 동아리에 정식으로 가입하는 입회원서를 작성하는 것은 그저 이름, 전화번호 적은 일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일이며 일종의 의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150여 년의 역사를 가진 YMCA의 회원으로서 그 목적에 맞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청소년Y의 회원답게 행동하겠다는 약속인 것이죠.

그리고 청소년Y 회원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YMCA가 회원들의 모임인 만큼 청소년Y의 회원도 각 지역YMCA에 소속된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지역YMCA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하는 것도 회원의 의무입니다.

2) 신입회원들과 소통하기

처음 동아리에 가입을 하면 성격이 매우 활발한 사람이 아니고서 다른 회원들과 금방 친해지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후배의 입장에서 선배를 대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여기서 선배회원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동아리활동 초기에 회원 간의 원활한 소통관계를 형성해야 향후 동아리활동이 원만해 집니다. 선배들이 먼저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해주거나 이메일을 보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면 후배회원들이 동아리활동을 시작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자주 만나는 것이 아닐까요? 온라인이 아무리 발달하고 편하다고 하지만 오프라인에서 함께하는 활동들을 통해 생기는 끈끈한 그 무언가가 회원들의 활동에 유효한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활동한지 한참이 지나도록 함께 활동하는 친구들의 이름도 모르는 동아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봉사활동 동아리였는데 서로 다른 장소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 한 학기가 다 가도록 서로 이름도 모르고 지내고 있더라구요. 서로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인간관계의 시작이며 사랑의 기초입니다.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내 이름을 안 불러 주고 “야”라든가 “어이”라고 부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끔찍하지요? 게다가 이름을 잘 모르면 그 사람에게는 한 마디라도 덜 부치게 됩니다. 활동초기 집회에서 간단한 인간관계훈련이나 공동체 놀이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3) 신입회원 교육 및 환영식



신입회원 환영식은 말 그대로 신입회원을 환영하는 의식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 신입회원들에게 회원으로서의 책임과 권리를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재미있게 노는 것도 좋지만 조금은 경건하고 신성한 분위기를 만들어 보는 것이 앞으로의 활동을 좀 더 진지하게 만드는데 좋을 것입니다.

신입회원 환영식에서는 우리 동아리의 역사, 활동목적, 연간 계획, 각자가 맡은 역할 등을 신입회원들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동아리 내에 부서가 있다면 부서활동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회칙을 함께 읽고 함께 지켜야 하는 회칙이 있다는 것과 동아리의 모든 활동이 회칙 및 회의에 의해 결정됨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또 새로 가입한 동아리 회원들끼리, 또 선후배가 자연스럽게 친해 질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 시간과 같은 친교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습니다. 또 신입회원들의 대표를 선출토록 하는 것도 동아리에 따라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언급하는데 신입회원 환영식은 그냥 노는 자리가 아닙니다. 청소년Y의 회원으로서 가져야할 기본적인 소양과 자질을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전수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노파심에서 이야기 하지만 간혹 후배들 길들인다고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생명평화의 리더로서 청소년Y 회원들은 절대 그런 바람직한 일을 하지 않겠지요?

4) 신입회원 관리하기

신입회원을 뽑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뽑은 회원을 관리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신입회원들은 아직 동아리활동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소통하지 않으면 한명 두명 빠져나가기 마련입니다.

기존의 회원들에게 정기집회는 일상적인 활동이지만 신입회원들은 모든 것이 새롭고 관심과 기대를 갖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기집회가 이런 저런 이유로 연기되고 취소된다면 신입회원들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아마 무지 맥 빠지겠지요? 실망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런 일이 반복된다면 당연이 신입회원들의 출석을 또한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정된 집회는 반드시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선배들은 몇 분 정도 미리 모여 후배들을 맞이하는 것도 좋습니다. 모든 것이 낯선 후배들로서는 자기 동아리의 선배들이 없으면 많이 어색하겠지요?

그리고 선배들은 미리 정기집회의 내용을 한번쯤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은 어떤

생명평화운동의 리더! |

내용으로 얼마나 이야기를 할 것인지 대체적인 계획을 잡아 놓아야 정기집회가 예정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입회원들이 많은 면에서 미숙해 보일 지라도 한두가지 간단한 일은 스스로 처리하도록 자꾸 임무를 맡겨보세요. 작은일 부터 하나씩 처리해나가면서 책임감도 생기고 동아리에 대한 소속감도 생길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1-4. 활동거리 찾기 - 우리 동아리 활동내용 만들기

1) 동아리를 처음 만들었어요.

처음 만든 동아리가 활동 내용을 만드는데 있어서는 먼저 모인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면 활동내용은 쉽게 만들어질 것 입니다. 처음 모였을 때는 어려운 점이나 곤란한 점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여러가지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봉사동아리라면 어떤 봉사 활동을 할지 결정한 다음(봉사활동에도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봉사할 수 있는 장소를 몇 군데 정하고 돌아가면서 혹은 조를 나누어 방문하고 봉사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 서너 달 동안 다양한 시도를 해본 후에 동아리의 색깔을 찾고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활동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오랫동안 시도만 해서도 안되겠죠?

2) 몇 년간의 활동으로 노하우가 조금 생겼어요.

동아리의 활동 내용이 한두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거나 작년에 했던 것을 똑같이 답습하는 것에 그치면 동아리의 발전을 이루어내기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활동 내용을 만들어 내야겠지요. 새로 가입한 신입생들에게 자신들이 했던 활동과 앞으로 할 활동을 잘 정리해서 나누어주고 각자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향후 활동내용에 대해서 함께 토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활동내용을 만들어 보자고 하면 대부분 처음부터 1월에는 뭐하고 2월에는 뭐하고 이런 식으로 월별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이렇게 계획을 세우기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해의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물론 작년 활동결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다음에 진행해야겠지요? 작년 활동 결과를 평가해 보니 이리이러한 점이 부족했던 것 같다면 그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한 동아리의 수정된 목표가 설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동아리가 발전하겠지요. 그리고 매년 같은 활동을 반복하다 보면 재미도 없어지거든요. 그 목표에 따라 활동내용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우리 선배들은 봉사활동을 14주만 했으니까 우리는 20주정도 해 보자던가 작년에는 이리이러한 기관에 갔었는데 이번에는 이런 기관에도 가 보자던가, 작년에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런 결과가 있었으니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이런 활동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동아리의 활동 계획을 세우면서 동아리 활동의 영역을 발전시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재정계획을 함께 세우는 것입니다.

이 활동에는 비용이 얼마정도 들 것 같으니 이를 마련하기 위하여 회비를 걷거나 후원을 얻는 등의 활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재정계획을 미리 세우고 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비용마련을 위한 계획을 함께 세워야 계획의 실행이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동아리의 존재와 활동을 만천하에 알릴 수 있는 무엇인가를 계획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형식이 되었건. 이런 특색 있는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어느새 그 동아리가 두배 세배 성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혹 봉사동아리나 종교동아리 회원들은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보여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동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만들든지, 불우 이웃 돕기나 결식아동 돕기 등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열거나 문화공연을 기획하는 방법, 연간 활동한 내용을 역은 회지를 제작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흔히 많은 동아리의 회원들은 자기들끼리의 활동과 단합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아리 회원들의 힘을 지역사회와 나누어 가지지 않으면 회원들은 활동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거나 동아리의 활동 폭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기 동아리만의 특색 있는 활동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학교 안 동아리들 중에는 이름만 유명한 동아리들도 있습니다만 각 동아리만의 특색 있는 활동은 없더군요. 예를 들어 동아리가 가진 기능을 동네 청소년에게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모금행사를 벌이고, 정기공연을 하거나 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자기 클럽만의 독특한 활동을 창출해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명평화운동의 리더! |

이와 함께 동아리의 활동을 널리 알리는 홍보활동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지역 청소년YMCA의 한 클럽은 교복 물려주기 행사를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렇게 교복 물려주기 행사를 하는 학교가 생겨나고 덩달아 교복 업체에서도 비슷한 일을 하다 보니 이제 이 동아리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동아리는 친구들에게 재미와 의미를 갖게 하는 다양한 기획행사를 더하고 홍보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그만큼 활동목적에 맞는 활발한 활동을 해서 그런지 때가 되면 여전히 많은 친구들이 이 동아리를 찾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이것은 우리 동아리만의 고유한 활동이며 이 활동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음을 지역사회 어른 및 청소년에게 인식시켜야 합니다.

자, 이 정도만 해도 일단 동아리는 만들어 졌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아직 부족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동아리 내의 모임의 형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조직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회의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필요한 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등등... 또 차근차근 함께 고민해 볼까요?

✓잠깐! 쉬어가는 코너~

청소년YMCA회원으로서 책임과 권리가 있다고 했죠? 어떤 책임과 권리가 있을까요? 집회에 빠지지 않는것? 회비를 잘 납부하는 것? YMCA의 목적과 활동내용을 잘 홍보하는 것?... 함께 생각해 봅시다~

☞YMCA 회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서는 <5장, 내가 선택한YMCA>를 참고해주세요~

2. 청소년Y로서 함께 모여 이야기하는데 필요한 것들

지금까지는 청소년Y 동아리가 만들어지기까지와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단계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 부터는 좀 더 원활한 동아리 운영을 위한 몇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청소년Y로서 함께 모여 이야기 하는데 필요한 것들은 어떤 것 들이 있을까요?

2-1. 회칙만들기

1) 회칙정하기

처음 마음 맞는 친구들 몇 명이 모여 이야기하며 동아리를 꾸려 나갈 때는 어떤 사안에 대해 그때그때 회의를 통해 결정해 나가는데 별 무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아리 회원들이 점점 늘어나고 후배들이 들어오면서 할 일도 많아지다 보면 몇몇의 판단 만으로 결정하기 힘든 일이 분명히 생깁니다. 이러한 것을 대비하여 회원들은 「회칙」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지요.

또한 「회칙」은 단순히 어떤 결정을 쉽게 내리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칙을 구성하는 내용 중 제일 처음 들어가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동아리의 설립과 활동의 목적입니다. 이렇듯 회칙은 한 동아리회원들 간의 약속이며 비전입니다.

어떤 동아리에게 「회칙」을 적어 내라고 했더니 「정기집회에 3번 이상 빠지면 동아리에서 탈락시킴, 청소 안하고 가면 2주 동안 집회실 사용 금지」 등 잔뜩 처벌에 관한 규정만 적어 냈더라구요. 이걸 회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회칙을 만드는 목적은 누구를 혼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회칙」은 누구든 우리 동아리의 모습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돕고 향후 우리 활동의 나침반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2) 회칙의 주요내용

「회칙」이란 동아리활동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칙」에는 동아리의 활동내용, 목적, 회원의 의무와 권리, 회원의 자격, 회장의 자격과 의무 및 권한과 임기, 선출방법, 회의, 총회, 상벌, 회원 자격 제한 및 제명 규정 등 동아리 활동 전반에 관한 모든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칙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에 있는 「청소년YMCA 동아리 기준회칙」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2-2. 회원대표 선출하기

1) 민주적 방식을 통한 선출하기



회원숫자가 적은 동아리는 회의에서 선배가 마음에 드는 후배를 찍어서 시키거나 동기들끼리 모여서 서로 미루다가 하는 수 없이 한 사람에게 떠맡기는 식으로 회장을 선출하기도 하더군요. 그런데 이렇게 회장을 선출하면 회장의 권위도 마구 떨어지고 선출된 회장도 별로 책임의식을 느끼지 못하거나 도와주지 않는 동기들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원의 선출은 회칙에 그 방법을 명시하고 아무리 적은 숫자라도 함께 모여 투표와 같은 방식의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선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수결이 민주적 의사결정방식에 있어서 최선의 선택은 아닙니다만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억지로 한 사람에게 짐을 지우는 형태의 ‘합의’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표에 있어서는 다수결의 원칙이 지켜지고 소수의 의견도 존중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들 학교에서 반장 선거 해본 경험들은 있죠!? 종이를 한 장씩 나누어 가지고 회장에 적당한 회원의 이름을 써넣는 방식으로 비밀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2) 회장의 책임과 권한

회장은 동아리회원들이 뽑아준 대표입니다.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어떤 청소년Y 동아리들은 회장보다 선배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게 다루기도 하더군요. 예를 들어 회의 시간에 어떤 선배가 이렇게 말했으니 이렇게 하자는 식으로 발언하는 회원들도 있습니다. 또 그대로 결정되기도 하구요. 이런 동아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역사가 오래된 청소년Y 동아리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선배는 그야말로 선배입니다. 선배는 회장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관계에서야 회장도 선배의 후배이지만 공식적으로 동아리의 일을 결정해야 할 경우에는 회장의 진행과 회원의 의사에 적극적으로 따라주어야 합니다. 선배는 후배들의 활동에 도움을 주는 것이지 활동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회장은 그만큼 그에 따르는 막중한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생명평화운동의 리더! |

회장은 회의에서 일일이 결정하기 어려운 많은 일들을 결정하고 처리해야 하며 담당 간사나 타 동아리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기 때 문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차적으로 해결의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도 바로 회장 입니다. 또한 연합회나 대표자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동아리회원들에게 전달해야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으로 인해 그만큼의 권한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3) 회장과 함께 하는 사람들

규모가 작은 동아리라면 여러 사람의 임원을 둘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한 학년에 대략 15명 이상이 된다면 부회장이나 총무를 회장과 같은 방식으로 선출하는 것도 좋습니다. 회장과 부회장은 동아리를 위해 헌신과 봉사로서 회원들을 이끌고 동아리를 운영해 나가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회장과 부회장만 할까요?? 총무와 서기도 있으면 좋습니다. 총무는 연락부터 재정까지 자질구레한 일들을 도맡아 하는 살림꾼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서기는 동아리의 모든 기록을 남기는 역사가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모두 동아리를 위해 중요한 임원들입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청소년YMCA의 모든 활동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이루어짐을 잊지 마세요!

2-3. 집회

동아리가 만들어지고 임원들이 선출되면 회의를 할 일이 많아집니다. 함께 의견을 모으고 생각을 나누기 위해서는 모여서 이야기하는 회의가 빈번해 질 수밖에 없지요. 청소년YMCA에서의 회의는 「집회」라고 하는데요. 회칙에 명시되어있는 정기집회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회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정기집회

정기집회는 청소년Y 동아리가 자기 활동을 정하고 계획을 세우기 위한 회의, 각 동아리의 고유활동(예를 들어 자원봉사활동 동아리는 자원봉사활동, 토론동아리는 토론, 댄스 동아리는 댄스 연습 등)을 하기 위한 일상적이고 정기적인 모임을 말합니다. 또한 정기집회는 회칙에 명시합니다(예, 매월 2째 4째주 토요일 오후 2시). 그리고 정해진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일반 회의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기집회의 순서는 동아리의 활동목적이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동아리의 주요활동을 진행하기 전에 YMCA에 소속된 회원 모임으로서 이야기 하는 일(기도, 목

적분 낭독 등)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는 우리가 청소년YMCA 회원 모임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로서 제시하는 정기집회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만나면 회원들끼리 인사하고 그동안의 자신들의 얘기들을 나눕니다.
- 한자리에 앉아서 정기모임의 시작을 선언합니다.
- 동아리의 특성에 맞는 예배를 드립니다.(기도, 묵상, 5분메세지, 찬양하기 등)
- YMCA목적문(청소년Y)의 목적문을 낭독합니다.
- 오늘 정기집회의 주요내용을 진행합니다.
(결정을 위한 회의를 진행, 결정된 활동을 하기, 활동에 대한 평가하기 등)
- 주요내용을 마치면 오늘 진행한 내용에 대한 결론을 맺습니다.
(잘된 점, 부족한 점, 다음계획, 서로에 대한 칭찬 등)
- 회장이 정기집회가 끝났음을 선언합니다.

간단한가요? 실제로 정기집회를 진행하다보면 이런 형식을 다 가져가기란 어렵습니다. 힘들다면 꼭 이렇게 정기집회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아리마다의 특성에 맞게 진행하면 더 좋겠죠. 그리고 꼭 잊지 말고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은 모임의 형식보다는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 함께 모여 이야기하기- 집회(회의) 진행하기

보통 회의는 회장이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회의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리는 흔히 회의하면 학급회의를 떠올리게 됩니다. 담임선생님의 전달 사항을 듣거나 자습을 했던 H.R시간이 생각나는군요. 혹은 이렇게 하지 말자, 저렇게 하지 말자 등 불평에 가까운 비난이 오고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회의는 좀 달라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되었을 때는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그 일을 잘하자고 힘을 모으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집회(회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① 이야기 할 안전 정하기

먼저 동아리의 회장이나 부회장들은 미리 모여서 회의에서 함께 이야기해야 할 안전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회의를 시작해서야 이야기 할 안전을 정하다가는 회의시간이 다 지나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생명평화운동의 리더! |

다음으로 그 내용을 전체 회의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밖의 이야기 할 안전이 있는지 회원들의 의견을 묻고 다른 내용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토론 주제를 제안한 사람은 새로운 안전을 함께 이야기하기 전에 왜 이 안전을 함께 이야기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동아리와의 대면식에 관한 안전이라면 왜 그 동아리와 대면식을 하는지, 대면식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회원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함께 이야기하기

다음으로 이야기 할 안전 하나하나에 대해서 토의를 시작합니다.

회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후배들 의견도 잘 들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서로 의견이 대립하다보면 다수결로 결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다수결은 민주주의에서 가장 수준이 낮은 결정 방법입니다. 되도록이면 다수결보다는 토론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을 열고 대화하면 실제로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또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여 결정 내용 전체를 반대하지 않는 한, 소수의견에 포함된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등을 함께 생각하는 것도 잊지 마시다.

③ 결정하기

회장은 결정단계에 이르면 토론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결정 사항을 공식적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봉사활동은 장애인기관으로 5월 5일 오후 1시에 회관에 모여서 함께 가기로 결정되었으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가해 주십시오. 이미 지적되었듯이 장애인을 대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회원은 함께 알아야 할 내용을 사전에 정리하여 교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또한 세부적인 결정사항에 대해서도 정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를 위해 ○○○회원은 프로그램을 3일까지 준비해 주시고 ○○○회원은 4일까지 교통편을 사전에 알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와 같이 말이죠. 이때 서기는 기록하는 것 잊지 마세요.

④ 약속된 시간에 진행하기

집회는 정해진 날짜에, 계획한 내용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모임이던 일정한 날에 모이기로 했다가 한 두 사람들이 약속을 어기거나 모임을 이끄는 사람이 빠져나가면 그 모임이 흐지부지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동아리를 주도하는 사람은 정기집회에서 활동할 내용을 미리 준비하고 회원들에게 그 날에는 꼭 그 활동을 한다는 믿음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계획한 내용을 다 끝마치지 못하더라도 일단 시

작은 해야 합니다. 계획을 미루거나 정기집회 날짜를 바꾸게 되면 회원들의 믿음이 자꾸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나오라고 아무리 연락해도 그 말을 믿지 않거나 중요치 않게 여기게 됩니다. 양치기 소년 아시죠? 또한 공식적이고 약속된 시간에 다함께 모여 결정한 것은 훨씬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⑤ 활동의 흔적남기기(기록하기)

모든 집회의 내용과 결과는 꼭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집회의 활동 내용을 차곡차곡 정리해 놓으면 나중에 후배들에게 자신들을 소개하기도 좋을 뿐 아니라 동아리의 발전 모습을 실제로 확인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보람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판례라는 것은 전에 이루어진 재판 사례들을 모아놓은 것인데 많은 경우 재판관들은 판례에 따라 판결을 내리기도 하지요. 마찬가지로 동아리가 비슷한 문제를 처리해야 하거나 비슷한 어려움에 빠졌을 때 판례와 같은 구실을 하는 집회일지를 보면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동아리가 그렇듯이 서기를 정해서 기록하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⑥ 더 나은 회의 분위기 만들기(평가와 개선)

집회 시간에 정해진 활동 뿐 아니라 간단하게 활동내용을 평가하는 시간을 5분에서 10분 정도 가지고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다음 집회에서는 이렇게 해보자는 등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도 모두 기록해주세요~

3) 잊지 말아야 할 것들

첫째, 회의 시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한사람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회원들 모두가 자기 생각과 주장을 이야기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토론을 통해 조절해야 참여의식도 높아지고 보람도 느끼는 회의가 될 것입니다.

둘째, 공식적인 모임에서는 되도록 존댓말을 쓰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마음을 언어를 통해 표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것은 청소년YMCA 회원이 갖어야 할 중요한 자세입니다.

셋째, 반대를 할 경우 반대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가끔 몇몇 동아리가 회의하는 모습을 지켜볼 때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기공연에

생명평화운동의 리더! |

대해 토의를 시작하면 몇몇 사람들은 좋은 의견이니 이러저러하게 하자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떤 회원들은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 정기공연을 하지 말자던가 연기하자던가 하는 의견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은 문제점의 제기가 마치 정기공연 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보여 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쿵저러쿵 대립하다보면 처음에는 문제점을 지적했던 사람도 마치 정기공연 자체를 반대하는 모양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회원은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지, 정기공연을 아예 하지 말자고 한 것은 아닌데도 말입니다.

이때 회의진행자는 어떤 회원들이 정기공연 자체를 반대하는 것인지 정기공연을 함께 할 동아리를 반대하거나 날짜, 장소 등 세세한 것을 반대하는 것인지 알아차리고 이를 정리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없는 활동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협력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활동을 잘 진행하는 것입니다.

넷째, 집회에 관한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는 듯 하지만 회의의 의미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첨부해야 할 것 같습니다. 회의는 동아리의 전체 의견을 결정하여 대외적인 동아리의 입장을 만드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회의에서는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되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뒷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결정사항대로 추진하는 다른 회원들에게 돕지는 못할망정 괜한 핀잔을 주거나 질책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동아리가 사분오열, 혼돈의 시대로 접어들기 때문이죠...

2-4. 총회

1) 「총회」에 관하여

「총회」는 모든 회원들이 모여서 최고의 의사결정을 하는 공식적인 회의입니다.

보통 일년에 한번 내지 두 번 정도 총회를 열게 되는데 이때 우리는 그 동안의 동아리 활동을 평가하고 예산 집행 결과를 전 회원에게 공식적으로 보고하며, 새로운 회장과 부회장을 선출합니다. 「총회」에는 회칙에 명시된 회원자격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든 참가할 수 있으며 의안을 결정할 수 있는 한 표를 행사하게 됩니다.

「총회」는 동아리 활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혹 형식적이고 너무 지루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 동아리가 잘되고 있는지 아니면 쓰러져 가고 있는지는 「총회」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전 회원이 동아리 활동에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한 동아리의 총회에선 모든 회원들의 눈동자가 반짝거리기 마련입니다. 자신이 한 일들이니까요...

2) 총회의 내용

어떤 모임이든 그 순서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되겠죠? 총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략적인 총회의 순서를 보면...

- 회원이 얼마나 참여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동아리 회칙에서 정하는 회원의 수)
- 회원의 수가 되면 회장이 개회를 선언합니다.
(회칙에 정해놓은 총회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 총회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총회에서 결정해야 하는 안건을 설명합니다.
- 설명한 안건 이외의 결정해야 할 또 다른 안건이 있는지 회원들에게 물어봅니다.
- 결정할 내용과 순서를 정확히 정합니다.
- 하나하나 순서대로 토의하고 결정합니다.
- 결정사항을 회장이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 회장은 더 이상의 결정할 안건이 없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폐회를 선언합니다.

동아리의 총회는 대체로 모이는 회원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총회를 진행하면서 오랜만에 못 만났던 선후배들이 만나서 동아리의 전반적인 활동을 함께 이야기하는 장을 만드는 것도 좋겠죠?

3) 총회에서 결정하는 안건

총회에서 결정하는 안건은 그 동아리의 회칙에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동아리 회칙 중에서 바꿔야 할 것(회칙의 개정), 1년간의 사업계획이나 보고, 임원(회장 및 부회장등)들의 선출이나 해임, 1년간의 예산이나 결산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회원이 함께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안건이 있다면 그 의견을 총회의 안건으로 삼을 것인지 결정한 후 다시 그 안건에 대해 토의하고 결정하면 됩니다.

3. 함께 활동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것들

3-1. 사업계획 세우기

어떤 활동이든 실천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겠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계획을 꼼꼼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사업이라고 하면 너무 어렵게만 느낄 수 있는데 여러분이 진행하는 동아리 활동의 계획을 세운다고 생각하면 조금 쉬울 것입니다.

동아리 회의에서 어떤 활동을 하자고 서로 의견을 모으게 되면 임원회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여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를 논의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몇 가지 있습니다.

활동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왜(why) 우리 동아리가 이 활동을 하지? : 사업계획의 내용이 다 중요한 것들이지만 특히 왜?(Why?)라는 부분은 그 활동의 목적을 이야기하는 부분으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이 활동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회원들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참여하는 회원들도 그냥 따라만 가는 활동이 되고 그 활동을 보는 사람들도 “너희는 왜 그 활동을 하니?”라고 반문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많이 실망스럽겠죠?

활동을 잘 이해하고 참여하려면 ‘활동의 목적’을 회원들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토론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② 무엇(what)을 할까? : 일단 하기로 한 활동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세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원교육을 한다고 하면 첫 시간에는 무엇을 하고 둘째 시간에는 무엇을 할 것인지를 교육단계에 따라 내용을 배치해야 할 것이며, 자원봉사활동을 한다고 하면 우선 모여서 나누어야 할 이야기는 무엇이고 봉사활동장소에서 우리가 할 활동내용이 각 시간별로 무엇인지 세밀하게 적어 놓고 임무분담을 해야 실제 활동에서도 노는 사람 없이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특별한 행사를 하는 경우(동아리 축제, 정기공연, 시화전, 사진전)에는 더욱 더 세밀하게 사업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③ 언제(when)쯤 하면 좋을까? : 날짜나 시기는 회원들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또 그 활동에 참가하는 다른 친구들의 사정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 시설에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동아리라면 방문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사정도 고려해야 하고, 행사라면 장소나 날씨 등을 면밀하게 고려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행사의 경우에는 다른 동아리에서 비슷한 시기에 행사가 있다면 서로 고려해서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테면 시험 때가 다 돼서 행사를 잡아 놓고서는 “애들이 왜 안오지?”하는 어이없는 청소년Y 동아리는 없겠죠?

④ 어디서(when) 하면 좋을까? : 장소는 우리가 하는 활동의 크기나 활동에 참여하는 회원의 수를 고려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회원은 몇 명밖에 없는데 무리하게 큰 장소를 선택 한다면 너무 작은 장소를 결정해서 어수선하던가 하면 활동을 진행하는데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날씨나 주변사정을 고려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물놀이 공연을 하는데 주변이 주택가가 많은 야외라면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⑤ 어떻게(how) 할까? : 활동을 진행하려면 회원들만으로는 되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장소를 선정하기 어려우면 누구에게나 부탁해야 하고 활동경비가 필요하면 서로 조금씩 회비를 내던가 아니면 활동의 목적을 설명하고 활동비용을 후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해결 할 것인지를 사업계획서에 적어 놓아야 합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혼자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다른 회원들이나 담당간사에게 이야기하고 함께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⑥ 누가(who) 할까? : 이제 활동에 필요한 것들이 대충 정해졌죠? 문제는 누가 할 것인가만 남았군요? 이것이 제일 문제죠? 서로 미루면 결국은 이제까지 세운 사업계획이 모두 날아가 버릴지도 모릅니다. 반면,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일을 맡게 되도 무리가 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현명하게 생각하고 적절하게 활동에 대한 책임을 분담해야 할 것입니다.

3-2. 활동에 필요한 비용 마련하기

특별히 이 내용을 따로 적는 이유는 중요하기도 하지만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동아리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회원의 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며칠

생명평화운동의 리더! |

전에 회비 낸다고 용돈 받아 갔는데 얼마 안 되어서 행사한다고 또 용돈을 받아 갔다는 겁니다. 회원활동 하는데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드냐는 부모님의 항의 아닌 항의를 받았습시다. 확인해 보니 그렇게 작은 돈도 아니었는데 여러 번을 걷었다더군요. 물론 쓸데없는 곳에 쓴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회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잘 쓰면 그 이상의 가치를 보이기도 하지만 잘못 쓰면 큰 낭패를 당하기도 합니다. 동아리에서 회원들에게 회비의 납부를 권한다던가 행사에 필요한 비용을 조금씩 부담하도록 하는데 있어서 모든 회원들의 동의 없이 강제로 일을 진행하면 반드시 동아리의 운영에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다른 회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운영하고 매 회의마다 보고해야 합니다.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는 방법이 꼭 회원들이 내는 비용으로만 마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테면 이웃돕기를 하려고 하면 필요한 비용을 바자회를 통해 마련할 수도 있고 공연 등의 행사에 필요한 비용은 입장권을 판매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후원자를 모집하여 작은 돈이라도 여러 후원자를 모아 필요한 비용을 만들 수도 있고 지역YMCA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비용을 도움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활동을 마친 후에는 비용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회원들이나 후원자에게 알려주는 것은 당연한 책임이 되겠지요?

규모 있는 동아리의 재정운영을 하려면 미리 재정운영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돈이 생겼다고 계획 없이 써 버리면 나중에 더 좋은 활동거리가 생겨도 활동비용이 없어 곤란을 겪게 됩니다. 돈이 생기면 꼭 필요한 곳에 쓰고 꼼꼼히 정리해 놓아야 동아리활동에 대한 주변의 신뢰도 높아지고 활동하기에도 편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하면 돈 때문에 서로를 믿지 못하거나 소외시키는 결과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우리가 왜 회비를 납부할까요? 소속감을 가지고 공동체를 더욱 단단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는 것 입니다. 그런데 그 회비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오히려 없는 편이 훨씬 더 낫을 수도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3-3. 실천하기

청소년Y 동아리 회원들이 열심히 세운 활동계획을 실천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이 터지기도 하고 회원 간에 뜻을 모으기가 어려운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획한 것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① 우선 함께 계획하고 논의한 활동에는 회원 모두가 성실하게 참여해야 합니다. 계획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청소년YMCA 활동을 한다는 의미가 없습니다. 간혹 ‘친교’나 ‘만남’만을 위해서 YMCA 활동을 하는 회원들도 있는데요... YMCA는 활동을 통해서, 활동을 위해서 ‘친교’와 ‘만남’을 갖는 곳을 꼭 기억해주세요~

② 활동을 진행함에 있어 계획했던 거보다 규모가 적거나 인원이 적더라도 크게 실망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고 참여하세요.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은 평가를 통해서 더 발전할 수 있고, 함께 참여했던 후배들이 내년에는, 또 그 후년에는 더욱 발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③ 실천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이 다르거나 돌발상황(?)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YMCA 활동뿐만 아니라 모든 활동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처음에 논의한 원칙이나 순서, 기준으로 활동하시면 됩니다.

3-4. 우리의 활동 다시 생각해보기(평가와 성장)

어떤 활동을 했던 반드시 한번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잘된 점은 무엇인지, 아쉬운 점은 무엇인지.. 등등 그래야 이번 활동을 경험 삼아서 다음번에 더 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돌아보아야 하는 내용들은 활동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기본적인 것 몇 가지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우선 활동을 계획할 때 처음에 염두에 두었던 목표나 목적이 잘 달성되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동아리에서 계획한 목적뿐만 아니라 회원들 개개인이 갖고 있던 목표가 있다면 잘 달성되었는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②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원들의 참여와 역할분담이 적절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활동은 혼자 하는 활동이 아닌 ‘함께’ 모여서 협력하는 활동입니다. 즉, 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이 적절했는지 평가해보는 것입니다.

③ 그 활동이 동아리 전체, 혹은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 평가해 보아야합니다. 앞에서 이야기 했지만 청소년YMCA는 단순히 ‘친교’와 ‘만남’을 위한 동아리가 아닌 YMCA 운동지향인 ‘생명과 평화’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임

입니다. 그러므로 지역사회 혹은 더 넓게 국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문제점과 평가에 대한 대안과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 이 활동을 할 때 활동이 훨씬 업그레이드되고 발전될 수 있습니다.

어떤 조직과 모임이든 그 활동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전문가도 아니고 시간도 없는 청소년동아리의 활동은 더욱 완벽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Y의 활동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평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동아리의 활동을 스스로 평가하고 더 낫은 활동, 좀 더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한 논의를 통해 동아리 활동을 업그레이드해 가는 시간을 가지면서 동아리의 활동뿐만 아니라 회원 하나하나가 성장해가는 모습을 여러분들 스스로 경험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4. 함께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기

활동내용이 매우 훌륭하고 멋진 동아리가 있습니다.

또, 동아리 활동을 하고 싶은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회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 않거나 주위의 환경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멋진 동아리, 훌륭한 회원이라도 활동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아리 회원 간의 원활한 소통의 관계, 가정과 학교 등 주변 환경과의 관계 맺기는 동아리활동을 유지해 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4-1. 회원 간의 관계와 소통

관계와 소통이라는 말이 어렵나요? 이 책을 쓰고 있는 저 또한 어려운 것 같아요.

관계는 회원들 간의 맺어져있는 것을 말하고, 소통이란 막힘없이 잘 통하는 것입니다. 즉,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는 것을 의미하죠. 소통이 되지 않으면 회원도 동아리도 결국은 모두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모두 진정한 관계와 소통을 위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할까요?

동아리는 회원들 간의 관계와 소통 속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만든 동아리는 원래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자신들이 원하는 것, 자신들이 꿈꾸는 것을 현실로 만들어 내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 만큼 회원들끼리 마음과 생각을 서로 통하게 하고 그 결과로 어떤 실적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려면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 편하게, 즐겁고 신나게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동아리 회원 모두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것을 위해서는 몇 가지 실제적이고도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첫 번째로 정기집회에서 회원들이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상황과 느낌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고 다른 회원들은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집회가 단지 형식뿐 아니라 회원들이 진정으로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회원들 간의 관계가 수평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배와 후배가 있고 동아리 임원과 회원이 있지만 그것은 서로 맡은 역할에 따라 차이를 두는 것이지 그 동아리 회원으로써 특권적 권리를 가진다거나 혹은 권리가 제한당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1학년이든 2학년이든 회장이든 회원이든 모두 동아리 회원으로써 동아리 문제를 결정하는데 똑같은 책임감과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수평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회원들이 서로 어렵고 무거운 짐을 나누어지고 협력하려는 자세가 매우 필요합니다. 회장이나 부회장을 뽑아놓았으니 그들이 다 알아서 하겠거니 하는 것은 협력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또는 동아리 안에서 어떤 갈등이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뒷담화를 일삼거나 혹은 방관하는 것도 협력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서로 서로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협력하는 사람들의 자세이고 청소년YMCA 활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어떤 결과가 아니라 회원들이 이러한 자세를 지켜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한 동아리 회원들끼리 무엇인가를 열심히 도모하다보면 가끔 다른 사람들이나 집단에 대해서 배타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역사적, 지리적 여건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관대하지 못하고 우리 공동체 안으로 그들을 흡수하려는 노력을 잘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아리 회원들끼리 서로 협력하고 헌신하는 태도는 동아리 안에서 뿐 아니라 청소년YMCA 안에서, 자기 지역 YMCA 안에서, 자기 지역사회나 학교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청소년YMCA에서 활동하는 것은 결국 서로 협력하고 화해하는 소통을 통해 “생명 평화”로 대표되는 선한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합시다.

YMCA가 모두에게 열려있듯이 여러분의 동아리도 모두에게 개방되어서 따뜻하고 안전한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4-2. 후배들 챙기기, 선배들 대접하기

보통 학교동아리는 연합동아리에 비해 선후배간의 규율이 엄한 편이더군요. 그래도 후배들에게 참 잘해 주는 선배들도 많고 선배들의 말을 존중하는 후배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후배들을 잘 챙기는 것은...

첫째로 선배들끼리 서로 다정하게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로 후배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는 몰라서 실수를 한 것인지 알고도 잘못된 것인지 잘 헤아려서 충고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후배들끼리 잘 해보도록 늘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거나 선배가 후배들보다는 잘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늘 선배가 도맡아 일을 해치워 버리면 후배는 배울 기회를 잃어버리고 그 동아리는 미래를 바라보기 어렵습니다.

넷째로 동아리 안에 쓸데없는 소문이 돌지 않도록 중요한 일은 회의에서 결정하고 결정한대로 실천되도록 선배들이 앞장서서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선배들을 보면서 동아리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지 않으셨나요? 청소년YMCA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같은 몰라도 같이 활동하는 선배들이 좋아보여서 들어온 회원들도 있지 않나요?

물론 선배들의 말대로 동아리가 좌지우지 되어서도 안 되지만 선배들 대접을 해주어야 선배들도 우리 활동에 도움을 주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죠. 중요한 시험 보는 날 격려해주는 파티나 우리 활동을 도와주었을 때 감사의 표시를 하고 생일에는 작은 편지라도 전하는 등 사소한 것이라도 관심을 갖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3. 관계만들기 (선생님 & 부모님)

1) 선생님과의 관계

지도교사나 학교의 담당 선생님께 “뭘 할까요?” 묻는 것 보다 “이런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때 더 인정받는 동아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발성과 능동성을 인정받게 되고 무엇보다 동아리 회원들이 스스로 계획을 만든 것에 대해 신뢰를 주기 때문이죠. 또, 불평이나 불만보다는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도움이 필요한 점은 무엇인지’ 솔직하게 이야기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약속을 잘 지켜야 합니다. 약속을 지키기 어려울 때는 미리 상황을 이야기 하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은 메일이나 문자가 잘 발달했으니 약속을 지키기 어려울 때 문자한통 보내주는 센스!! 어떨까요? ^^

2) 부모님과의 관계

동아리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매사에 더 성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유는 모두들 알겠죠?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보다 한 가지 일을 더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어떠한 것에 소홀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특히 동아리활동 때문에 학업 등 일상적인 활동에 소홀 하거나 의견차이로 인하여 부모님과 자꾸 마찰이 생기거나 자주 꾸중을 들으면 동아리 활동을 계속 해 나가기가 어려워집니다.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평소에 성실한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면 결정적 순간에(동아리활동, 행사나 단합대회, 캠프참가 등) 허락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공문이나 안내문 같은 것으로 그 상황을 이해시킬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Y 회원으로서 스스로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자신의 활동을 이야기하고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3) YMCA 간사님들과 관계만들기

YMCA에는 여러분의 활동을 지지하고 협력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YMCA에서 청소년운동을 담당하는 ‘간사님(혹은 선생님)’입니다. 회관에 가면 여러분들을 반겨 주고, 이것저것 궁금해서 묻기도 하고, 같이 집회를 하거나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죠...혹, YMCA가 수련관이나 문화의집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런 기관에서 간사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생명평화운동의 리더! |

YMCA 간사님들은 청소년들이 YMCA 운동의 주체로서 생명과 평화의 이념, 생활방식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정책과 회원조직, 프로그램을 모두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활동에 도움이 필요한 내용들은 언제든지 함께 토론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 학교에서의 생활, 개인적인 고민 모두 꺼내놓고 이야기 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과 간사님들은 함께 YMCA 운동을 만들어 가는 '동반자'이기 때문입니다.

4-4. 공부하기

동아리에 처음 들어왔다면 자신이 속한 동아리가 무슨 동아리 인지, 무슨 활동을 하는지? 에 대한 공부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공부는 대부분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알려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부는 선배들이 새로운 후배들이 들어왔을 때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한해가 시작할 때 동아리의 활동 목적이나 정체성에 대해서 교육계획을 세워서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아리의 성격에 맞는 교육을 준비해서 회원들이 함께 활동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을 담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봉사활동 동아리라면 봉사활동을 할 대상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이 이 필요할 것이고, 토론동아리라면 토론의 기술이나 토론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교육을 준비해야 합니다. 영상동아리라면 영상을 만드는 구체적인 기술들이 교육내용에 포함 되어야 할 것이고, 음악동아리라면 구체적인 연주방법을 익히는 교육이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을 진행하면서 우선 앞서 이야기한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아리 회원들이 스스로 교육하고 자신들의 활동들을 기획하고 활동에서 평가까지 한다면 더 없이 좋겠죠.

4-5. 활동장소 관리

동아리 활동을 위한 장소를 지원 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설사 학교 동아리더라도 말입니다!) 특히 회관 동아리들이 활동하는 집회실은 대체로 YMCA의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어린이, 성인, 노인 등 다양한 회원들이 함께 사용해야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 써야 합니다. 우리 청소년Y 회원들이 YMCA에 대한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이곳을 함께 쓰는 곳이라는 공동체의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YMCA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의 장소에서는 자신들이 사용한 장소를 늘 깨끗하고 아름답게 보존하기 위해 정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3장. 청소년YMCA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3장. 청소년YMCA 이런것도 할수 있다!

전국 청소년YMCA 활동사례



자 이제 우리가 활동하는 YMCA가 어떤 곳인지도 알았고, 청소년YMCA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와 절차가 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청소년YMCA는 어떤 활동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활동을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이 청소년YMCA로서 어떤 활동을 기획할 때 가장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여러분은 YMCA의 회원이라는 것에 대한 고민일 것입니다. 이 말은 청소년YMCA로서 여러분들이 가져야할 역사적·사회적 책임감에 대한 자기고백에서 시작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동아리의 활동영역을 배제하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동아리의 활동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생활세계와 우리사회 속에서 어떤 새 문화를 창조해야 하는지? 어떻게 청소년 스스로 생활 속에 적용시키고 실천해 나갈 수 있을까 고민 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나라를 확장하자'라는...

물론 이런 고민 속에는 청소년Y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서로 소통하고, 함께 협력한다는 중요한 전제가 있어야겠죠. 여러분의 선배들도 이러한 고민의 과정을 통해 성장하고 우리사회의 변화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런 고민의 과정들은 분명 여러분들의 청소년Y 활동을 더욱 알차고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활동거리를 찾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생명평화운동의 리더로서 청소년YMCA가 진행했던 활동사례를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청소년YMCA 회원 선배들이 활동했던 다양한 내용들을 정치, 경제, 사회 참여의 영역으로 나누어 정리했는데요,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청소년Y 회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례 속에서 여러분들이 고민해야하는 부분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과연 선배들은 왜 이런 활동을 했을까? 그런 활동을 통해 변화 시키고 싶었던 것, 변화된 것은 무엇일까? 어떤 과정으로 활동을 전개했나? 그 속에서 회원들 간의 소통, 사회와의 소통,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는 어떻게 형성했을까? 활동과제 속에서 동아리의 활동영역(봉사, 댄스, 밴드, 문학, 풍물, 언론 등)이 어떻게 발휘되었는지? 등...

청소년이 참여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작은 실천과 노력이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시민사회의 파트너 청소년.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는 청소년. 세상을 바꾸는 청소년. 끌리죠? 시작합시다!!

1. 청소년 정치참여운동

1-1. 18세 참정권 확보를 위한 한국YMCA 낭랑포럼

사업명	18세 참정권 확보운동
주관	18세 참정권 확보를 위한 한국YMCA 낭랑포럼
일시 또는 기간	2005년 5월 ~ 6월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YMCA 청소년 회원들이 18세 참정권의 정당성 및 필요성을 이해하고 공감하여 자신들의 활동과제로 삼을 수 있도록 한다. ●18세 참정권 확보의 정당성 및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으로 홍보하고 인하운동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발굴,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YMCA 청소년운동이 18세 선거권 확보와 청소년의 정치참여운동을 위한 향후 전개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내용 및 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8세 참정권 확보를 위한 한국YMCA낭랑포럼 (2005.5.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세 참정권확보의 정당성 및 계획에 대한 발표 ○18세 참정권확보를 위한 개사곡 부르기 및 퍼포먼스, 영상상영 ○YMCA 청소년 회원의 활동선언 2. 18세 참정권확보를 위한 거리 캠페인(2005.6.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세 참정권확보를 위한 개사곡 <낭랑18세> 수화공연, 퍼포먼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드리는 글 발표 및 국회의원에게 전달 3. 보도자료: 선거연령 19세 줄속합의에 대한 한국YMCA의 입장 배포 (2005.6.23) 4. 18세 선거권을 지지하는 청소년계 인사 및 단체 기자회견 (2005.6.29) 	
사업평가 및 향후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세 참정권 확보에 대한 청소년Y 회원들의 이해를 높이고, 운동과제 추진을 위한 전국적 회원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었다. - 청소년Y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정치참여운동(2006 청소년YMCA 531지방선거 참여운동)을 진행할 수 있었다. - 선거연령 19세 인하이후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과제발굴이 어려웠다. ●향후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세 참정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보 및 청소년의 정치적 민감성 향상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및 지역사회 청소년단체 및 사회단체연대가 필요하다. - 정치, 경제, 사회영역에서의 청소년 권리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청소년 시민사회론>의 확장과 성숙이 필요하다. 	

1-2. 18세 참정권 확보운동

사업명	청소년의 일상에서 청소년정책참여 생활화하기-“18세 참정권”의 꿈!
주관	구리청소년YMCA연합회 시사토론동아리 「도래샘」
일시 또는 기간	2005년 4월 ~ 12월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의 일상에서 청소년정책참여 생활화하여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관련정책 및 프로그램에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고 제시한다. ● 청소년참정권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조사 및 캠페인, 퍼포먼스를 통해 청소년 자신의 삶과 관련된 정책결정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 ● 기존의 성인주도, 정책대상의 청소년에서 청소년참여와 청소년정책의 주제로 보는 청소년정책의 방향이 실제로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서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내용 및 방법	
<p>(1) 당연한 권리도 될 알아야 주장한다. 공부하기!! 청소년인권학교(청소년 민주시민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참여 권리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함. ○ 일정 : 2005년 7월 25일(월) ~ 27일(수), 2시 ~ 6시 ○ 장소 : 구리YMCA 수택동회관 ○ 프로그램 내용 : 인간관계훈련, 청소년 민주시민교육(청소년의 참여권리), 한국YMCA 낭랑포럼의 활동방향 및 내용구리지역 활동제안, 구리지역에서의 18세 참정권 확보를 위한 활동방안, 구리시 청소년 참정권 인식조사와 관련 모니터링 교육 <p>(2) 우리동네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설문조사</p> <p>구리시 청소년 참정권에 대한 의식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목적 : 청소년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청소년관련 정책에 대한 생각과 특히, 청소년 선거연령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 조사방법 : 설문지를 통한 조사 ○ 조사대상 : 구리시 중·고등학생 546명 ○ 조사내용 : 청소년 참여 권리에 대한 생각, 선거에 대한 의견, 청소년 참여 권리를 확보하기 	

- 위한 방법, 18세 참정권 확보에 대한 제안사항, 등
- 조사기간
 - ① 준비기간(기획 및 설문지제작) : 2005년 8월 21일(토) ~ 9월 24일(토)
 - 내용 : 지역청소년들의 참정권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자료 및 정보수집, 설문 방향 설정, 설문지 제작
 - ② 설문지 배포 및 수거 : 2005년 10월 1일(월) ~ 10월 8일(토)
 - 장소 : 구리시 전 지역
 - ③ 설문 결과 분석 : 2005년 10월 8일(토) ~ 10월 29일(토)
- (3) 우리스타일로 말하기 - 나만 알고 끝나면 안 된다. 최대한 널리 알려라.
- “18세 선거권”꿈!! 퍼포먼스 진행
- 목적 :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청소년 및 주민들에게 청소년참정권(18세 선거권 확보)운동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지하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형성한다.
 - 일시 : 2005년 7월 29일(금), 오후 5시 ~ 7시, 11월 5일(토), 오후 3시 ~ 4시
 - 장소 : 구리시 장자 호수공원, 구리역 공원(구리시청소년동아리거리축제)
 - 참여인원 : 약 1200여명
 - 내용 18세 선거권확보 성명서 배포 및 피켓팅, 18세 선거권확보를 위한 문화요소가 가미된 퍼포먼스 진행 등 캠페인 및 퍼포먼스 진행
 - 1차 - 구리청소년YMCA연합회(꾼, 도래쌈, 등장인물, 먹골소리, 뿌리, 주초)에서 준비한 피켓팅, 풍물동아리 먹골소리의 사물놀이, 연극동아리 등장인물의 퍼포먼스(군인, 유관순, 결혼한 여성, 노동자 등 분장과 나레이션), 도래쌈의 퍼포먼스(TV개그 프로그램의 인기 코너를 패러디 하여 18세 참정권의 당위성을 알림), 풍선제작, 18세 참정권 찬반 스티커붙이기, 가두캠페인
 - 2차 - 구리청소년YMCA연합회 시사토론동아리 도래쌈이 준비한 퍼포먼스, 참정권OX퀴즈대회, 구리시 청소년참정권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판넬로 제작하여 전시 및 발표
- (4) 의견을 모아라!! 목소리는 모일수록 커진다.
- 「청소년의 일상에서 청소년정책참여 생활화하기-“18세 선거권”꿈!!」
- 목적 : 한 해 동안 진행되었던 활동내용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이후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18세 선거권과 관련하여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
 - 일시 : 2005년 11월 5일(토), 오후 3시 ~ 4시
 - 장소 : 구리역 공원(구리시청소년동아리거리축제)
 - 내용 : 활동보고, 청소년참정권에 대한 의식조사 발표, 향후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제안 등

사업평가 및 향후과제

(1) 평가는 활동의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 사업평가

- 오늘의 사회구성원으로서 독립된 인격체인 청소년이 자신의 삶과 관련된 정책결정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문제, 사회전반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대안문화를 형성해 나가으로써, 자율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었다.
- 청소년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자율적 토론 문화를 형성할 수 있었다.
-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자기활동을 통해 민주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청소년 스스로 찾아 자기 삶 속에서 실천해나갈 수 있었다.
- 청소년인권학교(청소년 민주시민 교육)를 통해 자신들의 활동에 대한 당위성을 다시 한 번 상기할 수 있었고, 향후 활동계획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 18세 선거권의 꿈~! 퍼포먼스를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청소년의 참정권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하여 청소년열린광장 준비위원회인 도래샘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지만, 토론과 소통으로 스스로 해결하고 퍼포먼스를 기획·진행하는 모습 속에서 청소년도 한 명의 민주주의 시민사회 주체임을 확인했다.
- 2005년 구리청소년동아리거리축제에 구리시 청소년 18세 참정권 의식조사의 결과를 퍼포먼스로 진행하였다. 무겁고 딱딱한 내용들이었지만, 코미디프로그램을 페러디하여 재미있게 진행하여 서인지 지역 주민들과 거리축제 참여한 학생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또한 참정권OX퀴즈를 진행하고, 조사결과를 도표와 판넬로 제작·전시하는 등 자신들의 활동을 알릴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패키지 형식으로 하나로 묶어 진행함으로써 지역주민들과 축제에 참여한 많은 청소년들에게 알리고 공유하는데 좀 더 수월하였고 효과도 컸다.

(2) 우리가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활동을 업그레이드 시키자!! - 향후 과제

- 향후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회 등의 청소년자치기구들과의 접촉과 교육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 지역 청소년동아리, 학교친구, 학교동아리 등을 대상으로 계속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18세 참정권의 정당성을 알린다.
- 지역 청소년정책수립과정에 청소년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청소년들의 참여를 독려하여 청소년의 일상에서 청소년정책참여가 생활화될 수 있는 바탕을 만든다.

2. 청소년 경제참여운동

2-1. 실업계에 대한 인식 바꾸기 운동

사업명	우리 편견 앞에 지지 말아요! 실업고 인식 바꾸기 운동
주관	여수청소년YMCA 노드들
기간	2005년 5월 ~ 현재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실업고에 대한 인식 조사 및 분석 ○ 지역 중학생과 학부모들의 실업고에 대한 인식 변화 ○ 실업고 학생들의 재능과 끼를 발휘 할 수 있는 장 마련 ○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실업고의 방향과 비전 제시 ○ 지역사회 실업고의 특색과 진로에 대해 다양한 방면으로 소개
사업내용 및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업계에 대한 인식 바꾸기 캠페인 진행을 위한 기획 회의 : 실업계 인식 바꾸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학교 대표, 동아리대표가 모여 세부적인 계획정리 ○ 청소년 및 실업고 인식 조사 : 여수지역 시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업계 고고 인식 조사를 통해 지역사회의 실업고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수렴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올바른 실업고 인식을 수립하기 위한 설문조사이다. ○ 실업계 인식 바꾸기 청소년 거리 캠페인 : 실업고의 특수성과 성과를 알리는 실업고 인식 캠페인은 노드들 활동 소개, 실업고 현황, 성과를 소개하는 기회를 가졌다. ○ 토론회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 발표, 캠페인 소감 나누기, 실업고 학생들의 성과 발표 	
사업평가 및 향후과제	
<p>●사업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문계와 실업계의 학생을 바라보는 시각을 개선시키며 실업계 청소년들 스스로 자신의 학교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도울 수 있었다. - 청소년들의 진로에 대한 실업계의 선택 시각을 더욱 폭넓게 하여 실업계에 진학하면 대학진학과 여러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는 정보를 알려줄 수 있었다. - 지역 중학생과 학부모들의 실업고에 대한 인식 변화를 통해 더 우수한 청소년들이 실업고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 	

- 향후과제
 - 인식이라는 것은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므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꾸준히 진행해 나갈 끈기와 지원이 필요하다.
 - 실업과 인식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보를 통해 전국적으로 운동이 확산될 수 있는 지역사회 청소년단체 및 사회단체연대가 필요하다.

2-2. 자원재활용을 위한 청소년 녹색소비운동

사업명	자원재활용을 위한 청소년 녹색소비운동 「미래와 환경을 생각하는 신나는 나눔」
주관	구리청소년YMCA연합회 인창대 환경봉사동아리 「뿌리」
기간	2000년 ~ 현재
목표	<p>○ 청소년중심의 청소년녹색소비운동 지속적 전개 : 지난 2000년 개원한 이래 청소년녹색가게는 물자절약과 자원재활용운동을 꾸준히 전개하여 청소년 및 지역주민들에게 환경의식과 건전한 소비문화를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04년부터는 ‘신나는 나눔 장터’를 통하여 청소년과 지역주민들에게 상설물품교환센터인 청소년녹색가게를 홍보하고 청소년과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베품시장을 개최하여 재활용사용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켰다. 이에, 청소년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어온 청소년녹색소비운동의 성과를 이어 지역 내 청소년중심의 녹색소비운동이 자리매김할 수 있는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p> <p>○ 지역연대 활동과 녹색 소비문화 형성을 위한 중심적인 역할 : 성인녹색가게, 구리시, 구리시 종합자원봉사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활동을 통해 청소년과 지역주민들에게 물자교환을 통한 자원재활용운동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었다. 지난 2004년부터 구리시청소과와 연계해서 신나는 나눔 장터를 개최하여 청소년녹색가게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에서 청소년녹색가게가 갖는 의미를 홍보하고 녹색소비운동을 실천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올바른 소비문화 형성을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p> <p>○ 지역사회 교복 물려주기운동 활성화 : 청소년녹색가게의 주요 취급품목이 교복과 참고서임에도 불구하고 지역학교와 연계한 교복수거가 매우 부진하여 교복의 제고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리고 너무 부담스러운 교복 값 때문에 녹색가게를 찾아와 교복을 찾는 지역주민들이 헛걸음을 하거나 남은 교복을 수선해서 구입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 청소년환경푸름이를 중심으로 한 교복 물려주기 운동을 활성화 하고 지역학교뿐만 아니라 자치센터와 아파트 부녀회 등과의 연계를 통한 교복물려주기운동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한다.</p>
사업내용 및 방법	

(1) 활동의 영역을 넓히고 과제를 찾으려면... 공부하라!!!! 청소년 환경푸름이 교육

- 목적 : 환경의 소중함과 자원재활용 재사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올바른 소비문화 형성을 위한 과제를 청소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계기 마련한다.
- 일시 : 매년 4월 ~ 5월 중
- 내용 : 지구환경을 살리는 재사용운동,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재사용 재활용, 녹색소비에 대한 방법 소개, 외국의 재활용사례 소개, 재활용품을 이용한 소품 만들기, 우리가 낭비하고 있는 것, 소비습관을 바꾸자, 녹색가게 사례발표(녹색가게의 유래, 목적, 운영방법 등) 등

(2) 청소년녹색소비운동의 물꼬를 튼다. 미래와 환경, 이웃을 생각하는 청소년 녹색가게 운영

- 일정 : 4월 ~ 12월, 매주 토요일, 주 1회
- 장소 : 청소년 녹색가게
- 운영시간 : 매주 토요일 12시 ~ 4시까지 (방학 중 예는 화, 목, 토 12시~4시까지)
- 운영방법
 - 청소년 환경푸름이 조별로 주 1회씩 녹색가게 운영
 - 1일 3 ~ 4인 청소년 환경푸름이 교대로 물품정리, 판매, 관리
- 운영방식 : 물물교환 및 현금거래(2천원 이하 - 금액 기준표 작성)
- 취급품 : 교복 및 체육복, 문제집, 학용품이 주를 이루며 그 외 옷과 악세사리 등을 수거하여 저렴한 가격에 판매.
- 특이사항 : 수익금은 구리YMCA 저소득어린이 무료공부방 돕기 성금으로 쓰임
녹색가게 홍보활동

(4) 알리자! 함께하자! 변화 시키자!!! 녹색가게 홍보활동

- 기간 : 매년 상시 홍보
- 장소 : 구리시 전지역
- 홍보방법 : 포스터 및 전단지 활용
- 내용 : 녹색가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매장이용, 취급품목) 및 나눔장터

(5)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역량강화!!

나눔과 순환의 대축제!!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신나는 나눔장터

- 일정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전 11시 ~ 오후 4시(동절기 12월~2월 휴장)
- 장소 : 장자호수공원 원형광장
- 참여단체 : 구리시청 청소과, 구리YMCA 녹색가게, 청소년 환경푸름이 「뿌리」, 대한적십자 구리지구 협의회, 지역주민(돗자리장터참가자) 200여명
- 내용 : 수거된 재활용 물품을 이용한 물물교환 및 판매, 돗자리 장터, 추억의 먹거리 장터, 녹색가게 홍보 등
- 특이사항 : 2006년에는 폐식용유를 이용한 세탁비누를 직접 제작하여 판매하였는데 반응이 매우 좋았다, 또한 되살림 강좌를 수료한 후 자투리천을 이용한 부엉이 열쇠고리 만들기를 주민들과 함께 진행하였는데 이것 또한 매우 반응이 좋았다.

(6) 새로운 활동을 찾아 운동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 리폼(Reform)전시회, 바자회

- 목적 : 자원재활용 재사용을 위한 리폼(Reform) 전시회 개최 및 리폼 패션쇼를 통하여 청소년 환경 푸름이 활동을 청소년 및 지역주민들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리폼(Reform) 전시회

를 개최하여 전사회 통해 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인식시키고 지역사회에 리폼(Reform)문화를 제안하는 계기 마련한다.

- 일시 : 인창고등학교 축제기간, 구리청소년동아리 거리축제기간 등
- 준비기간 : 2006년 9월 ~ 10월, 2개월간 -
- 내용
 - 리폼(Reform) 전사회 개최 및 리폼 패션쇼, 바자회를 위한 물품수거
 - 수거된 물품과 청소년녹색가게 보유 물품을 중심으로 리폼 기획회의
 - 필요한 장신구 및 기자재 구입
 - 임무 분담 후 수선 및 코디
 - 리폼 전사회 및 바자회 개최
- 운영계획 : 부서별로 의상과 소품, 무대배경 및 분장 등을 역할 분담하여 진행
- 특이사항 : 리폼패션쇼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준비기간도 너무 짧아 전사회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사업평가 및 향후과제

(1) 평가는 활동의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 사업평가

- 청소년 활동푸름이 활동을 통하여 청소년이 주도하는 지역사회 재사용 및 재활용 문화의 생활화를 지역 사회 안에 정착시키는 밑거름이 될 수 있었다.
- 청소년녹색가게의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통하여 지역사회 청소년 소비운동의 지속적인 활동모델의 제안하였으며, 지역사회 올바른 소비문화 형성 및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유도하였다.
- 청소년 환경푸름이와 구리시, 구리YMCA, 지역 자원봉사 단체 등이 협력하여 진행하는 정기적인 나눔장터를 통하여 지역사회 안에 재사용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었으며 또한 올바른 소비의식을 재고시킬 수 있었다.
- 신나는 나눔 장터를 통하여 지역사회 연대감을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진행시켰고, 더불어 행사를 통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은 불우이웃 돕기에 사용함으로써 더불어 함께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앞장섰다]
- 지역기관단체들과 연계하여 교복 물려주기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수거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교복 물려주기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좀 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여 지역사회 시민들의 의견전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우리가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활동을 업그레이드 시키자!! - 향후 과제

- 정기적인 나눔장터의 개최와 지속적인 청소년녹색가게의 운영으로 지역사회에 재사용 및 재활용 문화의 생활화와 녹색소비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한다.
- 새로운 활동들을 개발하여 지역 청소년들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한다.
- 교복 물려주기 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방법들을 개발하여 지역의 재사용 및 재활용 문화의 정착에 교복 물려주기 운동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한다.

3. 청소년 사회참여운동

3-1. 자원봉사활동

1) 친환경 농촌봉사활동

사업명	친환경 농촌봉사활동
주관	천안 청소년YMCA 연합회
일시 또는 기간	매년 8월 둘째 주 2박 3일
목표	<p>○유기농업 생산지를 견학하고 체험하면서, 패스트푸드나 외국수입농산물에 길들여져 가는 우리들의 식생활양식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먹거리에 대한 생각과 이해를 갖는다.</p> <p>○직접 농사일을 체험함으로써 노동과 땅의 소중함을 느끼며 보람 있는 봉사활동을 실천한다.</p> <p>○청소년Y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삶을 배운다.</p>
사업내용 및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민과의 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농법에 관한 교육 및 질의응답, 환경을 생각하는 동아리생활수칙 정하기 ● 농촌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수원 과일 솜아내기, 잡초제거, 유기농 두부 만들기 체험 등 ● 하반기 청소년Y 실천활동에 관한 토론 	
사업평가 및 향후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사체험과 농민과의 대화를 통해 생명과 땅, 그리고 노동의 대가를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 봉사점수만 얻어가는 자원봉사활동이 아닌, 공동체성과 환경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다. -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진행되다보니, 무더위가 기승하여 농사일을 제대로 체험하기 힘들었다. ●향후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과 환경을 배울 수 있는 방학캠프로 만들어 청소년Y회원 뿐만 아니라, 지역의 관심 있는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생명평화운동의 리더! |

2) 지역사회 모금활동

사업명	제 8회 사랑나누기를 위한 일일차집
주관	안동YMCA 고교-Y 열아성
일시 또는 기간	2006년 4~6월 (매년 6월경)
목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지원 및 청소년들과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한다.
사업내용 및 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일차집 기획회의(2006.4.22~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일차집 진행방향 및 일정 논의 - 일정, 장소, 메뉴 결정, 역할 분담 2. 일일차집 후원요청(2006.5.13~5.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배님들께 후원요청, 지역 사업체에 찾아가서 후원요청 3. 홍보 및 티켓 판매(2006.5.29~6.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방송국 공문 발송, 학교별 홍보 포스터 부착 및 티켓 판매 4. 일일차집 준비(2006.6.3~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물품 및 준비물 구입 - 메뉴판 만들기, 홍보판 만들기 - 차집 꾸미기 5. 일일차집 진행(2006.6.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 판매, 공부방 소개, 서빙 등 역할 분담 활동 6. 평가 및 수익금 사용논의(2006.6.10~6.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일차집 활동 소감 나눔, 일일차집 수익금 사용 논의 7. 수익금 전달 및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학교 교복 10명 지원(2006.6.13) - 통일자전거 2대 지원(2006.8.31) - 농촌 지역 공부방 눈썰매 캠프 지원(수익금 및 자원봉사)(2007.1.16) 	
사업평가 및 향후과제	
<p>●사업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인 봉사활동과 달라 좋았음. - 회원들의 참여도가 높았음. - 준비에 대한 미흡으로 운영이 어려웠음. - 기획, 준비, 진행을 직접하여 뜻깊은 행사였음. <p>●향후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활동내용을 후배들에게 정확히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 - 단순히 차 판매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벤트가 필요할 것 같다. 	

3-2. 축제 및 문화활동

1) 청소년 축제 : 코믹 페스티벌

사업명	Comic Festival (청소년 만화,코스프레 축제)
주관	마산YMCA 만화동아리 블루스타, 축제운영위원회
일시 또는 기간	2006년 5월 6일 ~ 6월 17일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스스로의 힘으로 축제운영위원회를 만들고, 기획에서 진행, 집행, 평가까지의 전과정을 진행하면서 청소년 스스로가 지닌 문화잠재력을 개발한다. ● 청소년 문화중의 하나인 만화, 코스프레 축제를 통해 청소년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문화 창조를 위해 주체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 중, 고등학교에서 자생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만화, 코스프레 동아리들이 직접 제작한 팬시판매를 통해 작은 사회를 경험할 수 있다.
사업내용 및 방법	
<p>1. 담당인력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및 자원봉사인력(청소년사업위원회 자문, 청소년 자원봉사자 모집) ○ 만화동아리 블루스타를 주축으로 한 축제운영위원회 구성 <p>2. 홍보 및 축제 참가자 모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 청소년단체, 학교, 교육청 협조 공문발송 ○ 포스터 및 전단 배포, 청소년YMCA 조직홍보 <p>3. 축제 기획 및 준비,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연문화 -코스튬플레이(퍼포먼스,댄스,패션쇼)15팀,만화노래자랑15팀,댄스,풍물공연 -전시판매 -일러스트 전시회, 만화부스전(25팀) 직접 제작한 팬시 판매전. -참여문화-중고물품 베품시장, 페이스 페인팅,만화 버튼 만들기, 만화 노래자랑 ○ 지역사회 문화자원 지원 -경남미용고(페이스페인팅),풍물동아리, 댄스동아리공연 영상동아리(전 과정 촬영 및 편집) <p>4. 축제 일시 및 장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06년 6월 10일(토) 오후2시~7시 ○ 장소 : 마산시 삼각지 공원 <p>4. 보도자료: 마산MBC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보물상자"방영(6월)</p>	
사업평가 및 향후과제	

생명평화운동의 리더! |

●사업평가

- 청소년들이 축제운영위원회를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참가한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청소년 문화를 만드는 문화 창조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 청소년들의 최대 관심분야중의 하나인 만화, 코스프레 축제를 경험해 봄으로써 지역 청소년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문화로 자리 매김할 수 있었다.
- 청소년들이 직접 제작한 만화팬시 작품을 직접 판매하는 과정을 통해 작은 사회를 경험하게 하였다.
- 지역에서 흩어져 자생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만화, 코스프레 동아리들이 축제운영위원회를 통해 함께 만나고 조직적 연대를 구성할 수 있었다.

●향후과제

- 축제를 통해 확인된, 일반만화 일색인 청소년 만화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 축제운영위원회로 모인 조직적 연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방안 모색.

3-3. 언론 및 미디어 운동

1) 지역사회 청소년 신문만들기

사업명	참여와 소통, 평화의 비전을 만드는 10대 언론운동
주관	용인 청소년YMCA연합회 청소년기자단 「블루스카이」
일시 또는 기간	1999년 ~ 현재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은 단순히 뉴스 전달뿐 아니라 경제상황 개선이나 개인과 사회의 이미지 창출 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언론활동을 통하여 청소년 스스로 자신들을 알리고 10대들의 권리를 주장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다.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매체가 될 수 있다. ○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공간에서 청소년들이 자기 생각을 만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훈련을 통하여 학생이라는 이유로 현재 자신의 권리를 유보당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현재적 삶을 스스로 찾아가며 청소년 스스로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의 권리를 주장 시켜서 변할 수 있도록 한다. ○ 청소년을 바라보는 기성세대의 왜곡된 시각을 변화 시키고, 10대들의 다양성과 가능성을 받아들여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청소년들의 사회적 참여를 활성화 시킨다. ○ 동아리조직을 기반으로 청소년 스스로 조직을 구성하고 회원을 모집하여 청소년언론운동을 진행하여 활동의 적극성과 자발성을 높인다. ○ 청소년언론운동을 통하여 청소년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를 찾는 10대들의 목

	<p>소리를 담아 보장받지 못하는 권리에 대한 문제점을 청소년 스스로 설득력 있게 표현하며, 기성세대와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지역시민과 청소년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다.</p> <p>○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언론 캠페인을 함으로서 기성세대와 청소년들의 생각과 문화를 공유하고 청소년의 주장이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여 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소통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10대 언론 캠페인을 통해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평화의 비전을 만들어 간다.</p>
<p>사업내용 및 방법</p>	
<p>● 청소년기자단 운영 - 용인청소년YMCA연합회 청소년기자단 「블루스카이」</p> <p>1) 기자단 운영계획</p> <p>① 기자단 모집 : 청소년신문 「블루스카이」 신입기자 모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 3월, 10월 공개모집 (중1~고1) - 학년에 관계없이 기수제로 운영 <p>② 청소년 기자학교 진행(청소년 기자단 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매년 4월 중 기초교육, 8월 중 기자단캠프(1박2일) 진행 - 내용 : 기자·기사란?, 취재 방법, 인터뷰방법, 맞춤법 등 <p>③ 정기모임 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회의 : 신문발행 전 2회 - 평가 및 편집회의 : 신문발행 전 4회~5회 - 취재 보완 및 최종 레이아웃 결정 : 발행 전 1회 - 배포망 회의 : 신문발행 전 1회 - 자문회의 : 신문 발행 및 배포 후 1회 <p>2) 신문발행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면, 5,000부, 백색 60g 중질지 - 제호 : 블루스카이 - 크기 : 타블로이드 판 - 발행일 : 계간 3,6,9,12월 (총4회) 25일 전후 - 지면별 내용(기자단과 구체적인 협의이후, 각 호별 내용에 따라 변경 됨) <p>3) 신문 배포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포단 구성 : 각 학교 배포 및 우편작업 담당자 구성 ○ 배포처 및 부수 : 동사무소 및 관공소 1,500부, 각 학교 2,500부, 관내 청소년 이용시설 500부, 관외 청소년 상담실 우편 100부, 기타 400부 	
<p>사업평가 및 향후과제</p>	
<p>(1) 평가는 활동의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 사업평가</p> <p>○ 청소년 신문 「블루스카이」 정기발행으로 지역주민들과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다.</p>	

생명평화운동의 리더! |

- 청소년 스스로 청소년 문화형성 및 여론 형성을 주도하며, 청소년들로 하여금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였다.
-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자신의 리더십을 발견하고 주체적으로 21세기 새로운 청소년 담론을 만들어 내며 이를 발전시켜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을 개발할 수 있었다.
- 청소년 신문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 이슈에 대해 알 수 있고 스스로 대안을 찾아갈 수 있었다.

(2) 우리가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활동을 업그레이드 시키자!! - 향후 과제

- 지속적인 청소년 기자단 교육을 진행하여 기자들이 실제적으로 신문을 발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신문발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취재와 기사작성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사간의 소통이 더욱 필요하다.
- 차 후 용인내 유일한 청소년감성신문답게 청소년들의 의사를 대변할 뿐 만 아니라 지역의 청소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개설하고 건강한 언론이 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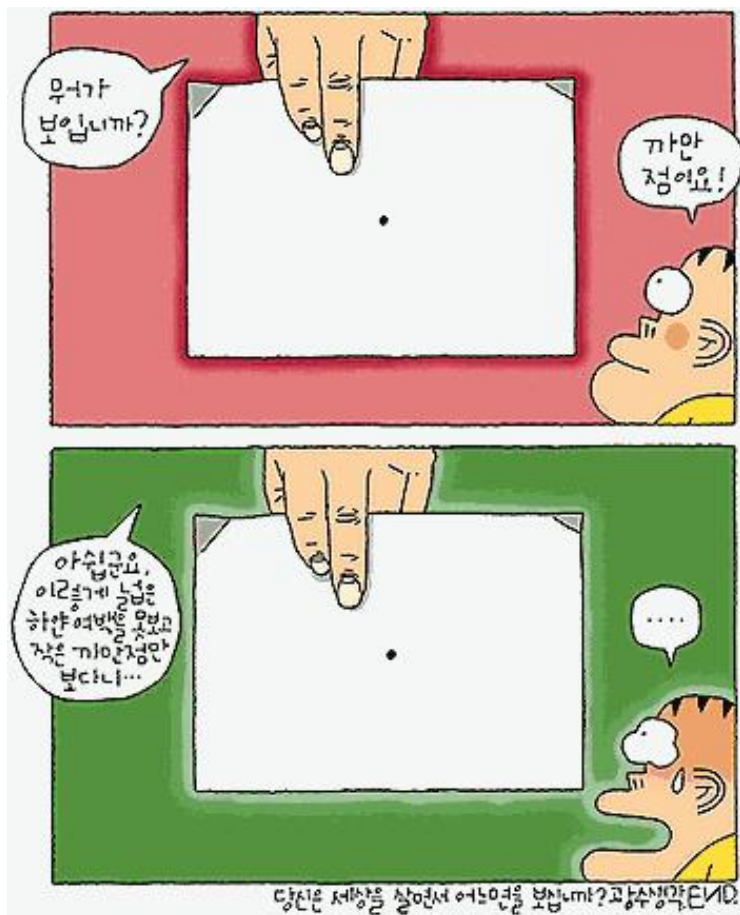
2) 청소년의 눈에 비친 지역사회를 카메라에 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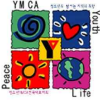
사업명	청소년 영상축제 “우리는 마산에 산다”
주관	마산Y 영상동아리 (Yeyes), 마산청소년 영상동아리네트워크
일시 또는 기간	2006년 7월~11월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들이 직접 주체가 되어 준비하고 진행하는 마산의 청소년 영상 축제를 만든다. ● 청소년들의 눈에 비친 지역사회의 모습을 캠코더에 담아 봄으로써 지역사회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게 된다.
사업내용 및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비주체 구성 : 마산YMCA 미디어환경운동본부 자문 청소년으로 구성된 청소년스텝 구성 ○ 홍보: 언론(지역신문 및 지역방송)홍보, 단체, 학교, 협조 공문 발송 ○ 2006년 7월~8월 : “왕초보”를 위한 영상제작 워크샵 모듬별 맞춤형 교육방식 적용 ○ 2006년 8월~10월 : 조별 영상작품 촬영 및 공모전 준비 ○ 2006년 11월 4일(토) : “우리는 마산에 산다” 미디어영상 축제 	
사업평가 및 향후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들이 스스로 기획한 “우리는 마산에 산다.”라는 주제를 가진 영상작품을 촬영하는 가운데 마산을 구석구석 훑어보고 카메라를 대어 봄으로써 지역사회의 주인으로써 시민의식을 가지게 됨 - 지역사회 청소년 영상문화를 이끌어갈 지도력으로서 전문적인 영상경험을 통해 영상에 대한 꿈을 키움 	

- 마산지역의 미디어영상에 대한 관심을 가진 청소년을 중심으로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 하는 기초를 마련함
- 향후과제
- 주제를 세분화하고 특성화하여 청소년들이 준비하는 영상축제로 이어가기
- 네트워크를 통하여 함께 준비하고, 활동하는 방법을 후배들에게 전수하기

3) 청소년 미디어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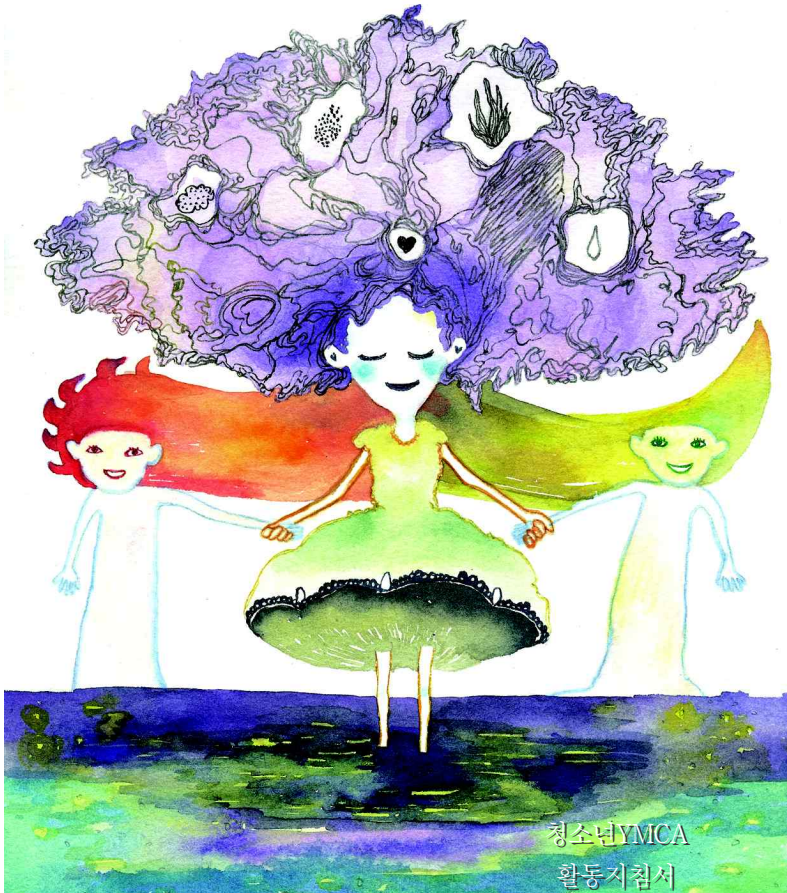
사업명	미디어를 이끄는 청소년의 날개 짓
주관	원주 교교Y 연합회
일시 또는 기간	2006년 12월 3일(일)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YMCA 청소년 회원들이 미디어활동을 이해하고 공감하여 자신들의 활동과제로 삼을 수 있도록 한다. ●YMCA 청소년운동이 미디어에 대한 이해와 청소년의 미디어참여운동을 위한 향후 전개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내용 및 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청자가 청소년인 방송 모니터링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청소년이 모니터링 ○ 모니터링 후 청소년 스스로 평가 ○ 청소년이 시청자 주권시대의 정체성 확립 2. 올바른 미디어 활동 위한 거리 캠페인(2006년 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이 바라보는 올바른 미디어 활동에 대한 외침(상반기) ○ 유해한 미디어를 청소년 스스로의 힘으로,,(하반기) 3. “미디어를 이끄는 청소년의 날개 짓” 포럼 및 세미나 개최 (2006.11.3) 	
사업평가 및 향후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미디어 활동에 대한 청소년Y 회원들의 이해를 높이고, 운동과제 추진을 위한 지역적 회원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었다. - 청소년Y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미디어를 이끄는 청소년의 날개 짓’이란 포럼 및 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었다. - 청소년이 이 사회의 당당한 한 주인임을 알리며 청소년들의 건강한 교류와 미디어 영상 활동을 통해 청소년 스스로 성숙해 질 수 있는 계기였다. ●향후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주지역 청소년 미디어 활동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한다. (방송반 및 영화반 영상동아리-정기적 만남) - 청소년 미디어문화를 둘러싼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건전한 영상 미디어 문화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찾는다. - 미디어의 수용자로서가 아니라 생산자로서 미디어의 바른 이해와 건전한 비판의식을 기르고 공동체적 사회성을 미디어로 표현한다. 	





Chapter. 들

청소년YMCA 연합회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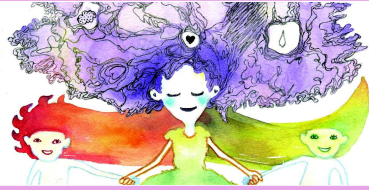
청소년YMCA
활동지침서



4장. 청소년YMCA연합회

4장. 청소년YMCA연합회

청소년YMCA연합회의 역할과 필요성



1. 청소년YMCA 연합회 왜 만들어야 하나??

연합회?? 대면식을 하기위해?? 다른 동아리를 뚫기 위해? 연합회를 만드는 걸까요??

YMCA 안에 다양한 동아리들이 활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아리활동을 하기 전까지는 “공동체” 를 이룬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동아리 활동은 여러분들이 뜻이 맞는 친구들과(댄스라면 댄스를 좋아하는 친구들과)함께 모여서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죠? 맞나요?? 이렇게 **각개의 동아리들은 뜻이 통한 회원들이 모여서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각 지역YMCA안에 속한 청소년동아리들이 각기 다른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지만.. **단 하나 같은 것이 있다면 될까요??** 청소년이라는 것? 같은 지역에 살고 있다는 것?

이것 말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YMCA 안에서 YMCA 의 목적과 이념에 따라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같은 지역의 YMCA 안에 속해있으면서도 같은 공간에서 늘 지나치면서도..서로의 활동이 무엇인지 다른 동아리는 어떻게 동아리활동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아리활동을 통해 “공동체” 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동아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있다면 그것을 확대하여 같은 지역Y에 속해있는 다른 동아리들과 함께 더 큰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각개의 동아리 회원을 떠나 YMCA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감을 연합회의 구성과 활동을 통해 경험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개별의 동아리가 하지 못하는 **지역사회의 참여운동**³⁾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원동력이자 발판이 될 뿐 만아니라 서로의 활동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함께 발전하는것이죠~

이쯤하면 연합회를 왜? 구성해야 하는지 설명이 되었나요?

몽치면 살고 흩어지는 죽는다? 일까요?? ㅎㅎ

연합회는 왜(Why?) 필요한걸까요?

- ✓ 연합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가... 필요없는 얘기가.. 될 꺼예요~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을..해보아요~!! ^^

★ 나는 이래서 연합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한개 동아리만 활동하고 있는 지역 경우에는 지역내 다른 동아리들나 잔들에게 YMCA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살피며 함께 활동하라고 재촉할 수 있습니다.(쉽게 말하면 YMCA에서 같이 활동하라고 꼬시는 거죠. ^^) 단 YMCA의 목적에 따라 꼭 함께 해야 할 일은 말해주어야겠죠)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진 동아리들이 함께 연합회를 꾸려 YMCA 활동을 함께 전개해 나간다면?? 정말 멋지겠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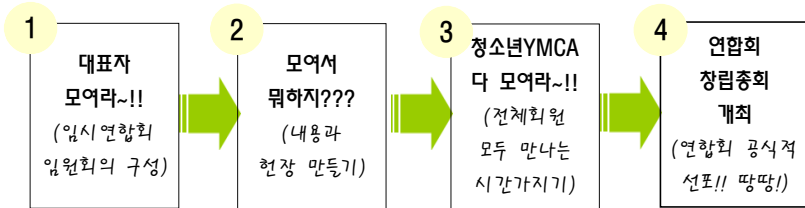
3) 지역사회참여운동 : 지역사회(내가 살고가고 있는 현재 거주지, 학습공간, 경제공간등)내 청소년관련 문제나 과제들을 찾아 청소년YMCA 회원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내용과 목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활동, 예를 들자면 지역내 청소년참여증진을 위한 토론회, 캠페인, 인식개선을 위한 참여활동, 지역동아리축제진행, 청소년평화문화만들기 운동 등

2. 청소년YMCA 연합회는 어떻게 만들까??

지역 YMCA 내의 활동하는 동아리가 2개 이상일 경우 연합회를 구성하자고 다른 동아리에 제안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큰 조직을 만들려고 하기 보다는 각 동아리의 대표들이 모여 각 동아리 활동을 공유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것이 있을지 이야기 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입니다.

연합회를 구성하기 위한 대략의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1. 연합회 구성의 절차와 방법



1) 회원대표들끼리 일단 만남!! -(동아리 대표자회, 임시연합회 임원회의 구성)

각 동아리의 대표들끼리 모여서 대표자회나 임시연합회의 임원회의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연합회의 구성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 등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회의를 통해 먼저 **각 동아리의 활동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 후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고민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월 1회 정도 정기적인 동아리대표회의를 구성하여 1학기정도 진행하면서 대표자회의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대표자회의조차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연합회의 구성이 쉽지 않겠죠??

혹시라도 인준이 되지 못한 동아리거나 신규동아리의 경우도 회의에 참여시켜 연합회의 구성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모여서 뭘할까? - (내용만들기)

자.. 그럼 회원대표들끼리 상시적으로 회의를 잘 진행하고 있다면.. 함께 연합회를 구성하여 어떤 활동을 할까?? 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나긴 만나는데..만나서 뭘할지..모른다면.. 연합회활동이 단지 친목만을 위한 친목계정도밖에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연합회에서 어떤 목적으로 어떤 활동을 할지 대표자들이 함께 고민하여 내용을 만들어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일단 여러분들이 모여서 뭘할지(목적과 활동내용)이 정해졌다면 그 다음에는 연합회 현장 초안을 만들어 가면 됩니다. 연합회의 현장이란 동아리의 회칙과 같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여러 동아리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연합회의 가입조건과 인준 심사 등의 내용이 추가 되는 것이죠.

연합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연합회의 목적과 활동내용, 가입조건, 총회내용, 조직의 구성등의 내용이 들어간 현장이 필요합니다. 임시연합회 임원회의에서 연합회현장의 초안을 작성하여 창립총회 개최 시 회원들에게 공지하고 수정하여 제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연합회의 대략적인 틀을 가지게 됩니다.

연합회의 현장은 그 연합회의 건강성을 담보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동아리의 회칙이 그러하듯이 연합회의 현장이 그 지역 청소년YMCA 의 건강성을 나타내주는 징표가 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하여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연합회 현장] (* 연합회의 기준현장은 부록을 참고하세요~!!)

- **연합회 현장의 기초적 틀은 임시임원회에서 작성하지만 연합회의 창립총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회원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제정될 수 있습니다.**_창립총회를 통해 제정된 연합회의 현장은 연합회활동의 기준을 제공합니다.

연합회 현장을 기준으로 하여 연합회의 조직, 역할, 운영 등이 이루어집니다. 연합회의 현장은 물론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합회 활동목적
- 연합회 활동내용
- 연합회 가입조건 (회원, 동아리)
- 연합회 총회의 내용 (개최시기, 총회원의 자격, 총회원 수, 선거, 회칙수정, 안건 등)
- 연합회나 대표자회 등 조직의 구성 (임원의 수, 부서구성 등)
- 연합회 운영을 위한 재정에 대한 사항
- 상벌규정

3) 전체회원이 만나는 시간을 가진다.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연합회의 공식적 선포를 하기 전에 각동아리의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뜬금없이 어느 날 모이라 해서 모였더니 창립총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동아리의 회원들에게 **연합회구성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더불어 활동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요건인 서로간의 관계형성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모르는 채 연합회를 꾸리는 것보다 서로 친해진 다음 연합회를 구성하는 것이 연합회 활동이 더 잘 되겠죠?? ^^ 먼저 서로간의 벽을 허물자구요~

예를 들자면 체육대회나 수련회, 단합대회 등의 프로그램도 좋구요, 아니면 어떤 행사를 준비하여 함께 진행해보는 것도 연합회 구성을 위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될거예요~

4) 창립총회의 개최

창립총회는 그동안 연합회임시임원회의에서 준비한 것을 바탕으로 청소년YMCA 연합회의 구성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유일무이한 시간이며 역사적인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동아리끼리 모여서 임원회의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같이 모여서 행사도 함께 진행하고, 같이 모여서 뭘 할지도 고민해서 결정해서 연합해서 하는 활동들이 모두 잘 되어 있다고 해서 연합회가 구성된 것은 아닙니다. 창립총회를 통해 연합회의 구성에 대해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아기가 태어난 것은 다들 알지만 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해야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는 것처럼 말이죠..ㅎㅎ

각 동아리의 회원대표들이 합의하여 정한 창립총회의 참가자격과 인원수를 지켜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창립총회에서는 초안으로 작성된 연합회의 헌장을 회원들의 의견을 듣고 수정하여 제정하고 연합회 회장, 부회장을 선출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1년간 연합회가 해야 할 활동의 내용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연합회가 공식적으로 모든 절차를 갖추어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멋지지 않나요?? 연합회의 창립총회는 그 지역YMCA에나 회원들에게 딱 한번뿐인 아주 소중한 날이니깐요~ ㅎㅎ

☞ 창립총회의 순서도 일반 동아리의 총회순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단, 각 동아리별 성원보고와 연합회 창립을 위한 경과보고 등이 추가되면 더욱 더 멋진 창립총회가 될거예요..

※ 88p 에 정기총회의 순서에 기본적인 내용이 나와있으니 참조하세요~!!

3. 연합회의 역할은 무엇이고 어떻게 운영할까?

3-1 연합회의 역할

그렇다면 연합회는 어떤 역할을?

모든 동아리들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역할??일까요? 상부조직일까요?

앞서서도 말했듯이 연합회는 각기 다른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듯 각기 다른 동아리들이 YMCA 내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연합회의 역할은 **○○지역의 전체 YMCA동아리들을 대표하며 동아리들을 하나로 묶어서 함께 연대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심부름꾼의 역할을 하는 하나의 대표기구**

인 것입니다.

국가로 보면 시민들을 대표해서 국가의 여러 가지 중요정책을 결정하고 심의하는 국회와 같은 역할이죠.. 또한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이지만 국민의 위에 있는 감시자가 아닌 것처럼.. 연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의 청소년YMCA를 대표하여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기구인 것이죠.** 그래서 국회의원은

생명평화운동의 리더! |

을 국민의 손으로 투표로 선출하는 것처럼 연합회의 임원도 총회에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하는 것이죠.

연합회에서 임원회가 총회를 통해서 구성되면 연합회의 회장과 임원단은 그 지역 청소년YMCA를 대표하는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연합회의 임원단은 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 동아리들을 하나로 묶기 위한 내부적인 활동과 지역사회활동이나 전국단위의 활동 등의 외부적인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정기 및 임시총회, 신입회원환영식, 입회식, 동아리 인준식등의 기본적인 활동과 체육대회, 야유회, 하령회, 동령회 등과 또한 모든 동아리가 함께 참여하여 할 수 있는 지역사회활동을 계획하고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활동들을 하자면 몸이 열 개라도 모자라겠죠? 거의 매달 행사가 있으니 이를 준비하고 진행하고 각 동아리들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1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면 임원단들이 다소 동아리의 활동에 소홀해 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 동아리회원들이 잘 배려해주고 북돋아주는 Membership 이 필요하겠죠?? ^^

3-2. 연합회의 조직운영

연합회의 경우 연합회의 임원단이 있으며 각동아리의 대표자들이 있습니다. 임원단과 대표자들이 정기적으로 회의를 가져 함께 하는 활동의 목적과 내용을 결정하고 진행하게 됩니다.

연합회의 임원단은 총회에서 선출된 회장과 부회장, 총무, 서기 등 연합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원들의 모임입니다. (임원의 구성또한 현장에서 명시하고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것이니 지역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회의 임원회는 앞서서도 말했듯이 연합회의 상부조직이 아닙니다. 또한 연합회의 임원회 구성원들 역시 각 동아리에 소속된 회원이므로 동아리에 돌아가면 같은 회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단 임원회에 있는 동안은 자기가 속해있는 동아리활동보다는 청소년YMCA 연합회의 활동에 더욱 충실하도록 각 동아리에서 파견하고 모든 회원이 선택한 회원일 뿐입니다.

대표자회는 각 동아리의 회장단이 모인 기구입니다. 연합회 회의에 참여해서 연합회의 활동을 함께 만들고 평가하는 조력자의 역할을 합니다.

*이때 연합회에 소속 동아리 수가 적거나 회원 수가 그리 많지 않다면 굳이 임원과 대표자를 내는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통해 동아리표 중 한 표를 연합회를 선출하고 동아리표들로 연합회 임원을 구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각 연합회의 사정에 맞게 구성하면 됩니다. 아차피 연합회를 운영할 사람은 여러분이니까요~:

3-3. 원활하고 활발한 연합회 운영을 위한 TIP

어떻게 하면 연합회의 활동이 잘(?) 이루어 질 수 있을까요?? 열심히 신나게 연합회 활동을 하기위해서는?? 이쁘고 멋진 회원이 연합회 회장이 되면 잘될까요?? ㅎㅎ

① 회원들에게 잘 전달하고 설득하기!

연합회에서 어떤 행사를 계획하고 진행할 때 각동아리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동아리의 회원들의 의견을 듣고 회원들도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회의는 대표자와 임원들이 아주 열심히 하고 정작 돌아가 자기 동아리 회원들에게 잘 전달하지 못하고 설득하지 못해 당일 행사 날이나 프로그램 진행시 아주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함께 활동을 잘 하기 위해서는 최우선 되어야 하는 것은 회원 개개인의 참여가 아닐까요??** (회원 개개인의 참여가 동아리의 활동이 되고 또 그것이 모여서 연합회가 되니까요..) 회원 각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동아리의 대표들과 연합회의 임원들이 열심히 설득하고 설득해서 회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죠?? 임원회와 대표자들만 알고 이것저것 시켜서 한다면 회원들이 뭘 하는지도 모르고 하고 나면 불만들이 쌓이겠죠??

② 평가는 정확하게!!

연합회에서 연간 매우 많은 활동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헌데 끝나고 나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가를 하긴 하지만 평가 때 ‘잘되었는데 이것은 좀 아쉽다. 이걸 그쪽 동아리에서 책임지기로 했는데 제대로 안한 것 아니냐?!!’ 등 서로 깎아내리고 핀잔을 주기 일 수입니다. 우리가 행사를 치르고 평가를 하는 이유는 다음 행사나 진행시에 그 같은 실수의 반복을 하지 않고 잘되었던 점을 더 증진하여 앞으로 더 잘 하기 위해서이죠~ 그런데 평가를 할 때 무언가 나쁜 점, 잘 안되었던 점을 서로 꼬집어 할귀기를 한다면 평가를 하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서로 잘못된 점을 비판하는 정도로 그치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정확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비판을 달갑게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목적이 잘 달성되었는지, 부족하다면 앞으로 무엇을 더 협력할지 등 보다는 활동을 위한 발전적인 논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③ 대외적인 활동 증진하기

연합회의 활동을 활발히 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또래 동아리들과 연대를 이루어 활동을 하거나 다른 지역YMCA의 연합회와 교류를 활발히 하는 것도 연합회의 활동에 기폭제 같은 작용을 합니다. 이런 대외적인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친구들과 지역 내에서 네트워크를 이룸에 따라 회원들의 능력을 높이고 또한 전국적인 연대를 통해 회원들이 영향을 받도록 하는 방법도 연합회 활성화를 위해 좋은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 대외적인 활동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은 4-5 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4. 청소년YMCA 연합회에서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은??

동아리간의 연대인 연합회를 구성하여 생명·평화운동의 리더로서 YMCA의 목적과 방향에 맞는 다양하고 알찬활동 등을 전개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연합회의 회원으로서의 자부심과 소속감을 함양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전개할 수 있습니다.

4-1. 신입회원 입회식

입회식은 모든 동아리의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입회원을 받아들이고 공식적으로 YMCA 회원됨을 선언하는 엄숙하고 경건한 의식입니다. 입회식을 통해 신입회원들은 YMCA의 공식적 일원으로 인정받으며 YMCA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 활동하게 됩니다. 선배들은 후배회원들을 위해 입회의식을 보다 경건하고 엄숙히 진행하여 회원들 한 명 한명이 회원으로서의 소속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입회식 끝난 후 신입회원들이 알찬 프로그램 등으로 모든 회원이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좋겠어

4-2. 신입회원 교육

신입회원의 경우 연합회가 무엇인지 YMCA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잘 모릅니다. 교육을 통해 청소년YMCA가 지향하는 목적과 방향을 알려주며, YMCA의 활동과 이념, 사업을 소개하고 각 동아리의 연혁과 활동계획을 알게 함과 동시에 친교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면 좋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청소년YMCA 회원으로서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지게 되며 회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느껴 동아리에 대해 친숙하고 일체감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YMCA 소개의 경우 담당선생님께 부활을 드려도 좋지만 선배들이 모여서 고민하고 활동하면서 느꼈던 YMCA를 후배들도 알 수 있도록 직접 참여하여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상하면 더욱 좋겠지요 딱딱한 강의보다는..

4-3. 연합체육대회 및 수련회

일년에 두 번 정도는 연합회의 모든 회원이 함께 모여서 서로를 알고 친교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소속감과 유대감을 높이고 서로 친목을 도모할 수 있으며 동아리내부의 단합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체육대회나 수련회의 경우는 모든 프로그램의 내용을 연합회회의에서 함께 계획하고 각 동아리에서 적어도 한 개정도의 프로그램을 맡아서 골고루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면 더욱 더 알차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단, 너무 경쟁을 유발하는 프로그램을 하거나 해서 서로 마음을 다치게 하는 일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서로 친해지려고 모였다가 싸움을 하면 안되지요?? 또한 너무 친목위주의 프로그램만으로 짜여져 앞으로의 활동을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지 못한다면 단지 친목으로 끝날 우려도 있겠지요?

목적은 잘 정하고 그 목적에 맞는 내용을 채워갈 수 있길~~ ^ ^;;

4-4. 정기총회

처음 연합회를 구성하여 창립총회를 통해 회칙을 제정하고 임원단을 구성하게 되면 그 다음해부터는 정기총회를 일년에 한번 진행하게 됩니다.

정기총회는 보통 1월에서 2월 사이에 진행됩니다. 정기총회에서는 작년한해동안의 연합회활동을 보고하고 또한 각 동아리에서는 일년동안 어떤 활동을 했는지 발표하고 올 한해의 연합회 활동을 논의하여 결정하며, 임원단을 구성하고 개정할 회칙이 있다면 회칙을 개정합니다.

보통 동아리에서 진행되는 총회와 순서나 내용은 다르지 않으나 한해의 동아리의 활동을 평가하고 심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총회는 한해의 활동을 정리하고 또 한해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에 총회전에 각 동아리의 활동을 연합회에서 평가하고 총회에서는 인준심사⁴⁾를 통해 5)가맹동아리와 인준동아리⁶⁾가 나누어 지게 됩니다.

[정기총회 순서]

- 성원보고 / 여는예배
- 각 동아리 활동보고
- 동아리 인준심사 (* 동아리 인준심사의 양식은 부록을 참고하세요)
- 연합회 활동보고
- 연합회 활동계획
- 회칙 수정
- 임원 선출
- 기타 안건

4-5. 동아리 대회 및 축제 개최

지역에 다양한 동아리들이 있다면 1년에 한번정도는 동아리의 활동내용을 알리고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초대장이나 포스터도 만들어 지역에 알리고 타동아리들도 함께 참여시켜 축제와 문화의 장을 만들어 간다면 지역 내 청소년Y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지역 내 다른 동아리들이나 단체, 기관과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는 계기도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런 행사 및 축제를 개최해 봄으로써 다양한 경험도 쌓을 수 있으며 연합회의 활동을 좀 더 다져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4) 인준심사 : YMCA 소속동아리로서 YMCA의 목적과 이념에 맞게 활동했는지 연합회의 구성동아리로서 충분히 참여했는지 판단하는 평가제도이다.

* 인준심사의 기준 또한 연합회에서 결정하고 집행한다.

5) 가맹동아리 : 인준받지 못한 동아리로 연합회총회시 총회원권과 의사결정권이 없다. 지역YMCA에 소속되어 활동을 하고 있으나, 활동이 저조하거나 활동한지 1년 미만인 동아리를 칭한다.

6) 인준동아리 : YMCA연합회의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활동을 인정받은 동아리이며, 총회원권과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다.

4-6. 지역사회 참여활동

지역사회의 참여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분야에 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한 일원으로써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야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YMCA로서 다른 또래 청소년들을 대변하고 의견을 모아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거나 인식을 개선해야 하는 일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지역의 청소년정책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을 모아 시장님께 전달한다거나, 토론회를 열어서 지역청소년들의 의견과 발전방향을 논의해보기도 하고, 학생의 인권신장을 위한 활동이나 지역동아리축제 등을 지역에서 다른 동아리들과 연대하여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여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활동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활동이 지역의 많은 청소년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의 청소년들을 대변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고 소외된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면 진정 생명평화운동의 리더가 되지 않을까요??

4-7. 하령회/ 동령회

다른 동아리와 함께 청소년Y 회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역할과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소속동아리의 단합과 친목도 중요하지만 Y란 이름으로 함께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이 서로 Y에 대한 이해와 협력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또한 소중합니다. 하령(동령)회는 청소년Y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더욱 회원들을 하나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보통 여름에는 각 권역별로 하령회를 개최하여 모든 회원이 참여하여 친목과 연대의 틀을 다지고 각 지역의 활동을 서로 공유하여 돌아가 각 지역의 활동을 증진시키며, 동령회는 전국의 회원대표들이 겨울에 모여서 회원대표로서 좀더 Y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리더십과 파트너십을 키우며 함께 활동방향을 고민하고 논의하고 결단하는 회원대회입니다. 지역의 연합회뿐만 아니라 전국의 청소년Y 회원들과 연대의 틀을 다짐으로 좀 더 발전적인 지역의 청소년Y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지역의 청소년YMCA연합회의 1년간 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

사례) ○○YMCA 청소년연합회 2006년 연간 활동 내용
 (*그 지역에 특성에 맞게 진행하면 됩니다)

NO	일 정	프로그램명	내 용
1	1~2월	정기총회	각 동아리 활동보고, 동아리 인준심사, 년간 활동보고, 활동계획, 임원선출, 회칙개정, 기타 안건 등
2	3월	임원단교육	YMCA 이념 및 역사교육, 2006년활동방향 논의 동아리활동이란? 생명평화의 리더란?
3	4월	새내기서당	YMCA란? 새내기서당 목적공유, 고교-YMCA란?, 공동체놀이, 인간관계훈련등
		신입회원 및 동아리 인준식	동아리인준, 신입회원입회식, 자원지도자 위촉식, 우수동아리 시상, 찬조공연 등
4	5월	지역사회참여운동	5.31 정치참여활동 / 지역 청소년의제발굴, 정책뽀기대회 등
5	6월	단합대회 및 체육대회	YMCA 안에서 소속감과 연대감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
6	7월	자체하령회	조별프로그램, 마을축제, 명랑운동회 등
7	8월	중부지역 하령회	청소년YMCA 운동공유, 지역간 연대의식강화
8	10월	지역청소년 동아리축제	청소년동아리거리축제 개최 지역 내 동아리참여활동증진
9	12월	평가회	2006년 연간활동평가회

5. 전국적인 연대활동은 어떻게 하나??

YMCA는 세계적인 시민단체이며 전국에는 62개의 지역YMCA가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연합회를 구성하여 좀 더 큰 공동체를 구성하여 Y의 회원성을 증진시키는 것 처럼..각 지역이 각기 다른 내용과 과제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지만 Y라는 큰 틀 안에서 목적과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전국의 청소년YMCA가 함께 연대의 틀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청소년YMCA 회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들은 같은 YMCA의 목적과 이념아래 활동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의 Y친구들은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지역의 친구들을 어떻게 사귀고 함께 내용과 고민을 가지고 연대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각 지역이 속하는 권역별 청소년Y연합회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전국의 청소년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이기는 참 어렵겠지요?? 지리적 여건상~

그래서 중부(경기, 강원지역)지역, 영남(대구, 부산, 경북, 경남) 지역, 서부(대전,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광주, 제주)지역 이렇게 세 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각기의 권역별 연합회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각 동아리가 모여 연합회가 되듯, 각 지역연합회나 동아리(연합회구성이 안되어 있는 지역의 경우)가 모여서 권역별 연합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권역별 연합회에 참여하면 어떤 점이 좋으냐고요?? 왜 참여해야 하나고요??

- ▶ 다른 지역의 **청소년Y 활동을 공유**할 수 있다.
- ▶ 지역을 벗어나 더 큰 연합회 활동을 통해 **회원대표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 ▶ 연대하여 활동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함으로써 **전국적인 활동의 내용**을 만들 수 있다.
- ▶ 활발하지 못한 지역의 경우, 권역별 활동과 연대를 통해
 새로운 **활동방향**을 모색하고 **활동의 동기**를 만들 수 있다.
- ▶ 전국의 청소년Y 회원들과 연대하기 위한 **Y조직의 이해와 회원성**을 성장시킬 수 있다.

생명평화운동의 리더! |

일단 권역별 모임에 한번 참여해보시면... 위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몸소 체험할 수 있을꺼예요~ 일단 한번 참여해보세요~!!

‘하령회와 동령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하령회와 동령회는 각 지역의 청소년Y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정을 나누기도 하고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운동의 내용을 만들어 가는 아주 소중한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에 참여하지 않으면 전국적인 연대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일단 만나서 이야기해야 운동이든 그 무엇이든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하령회와 동령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일년에 단 한번씩 뿐입니다. 그리고 동령회는 회원의 대표만 가는 자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정말 평생에 단 한번이라 할 수 있죠~ 이런 기회를 놓치면..전국적 연대는....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ㅎㅎ)

▶ 하령회

하령회는 청소년YMCA의 회원들이 모여 생명·평화운동의 리더로서 평화, 인권, 참여 등 다양한 주제로 **YMCA회원성을 증진하고 연대의 틀을 만들어 가며 각 지역의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매년 여름 권역별로 진행되는 청소년YMCA 회원대회**입니다.

* 하령회의 역사는 뒤에 5장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역사를 보시면 하령회를 왜 하며 왜 참여해야하는지 가서 뭘 하는 건지.. 자세히 알 수 있을 거예요.. 꼭 읽어 보세요~!!

▶ 동령회

동령회는 말 그대로 해석하자면 겨울(동)에 모여서 령(명령)을 받는 회(대회)를 말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구요? 왜 겨울에 모여서 명령을 받고 가는건지? 잘 이해가 안되지요?? 먼저 동령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부터 알아볼까요??

동령회는 2000년 서부권역에서 최초로 시작하게 된 회원대표들의 리더쉽을 함양하기 위한 임원연수회였습니다. 서부권역의 간사님들이 하령회의 한계(하령회만으로는 각 지역에서 YMCA의 청소년 회원성을 전파하고 활동을 전개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를 인식하고 99년 10월경부터 5개월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 한번 해보자! 삶과 문화의 공동체 만들기 ” 라는 주제로 2000년 2월 28일 광주적십자수련원에서 80여명의 서부권역 회원대표들이 모여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후로 2002년부터 서부, 영남, 중부 이렇게 3개의 권역에서도 동령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각 권역별로 새로운 임원이 뽑히는 시기인 2월말경에 동령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이후 4년 동안 각 권역별로 진행되던 동령회가 2006년에는 전국동령회로 결집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전국의 청소년YMCA 회원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YMCA의 생명 평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청소년시민사회를 스스로 주장할 수 있는 회원대표로 거듭나기 위한 「2006 생명 평화운동의 리더 전국 동령회」가 실시되었으며 2007년 2월 22일까지 2회째로 실시되었습니다.

이렇게 2006년 전국동령회를 시작으로 청소년YMCA전국대표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각 권역별 연합회의 대표들이 모여서 전국 청소년YMCA전국대표자회가 되는 것입니다.

<2006년 청소년YMCA전국대표자회 활동보고>

▶ **청소년YMCA 531 지방선거 참여운동 전개**

- 2006.5.31일에 청와대가 각 지역에서 5.31 미래유권자 축제를 여러 회의를 거쳐 처음으로 10대가 투표권을 얻었는데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열었다.

▶ **한국YMCA 제38차 전국대회 만15세 청소년회원권 제안 보고**

-2006.6.4일에 청와대가 제 38차 전국대회에서 YMCA 정회원 권을 만 18세에서 만 15세로 하향조정 안건을 청소년 YMCA도 YMCA의 회원이라 생각하고 YMCA에 주가 되는 것은 청소년들이었으나 청소년들에게 총 회원권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아서 YMCA의 총회 등 의결 과정에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없다면 청소년 회원들이 주가 되어 활동하고 있는 상황과 모순이 되었음을 깨닫고 청소년에게 총 회원 자격의 제한을 둔다면 청소년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진다는 이유로 상정하여 거수로 가결되었다.

▶ **한국YMCA 통일자전거 보내기 모금 캠페인 보고**

- 2006.8.2~11일에 청와대가 통일 중주단과 통일자전거 모금운동을 자전거를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북한의 교통수단을 보내주기 위함과 또 북한과의 통일의 염원을 느끼기 위해 행사를 개최했다.

▶ **2006 서부, 영남, 중부지역 청소년YMCA 하령회 “세상을 이끄는 청소년들의 날개짓”**

-2006.8.2~6일에 청와대가 각 권역별로 하령회를 여러 회의를 통해 청소년 참여라는 주제와 세상을 이끄는 청소년의 날개 짓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열었다.

▶ 아시아태평양YMCA동맹 청소년총회(Youth Assembly) 참가보고

- 2006.8.24~9.2 청와대가 말레이시아 K.L에서 A.P.A.Y YOUTH를 각 권역별 2명씩 6명으로 대표로 구성하여 한국 청소년 YMCA활동을 알리고, 다른 나라와 교류하기 위해 열었다.

○참가자 : 중부지역 청소년Y연합회(이봉준/수원, 김민지/구리), 서부지역 청소년Y연합회(채병근/군산, 정수경/여수), 영남지역 청소년Y연합회(배다송/안동, 김하나/마산) 회원대표 및 대학YMCA 회원대표

○주제 :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대의 영적기반강화(Strengthening our Spiritual roots for Solidarity toward Sustainability)

전국의 회원대표들로 구성된 청와대가 올 한해의 청소년운동과제를 논의하고 토론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함으로 전국공통과제를 실천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5.31 청소년지역사회정치참여활동, 통일자전거보내기 모금운동, 한국YMCA 통일자전거 청소년 평화종주단 등의 경우 한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전국의 모든 지역Y에서 함께 함으로써 더 많은 효과를 가져 오기도 하며 또 한뜻으로 모금운동이나 평화종주단에 참여함으로써 더 큰 시너지효과를 내기도 하였던 것이죠. 이걸 모두 전국 동령회를 통해 구성된 청와대라는 조직을 통해 가능했던 일이었지요. 그렇기에 동령회가 청소년 Y의 운동과제나 활동방향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제 동령회가 뭔지 어느 정도 감이 오시나요?? 일단 회원대표들이 모이는 자리라는건 아시겠죠?? 그냥 단순히 전국적인 친교를 위해서 2박3일을 모이는 것일까요??

동령회는 '회원대표들이 모여 YMCA의 청소년운동과제를 스스로 논의하고 찾아 생명 평화적 가치를 돌아가 지역사회에 전파하기 위한 회원대회'입니다. 그래서 동령회의 모든 프로그램의 내용과 진행은 각 권역별 준비위원들이 몇 차례의 회의를 거쳐 논의하고 토론하여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진짜 이해가 되셨나요? 혹시 아직도 잘 모르겠다면 아마 갔다온 선배들이 더 잘 설명 해줄테니 다녀온 선배들에게 물어보세요~!! ㅋㅋㅋ
선배들도 잘 모르면 간사님께~ ^^;

청소년YMCA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가까운 지역에 물어 보세요~!!
<광주, 김해, 구리, 마산, 목포, 부천, 속초, 여수, 원주, 이천, 용인, 천안, 춘천>



5장. 내가 선택한YMCA

5장. 내가 선택한 YMCA

YMCA란 어떤 곳일까?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1. 내가 활동하는 YMCA는 어떤 곳?

여러분은 YMCA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오셨나요? 선배들은 여러분께 YMCA를 무엇이라고 설명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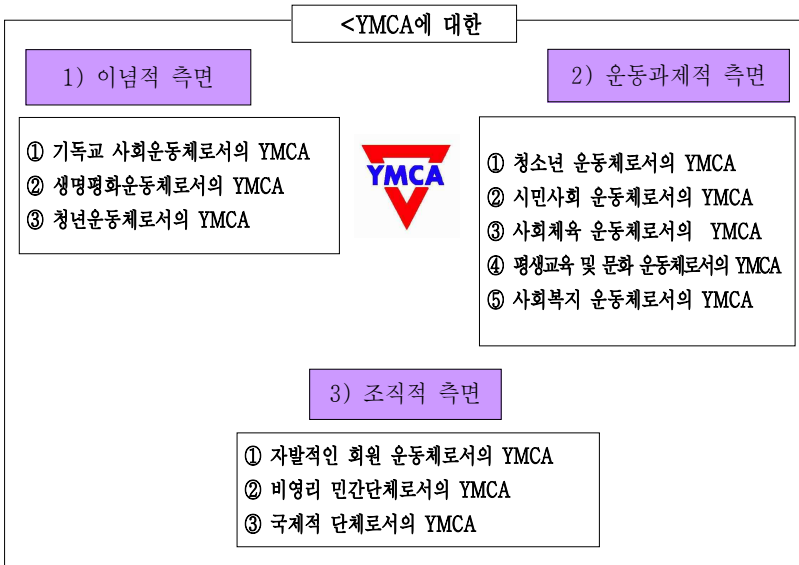
잠깐, YMCA가 어떤 곳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2007년 청소년YMCA 전국 동령회>에서 선배들이 무엇이라고 YMCA를 설명했는지 알아볼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MCA는 - 지원자이다 <p>높은 활동을 기대하지 할 수 있게 해주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의 목소리이다 <p>같은 뜻을 가진 청소년을 모아서 소리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 함께 할 동반자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MCA는 - 레고이다 <p>한 조각의 레고는 볼품없지만 하나로 모였을 때 멋지고 보기 좋다.</p> <p>는 한사람일 때보다 전체가 되었을 때 진정 빛나기 때문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MCA는 - 하나의 공동체이다 <p>하나 안에서 서로 배우고 변화하며 이끌어 갈 수도 있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곳</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동장이다 <p>누군지 언제까지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p>
---	---	---

무슨 설명인지 이해가 가나요? 그럼 YMCA는 어떤 곳인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

1-1. YMCA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YMCA는 **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의 약자로서, "**기독교청년회**"라고 말합니다.



YMCA는 전 세계가 급속히 산업화 되고, 인간의 노동이 효율과 효과로 평가받으면서 급속히 삶이 폐쇄화되기 시작하던 1884년 영국의 노동자였던 조지 윌리엄스(George Williams)와 11명의 청년들의 “젊은이들의 정신적, 영적 상태의 개선”을 위한 기도모임으로부터 시작되어 전 세계 124개국으로 확대 전파된 국제민간운동단체입니다.

한국에서는 일제의 침탈야욕으로 국운이 쇠잔하던 시기인 1901년 배재학당YMCA에서 청소년들의 모임으로 시작되어 1903년 황성기독교청년회를 설립한 이래 100여년간 민족의 독립과 군부독재시대의 자유, 시민사회의 건강한 발전 등 시대적 소명을 찾아 기독교사회운동을 펼쳐왔습니다. 또한 지금도 시대 변화에 따른 “생명, 평화운동”을 감당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YMCA 운동이 만들어지는 과정에는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청소년, 사회체육, 환경운동, 시민운동, 사회복지, 국제협력 등 다양한 영역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생명평화운동의 리더! |

1) 이념적 측면

① 기독교 사회운동체로서의 YMCA

YMCA는 청년들의 영적·정신적 개선을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목적으로 세워진 기독교 사회운동체로, 그 운동의 구현과정에는 기독교인만이 아니라 종교와 교파를 넘어서 단결된 운동을 수행하는 에큐메니칼 운동체입니다.

② 생명평화운동체로서의 YMCA

YMCA는 모든 생명체가 온전하게 조화롭고 생존하고, 무력에 의한 평화가 아닌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 땅에 실천하기 위한 운동체입니다.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개개인들의 변화와 실천, 평화 감수성 키우기, 평화로운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실천운동, 연구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③ 청년운동체로서의 YMCA

YMCA의 가장 큰 관심이자 중심은 “청년”입니다. 민족의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 시민운동을 이루어온 주축은 우리 사회를 건강하고 평화롭게 이루려는 청년들의 노력이었고, 청년들의 지도력 개발과 참여가 중요한 운동과제입니다.

2) 운동과제적 측면

① 청소년 운동체로서의 YMCA

YMCA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청소년들의 주체적인 문화 활동을 돕고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하는 청소년 운동체입니다.

이로써 변화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청소년 문화형성을 도우며 시민사회의 주체로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의 영역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협력하는 청년들의 운동체입니다.

② 시민사회 운동체로서의 YMCA

YMCA는 시민생활 제반 영역에서 복지향상과 사랑과 정의가 실현되는 민주적 시민사회를 이루어나가기 위해 시민세력의 형성과 시민참여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시민사회 운동체입니다. 이를 위해 시민의식 개발, 시민권의 보호운동, 환경운동, 시민 중계실 운영, 시민정보 및 영상문화운동 등을 전개합니다.

또한 변화되는 새로운 세기에 요구되는 사회윤리를 모색하여 발전시키며, 환경 친화

적 소비문화의 형성 및 사회 성원들의 자아실현을 가로막는 제도적 차별에 대한 시정을 통하여 사회적 건강성과 인간존엄성의 회복을 도모,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위한 제반 사회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③ 사회체육 운동체로서의 YMCA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말이 있죠?

YMCA는 사회 운동적 차원에서 사회성원들이 일상적 체육활동을 통하여 사회성을 증진시키고 심신의 균형을 이루는 건강성을 실천하도록 돕는 사회체육 운동체입니다. 또한 사회성원들의 개별적 건강성이 사회적 건강성의 기초임을 인식하고 기독교적 가치관의 실현을 도모합니다.

④ 평생교육 및 문화 운동체로서의 YMCA

YMCA는 광범한 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교육과 문화 활동을 전개하는 평생교육 및 문화운동체입니다. 교육과 문화의 영역을 통해 그 선교적 사명을 수행해 나가면서 고령인구의 증가추세와 고용체제의 변화 및 지식정보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다양한 교양취미교육, 외국어교육, 직업교육 등을 실시하며 변화하는 사회에 맞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연구와 개발 및 실시를 통하여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갖습니다.

⑤ 사회복지 운동체로서의 YMCA

YMCA는 난민구호를 비롯한 수많은 농민·노동자·영세민을 위한 봉사 및 사회개발을 위한 각종 사업을 전개해 왔고, 나눔의 정신을 실현하여 사회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복지사회건설에 이바지하는 사회복지 운동체입니다. 특히 이를 효율적으로 실천하고자 복지관운영을 통한 청소년·장애인·노인·재가복지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발전과 관련한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대안마련, 사회보장체계의 확립을 위해 노력합니다.

3) 조직적 측면

① 자발적인 회원 운동체로서의 YMCA

YMCA는 목적에 동의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운동을 펼쳐 가는 회원 운동체입니다. YMCA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고 참여하고자 하는 회원에 의해 구성되어 지고, 회원들의 활동을 통해 YMCA가 추구하는 목적을 이루어 나갑니다. 따라서 회원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YMCA 운동의 기초가 됩니다.

② 비영리 민간단체로서의 YMCA

YMCA는 국가의 후원이나 정책시행의 목적에 의해 조직된 단체가 아니라 순수한 민간영역에서 시민들에 의해 조직된 자발적인 단체이며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단체입니다. YMCA는 세계에 많은 민간단체를 파생시킨 민간운동의 본산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민간단체입니다.

③ 국제적 단체로서의 YMCA

한국YMCA는 아시아태평양YMCA동맹에 가입되어 있고, 스위스에 사무국을 두고 있는 세계YMCA동맹에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124개국에 YMCA가 조직되어 있는 국제적 네트워크로,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행복을 위해 활동하는 국제적 단체입니다.

1-2. 목적문으로 살펴본 YMCA

1) 파리기준과 캄팔라 원칙

① 파리기준

YMCA는 우리의 목적에 동의하고, 함께 활동하고 싶은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YMCA가 국제단체라고 했던 것 기억하시죠? ^^

우선 세계 YMCA 목적문 (파리기준)을 살펴볼까요?

파리기준

1855년 8월 22일 파리에서 개최된 세계대회에 회동한 유럽과 미주의 YMCA대표들은 원칙과 실천면에서 일체감을 의식하면서, 세계연맹에 가맹한 각 국 청년회들 간에 현존하는 통일을, 그리고 저들 각자의 조직과 활동 양식이 보유하고 있는 완전한 독립성을 인식하며, 아래에 게재하는 ‘파리기준’이 금후에 있을 다른 전국 연맹체들이 가맹 수락기준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임을 의결한다.

“기독교 청년회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과 구주로 믿어 그 신앙과 생활에서 그의 제자 되기를 원하는 청년들을 하나로 뭉치고 또 그 힘을 합하여 청년들 가운데 그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밖의 다른 문제에 관한 어떠한 견해의 차이도, 비록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세계연맹 산하의 각 국 회원 청년회들 간의 융화를 저해할 수 없다.

- 파리기준을 그리스도가 청년회의 중심임을 표현하는 것이다. 청년회는 모든 종파에 속한 그리스도인을 단결시키는 범 세계적 교의체로서 파악된다.

- 기독교청년회가 하나의 개방적인 회원정책을 가짐으로써 종교, 연령, 성별, 사회적 신분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포섭한다는 사실을 파리기준의 정신에 일치한다.

- 파리기준은 각국 YMCA연맹의 세계연맹 가입 기준으로 마련된 것이다. 일개인의 YMCA회원자격을 규정하는 조건을 세계연맹의 회원인 각 국 청년회의 자유재량에 일치하는 배려가 되어 있다. 다만 그렇게 하여서 만들어진 청년회의 목적은 반드시 세계연맹에 의하여 파리기준의 정신에 일치하는 것으로 인준되어야 한다.

1855년 여러 YMCA 대표자들은 파리에서 대회를 개최합니다. 여기서 각국의 대표들은 YMCA 원칙과 활동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느끼고, 그들 각 YMCA 사이에 현존하는 일치를 상호 인정할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는 각 YMCA의 독자적인 조직이나 활동의 양상에 대하여 독립성을 인정하지만 기본적인 원칙에 따라 파리기준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파리기준의 중요성은 세계YMCA운동의 중심점이 될 세계YMCA동맹의 형성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YMCA 활동 목적의 근간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② 캄팔라 원칙

20세기 후반의 복잡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개개인이 그 구조적 모순이나 부당한 압박을 받는 일 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건전한 인간으로 발전해 가게 하는데 오늘의 YMCA가 새롭게 혹은 보다 강하게 관심을 갖는 운동이념으로 강조한 것이 “캄팔라원칙”입니다.

1969년 노팅엄 세계대회가 파리기준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다음의 세계대회가 1973년 우간다 캄팔라에서 개최되면서 채택한 원칙으로 파리기초의 기본 운동이념을 오히려 재확인 하면서 단, 오늘날의 현대적 YMCA가 받아들여야 할 보다 더 큰 사회적 책임과 관심을 강조한 것을 그 내용의 골자로 합니다.

캄팔라원칙

파리기준은 그리스도가 청년회의 중심임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그러기에 청년회는 모든 종파에 속한 그리스도인을 단결시키는 범세계적 기독교 정신을 갖는 공동체로서 파악되는 것이다. 기독교 청년회가 하나의 개방적인 회원 정책을 가짐으로서 종교, 연령, 성, 종족, 사회적 신분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을 포섭한다는 사실은 파리 기준의 정신에 일치한다.

파리기준은 일개인의 YMCA회원 자격을 규정하는 조건으로서 마련된 것이 아니다. 그러한 것은 세계연맹의 정회원인 각 국 청년회의 자유재량에 일임하는 배려가 되어 있다. 파리기준은 각 국의 정회원 청년회가 각자의 목적을 다른 용어로서 표현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보유하고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서 각 국의 청년회는 자기들의 봉사의 대상자들의 요구와 염원에 보다 더 직접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렇게 하여 만들어진 청년회의 목적은 반드시 세계연맹에 의하여 파리 기준의 정신에 일치하는 것으로 인준되어야 한다.

오늘의 세계를 사는 YMCA의 성격을 인식할 때, 파리 기준의 정신을 천명하는 이 행위는 각양 각색의 청년회들과 저들의 회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같은 명령에 복종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된다.

1. 만민에게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고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 일한다.
2.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이해가 통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일하고 그것을 보전한다.
3. YMCA와 사회 안에서, 산하 조직체들과 기구 안에서 정직과 깊이와 창의성이 용납되는 조건 등을 만들기 위하여 일하고 그것을 보전한다.
4. 기독교적 경험의 다양성과 깊이를 보여주는 지도력 및 프로그램 모형을 개발하고 유지한다.
5. 통전적 인격의 형성을 위하여 일한다.

이런 세계YMCA 기준과 원칙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서 최초로 ‘한국YMCA 목적문’이 제정되었습니다.

3) 한국YMCA목적문 : 목적문을 알면 YMCA가 보인다?

한국YMCA는 1976년 제23차 전국대회에서 목적문을 채택하였습니다.
자 그럼, 목적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한국YMCA 목적문

기독교 청년회는 젊은이들이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함께 배우고, 훈련하며, 역사적 책임의식을 계발하고, 사랑과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일하며 민중의 복지 향상과 새 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으로써 이 땅에 하느님 나라를 이룩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76년 4월 23일 제23차 대한기독교청년회연맹 전국대회에서 채택)

① 누가 YMCA 운동을 하나요?

목적문을 차근차근 읽어봅시다. 누가YMCA 운동을 한다고 되어있나요?

바로 “**젊은이들**”입니다. 앞에서 YMCA는 청년단체라고 했습니다.(기억하죠? ㅋㅋ)
YMCA운동의 주체이자, 주 관심대상은 “젊은이들”입니다.

하지만 YMCA에 보면 어린이도 있고, 어르신도 계시던데... 젊은이들은 그럼 누구죠?
YMCA가 이야기 하는 젊은이들은 몸과 마음이 젊은, “**청년정신**”을 가진 이들입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신체가 젊다고 젊은이 이기도 하지만, 맑은 정신과 봉사와 헌신의 자세, 정의평화를 위해 일하는 태도를 가진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젊은이”입니다.

② YMCA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YMCA는 “**역사적 책임의식을 계발하고, 사랑과 정의의 실현을 위해 일하고, 민중의 복지향상과 새문화창조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합니다.

●정치적 측면 : 역사적 책임의식을 계발

- YMCA는 1900년대 초반, 일제치하에서의 민족독립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왔고, 독재군부시대에는 민주화운동에,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시민사회운동을 주도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변화되는 역사 속에서 시대마다 부여되는 책임감을 다하기 위해서 지금도 YMCA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단된 오늘날의 현실에서 청소년YMCA 회원들이 북한의 청소년들에게 보내기 위한

생명평화운동의 리더! |

“통일자전거 모금 캠페인”, 2006년 지방선거 때 청소년들의 의제를 제안했던 “531지방선거 참여운동”,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 확보를 위한 “18세 참정권 확보 캠페인” 등이 이런 측면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사회적 측면 : 사랑과 정의의 실현을 위해 일하고

- 우리 사회는 사랑과 정의가 넘치는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살기 좋은 평화로운 사회여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소외받고 살아가거나 억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통을 우리가 모른 채 살아간다면 과연 그런 삶이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YMCA 회원들은 주위의 고통을 동감하고 함께 나누기 위한 여러 자원봉사활동과 사회참여운동, 교육 및 제도개혁운동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경제적 측면 : 민중의 복지향상과

-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발전의 논리로 돈이 돈을 낳는다고 하죠..!!!

도시에 살거나 농촌에 살거나, 장애를 갖고 있거나, 노동자로 일을 하거나, 집이 부자이거나 가난하거나 누구나 더불어서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기회를 갖을 수 있어야 합니다.

YMCA는 나누며 살 수 있는 사회,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사회, 마음이 부자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문화적 측면 : 새문화 창조에 이바지

- 얼마 전 어느 지역의 청소년YMCA에서 발렌타인데이에 초코렛을 주고받는 것이 아닌 사랑의 마음을 주고받는 문화에 대한 토론과 캠페인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다른 친구들이 다 하니까 그저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YMCA에서는 젊은이들이 주체가 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또 전통적으로 물려받은 권위적 문화, 가부장적 문화 등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의 시각으로 새롭게 조명해보고 대안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③ YMCA는 어떤 방식으로 운동을 하나요?

YMCA에서 운동하는 방식은 “함께 배우고 훈련하며” 진행됩니다.

YMCA는 혼자서 활동하는 곳이 아닌 나의 뜻이 맞는 사람들, 친구들과 “함께” 활동하

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소년YMCA 동아리를 만들기도 하고, 지역사회에 다른 청소년 단체들과 연대하기도 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이해하기 어려워하시는 어른들을 설득해서 함께 활동하기도 합니다.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새로운 가치와 방식, 문화를 배우고 훈련하기 위해서 토론도 하고, 강연도 듣고, 연구/조사도 합니다. 반대만을 위한 비판을 하기 보다는 “대안”과 “새로운 가치”를 교육하고 제안하는 것이 YMCA가 다른 시민단체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④ 그래서 결국 YMCA의 목적은?

자.. 그래서 YMCA의 목적은 결국 무엇인가요?

목적문에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려는 것”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요?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고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살기 좋은 사회, 여러분이 희망하는 평화로운 사회는 어떤 모습인가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주위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어 보세요...

그것이 YMCA의 시작입니다..^^

★ 내가 상상하는 평화로운 사회는? 우리가 희망하는 사회는 어떤 곳인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주위 친구들과도 의견을 나누어 보세요..^^

4) 청소년YMCA 회원들이 알아두면 좋을 또 한가지 중요한 선언문!

YMCA가 목적문이나 선언문을 제정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YMCA가 가진 운동정신을 그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맥락에 맞게 해석하고 운동과제를 새롭게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파리기준과 캄팔라원칙을 오늘의 시대에 맞게 재해석한 선언문이 **도전21(Challenge21)**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파리기준, 캄팔라원칙, 한국YMCA 목적문과 비교해서 ①누가, ②목적 : 왜 ~~ 때문에, ③방법 :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측면에서 같은 점이 있는지 다른점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읽어보세요.

도전21(Challenge21)

『도전 21』은 새 천년에 예상되는 구체적인 필요와 가능성에 의거하여 YMCA가 감당해야 할 책임을 의미한다. 『도전 21』의 잠재적인 의제 및 기본방향은 YMCA를 광범위한 사회적 상황과의 연관성 속에 자리매김케 한다. 『도전 21』은 의식적으로 목적문이라고 명시하지 않았다. 목적문은 이를 모색하는 더 계속되는 과정의 결과로서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때까지 당분간 우리는 <파리 기준>을 YMCA목적문의 근거로 유지하면서, 『도전21』을 현시대에 YMCA사명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기 위한 진일보한 문서로서 이해하고자 한다. 현시대가 더욱 복잡해짐에 따라 우리는 시대의 부름에 응답하는 동시에 우리의 근거에 더 깊이 뿌리내릴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천년을 맞이하는 지금,

우리는 1855년에 채택된 파리 기준이 YMCA사명의 근간임을 확인하면서, YMCA가 청년들의 진정한 참여를 강조하는, 여성과 남성 모두를 아우르는 기독교운동이며, 에큐메니컬 정신에 기초한 자발적인 운동임을 선언한다. 또한 YMCA는 모든 피조물이 충만한 삶(fullness of life)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의에 기초한 사랑과 평화 그리고 화해의 인간공동체를 건설하려는 기독교적 이상을 나누기 위해 애쓸 것이다.

그러므로 각각의 YMCA는 각자가 처한 고유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우선적으로 제기되는 도전들에 초점을 맞출 것을 요청받는다. 1973년에 채택된 캄팔라 원칙을 발전적

으로 계승한 이러한 도전들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며, 개인의 영.지.체적 안녕과 건강한 공동체 형성을 위해 일한다.
2. 모든 사람들, 특별히 청년과 여성들이 더 큰 책임을 맡고 모든 영역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들의 역량을 키우고, 형평성 있는 사회를 위해 일한다.
3. 여성의 권리를 옹호하고 복돋우며,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킨다.
4. 신념과 이념이 다른 사람들 간에 대화와 파트너십을 증진시키고, 문화적 정체성을 인정하며, 아울러 문화적 갱신(cultural renewal)을 촉진한다.
5. 가난하고 착취당하며,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과, 인종적, 종교적, 민족적으로 억압받는 소수자들과 함께 연대하여 일한다.
6. 분쟁이 있는 곳에서 중재자와 화해자의 역할을 추구하고, 모든 이들이 자기결정력(self-determination)을 갖기 위해 의미있는 참여와 진보(advancement)를 할 수 있도록 일한다.
7. 하나님의 창조물을 파괴하려는 모든 것으로부터 피조물을 보호하며, 미래세대를 위해 지구의 자원을 보존하고 보호한다. 이러한 도전에 응전하기 위해 YMCA는 모든 단계에서 자기 스스로의 존속(self-sustenance)과 자결(self-determination)을 가능케 하는 협력의 패턴을 개발할 것이다.

- 1998년 독일 프레헨, 제14차 세계YMCA 대회에서 채택-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목적문을 갖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활동하는 청소년YMCA 목적문이 있나요? 혹시 갖고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의 시대에 맞게 재해석해 보시고, 없다면 회원들과 함께 목적문을 만들어 보세요.

아! 목적문을 먼저 작성해본 선배들의 제안은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문장으로 서술하면 더 좋대네요~ ^^

● 청소년YMCA _____의 목적문

생명평화운동의 리더! |

청소년YMCA _____는

을/를 목적으로 한다.

4) 청소년YMCA 목적문

청소년YMCA목적문

청소년YMCA는 젊은 예수를 본받아 맑은 영과 넘치는 지혜와 건강한 몸을 가꾸는 공동체로서 학교와 가정과 사회에서 사랑과 정의의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YMCA 목적문처럼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① 누가 : 젊은 예수를 본받는 청소년YMCA 회원들이

젊은 예수는 항상 어린 아이들과 어울렸고, 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의 아픔을 공감해 주고, 사회적으로 무시당하는 사람들과도 함께 하며 위로해주신 분입니다. 젊은 예수를 본받는다라는 것은 이 땅에 사랑과 정의를 실현하고자 했던 예수의 뒤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청소년YMCA 회원들이 자신들의 취미활동이나 친목모임만으로 YMCA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소외받고 가난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대한민국 청소년의 대변자로서의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 실천한다면’ 젊은 예수의 뒤를 따라 산다고 할 수 있겠지요?

② 무엇을 위해서 : 학교와 가정과 사회에서 사랑과 정의의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 대부분이 주로 생활하고 있는 삶의 터전인 학교, 나와 타인과의 관계가 처음 시작되는 가정, 활동의 근간인 지역사회에서 ‘사랑과 정의의 아름다운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청소년YMCA 활동은 우리의 생활세계를 바탕으로 활동과제가 제안되어야 합니다.

청소년YMCA가 상상하는 사랑과 정의의 아름다운 세상의 모습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과제들은 3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③ 어떻게? : 맑은 영과 넘치는 지혜와 건강한 몸을 가꾸는 공동체로

청소년YMCA는 이웃들의 기쁨과 슬픔에 공감하는 맑은 심성을 바탕으로 세상의 옳고 그름을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지혜와 건강한 몸을 가꾸는 활동을 ‘공동체’를 이루어 진행합니다.

1-3. YMCA의 기구와 조직

1) YMCA 회원조직

YMCA운동의 기본 조직단위는 자발적인 소모임 및 회원 조직입니다.

초기의 YMCA는 선교의 목적의식을 지닌 청년들의 자발적 결사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자발적 결사체가 세계적인 차원의 운동으로 발전하게 된 것으로 이는 1914년 한국 YMCA전국연맹 (당시 조선기독교청년회연합회)가 구성될 당시 9개의 학생YMCA(청년조직)과 1개의 시청년회(황성기독교청년회)가 연대하여 연맹을 구성한 것만 보더라도 잘 알 수 있습니다.

▶ YMCA회원이 되려면

YMCA 목적에 찬동하고 이를 지지, 협력하고자 하는 이는 인종, 연령, 종교나 신념, 직업, 정당에 구애됨 없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 YMCA회원이 되면 (회원의 권리와 책임)

YMCA운동은 근본적으로 선교적, 역사 창조적 책임의식을 가진 회원 한사람 한사람에 의해 성립됩니다. YMCA의 회원이란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라 YMCA운동 전체에 대한 책임적인 '주인됨'을 의미합니다.

YMCA 회원이 된다는 것은 생명, 평화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실천하려는 YMCA 운동목적에 찬성하여 이에 동참하는 일이며, YMCA의 주인으로서 회원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YMCA의 재정적, 정신적 후원을 담당하는 일입니다.

이런 회원조직들은 각 연령층 및 활동영역에서 다양하게 조직되고 있습니다.

연령별	활동영역별	기타
-청소년YMCA	-생협등대모임	-각종 자원봉사자 모임
-대학YMCA, 대학생클럽	-녹색가게 자원봉사자모임	-국제와이즈멘 클럽
-어린이YMCA 클럽	-생태안내자모임	-각종 위원회, 이사회 등
-청년YMCA 클럽 등	-소비자상담 자원봉사자모임	
	-체육 및 문화클럽 등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YMCA회원 입회원서에 서명날인하고 본인에게 알맞은 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2) 회원총회

회원운동체인 YMCA의 최고 기구는 '회원 총회'입니다.

회원 총회는 사업 및 재정보고, 이사 및 감사 등 회원대표의 선거, 헌장개정 및 주요 안건 처리의 기능을 갖습니다. 현장에 의해 시청년회에서는 <정기총회>가 1년에 1회 진행되고, 62개 YMCA(2006년 기준)의 연대체인 한국YMCA전국연맹에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한 가맹 시청년회에서 파송한 대의원들에 의해 2년에 1회씩 <전국대회>가 진행됩니다.

2006년에 제 38차 한국YMCA전국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3) 이사회

이사회는 회원들이 선출한 '회원 대표들의 구성체'로서, YMCA의 관리 운영을 책임집니다. 이사회의 주요기능은 사업계획, 예산과 결산, 자산의 관리와 유지, 사무총장 및 간사의 임명, 법률상 책임의 수행 합니다.

청소년YMCA의 회원대표는 '당연직 이사'로 이사회에 참여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4) 위원회

위원회는 회원, 재정, 프로그램, 시민사회개발, 청소년, 선교위원회 등 YMCA의 기구 운영 및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위원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토대로 사업추진에 관해 조언하고 전문지도력과 공동으로 운동에 참여합니다.

5) 전문지도력

YMCA는 유지지도력(이사, 위원)과 전문지도력(사무총장, 간사)의 상호협력을 통해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무총장과 간사는 YMCA운동의 실무를 책임지는 전문지도력입니다. 여러분들이 YMCA에서 만나는 "선생님 / 간사님"이 바로 이런 분들이죠.. ^^

6) 시청년회(지역YMCA)

각 시청년회(지역YMCA)는 회원총회와 이사회, 각종 위원회 및 전문지도력의 기구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회원조직으로는 연령별, 계층별, 직종별, 관심별로 구성된 각급

생명평화운동의 리더! |

클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들이 활동하는 지역의 시청년회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소정 절차에 의해 시청년회의 인준을 받습니다. 이에 여러분은 시청년회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YMCA 운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책임과 의무를 갖습니다.

7)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MCA전국연맹은 시청년회들로 구성된 전국운동단체로서 한국YMCA를 대표하는 기구입니다. 연맹은 시청년회간의 단결과 협력을 증진시키며, 전국적인 사업을 계획, 추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는 한국YMCA를 대표하여 아시아·태평양YMCA연맹과 세계YMCA연맹에 가맹하고 있습니다. 한국YMCA는 2006년 현재 62개 시청년회, 회원수 10만명, 2천여명의 전문지도력이 있으며, 전국 회원운동의 연대체로는 청소년YMCA전국대표자회, 대학YMCA전국연맹, 청년YMCA전국연맹 등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http://www.ymca Korea.org>

8) 아시아·태평양YMCA연맹 (The Asia and Pacific Alliance of YMCAs)

아시아·태평양YMCA연맹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27개국 YMCA연맹의 연합체로서 사무국은 홍콩에 있습니다.

▶홈페이지 <http://www.asiapacificymca.org>

9) 세계YMCA연맹 (The World Alliance of YMCA's)

세계YMCA연맹은 세계 124개국 YMCA연맹의 연합체로서 사무국은 스위스의 제네바에 있다.

▶홈페이지 <http://www.ymca.int>



| YMCA 정장



| YMCA 약장



| YMCA 세계장

2. YMCA와 에큐메니컬 운동

① YMCA의 (는 "Unit"이라는데 저는 교회에 다니지 않거든요? 그럼 YMCA 활동을 할 수 없는 건가요?
 ② 저희 동아리 모임에는 예배를 하지 않는데 전교회나 전체모임에 가면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보거든요?
 그럼 저희 동아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건가요?

YMCA는 그 목적문에서도 확인했듯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조직체입니다. 즉 기독교운동체인 것입니다. YMCA가 이야기 하는 “기독교”란 무엇일까요?

짧은 이 책안에 깊은 설명을 담을 수는 없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해석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1. 기독교와 YMCA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널리 퍼져있고, 유럽의 문명발달에서 기독교를 제외할 수 없을 만큼 문화적 의미가 중요한 종교이지만 처음에 기독교는 공개적으로 믿을 수 없었던 종교였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성서와 예수를 통해 전파하는 복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의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등 소외된 사람들의 해방과 구원의 메시지였고, 작은 예수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평등한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급속하게 낮은 자, 소외된 자, 차별받는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어 갔고, 이를 위협으로 여긴 국가(당시 로마)권력 및 기득권층은 기독교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전파를 막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성서에 마태복음 5장 3절~11절 (표준새번역)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생명평화운동의 리더! |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고통으로 인해 슬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 자비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비난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복”이 있다고 하니 권력을 가진 사람, 부자인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 소외시키는 사람들, 정의와 평화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얼마나 위협적이었을지 상상이 가시죠? ^^

2-2. YMCA와 에큐메니컬 운동

기독교를 믿고 따르는 시민들이 급속하게 증가하다보니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여 기독교를 종교로 인정하기 까지 312년간을 지하에 숨어서 몰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숨어서 예배를 드리다보니 기독교간의 교류가 부족했고, 선교보다는 자신의 신앙을 쌓는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밀라노 칙령이후 세상으로 나오다보니 이제는 비 기독교인을 향해 선교도하고 실천도 하기에는 같은 기독교간의 선교의 형태, 예배의 형태, 구제의 형태가 서로 달랐고, 자신의 형태가 맞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소집하여 교회의 교리를 서로 논의하고 선교의 형태, 예배의 형태, 구제의 형태를 일치하도록 노력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에큐메니컬”이라고 불리며 이를 논의한 니케아 공의회가 첫 에큐메니컬 공의회였습니다.

에큐메니컬(Ecumenical)이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온 누리’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오이쿠메네(Oikoumene)’에서 파생된 말로서 ‘전 세계적인 교회(World-Wide Christian)’를 의미합니다.

새로운 세계, 새로운 인류로서 교회, 민족적, 국가적 구별을 초월한 인류의 새로운 공동체를 지향하는 말입니다. 오늘의 에큐메니즘은 그리스도교 세계의 일치 뿐 아니라 더 큰 의미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전 세계의 일치, 전 인류의 일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YMCA가 “생명평화운동”을 통해 전 지구상의 인류와 자연의 생명을 살

리고, 전 세계의 평화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실천운동은 에큐메니컬운동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요? (나만 그런가? ㅋㅋ)

세계YMCA의 역사 속에서도 세계YMCA운동의 중심체가 될 세계YMCA연맹의 형성을 가능하게 했던 1855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요 구세주를 믿는다”의 파리기준이 1859년 세계학생기독교연맹(WSCF), 1898년 세계여자기독교청년회연합회(World YWCA), 1927년 세계교회협의회(WCC) 현장의 기준이 되었다는 점에서도 YMCA는 에큐메니컬운동의 주요한 근간입니다.

2-3. 청소년YMCA와 에큐메니컬 운동

청소년YMCA는 YMCA 회원으로서 책임감과 자긍심을 가진 회원조직입니다. 이는 YMCA의 에큐메니컬운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집단이어야 한다는 의미도 됩니다. 즉, 비록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생명과 평화가 넘치는 정의로운 사회건설**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는 에큐메니컬운동 속에서 청소년YMCA운동은 또래의 청소년들이 공동체적인 삶을 통해 **사랑, 정의, 평화, 봉사, 용서 등 기독교적인 입장을 지니고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살아갈 수 있도록** 실천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의 공간인 학교와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 속에서 정의로운 시각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눈과 지혜롭고 슬기롭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책임감과 자세를 갖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꼭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

음... 예배를 교회에 찾아가 드리는 정해진 예식,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청소년YMCA회원임을 고백하고, 회원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의식, 혹은 축제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역사적으로도 예배는 본래 '부활의 축제'였습니다. 초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는 의식으로 시작된 것이 오늘의 예배입니다. 부활 사건 자체도 역동적 사건이었거니와 그것을 축하하는 예배 자체도 역동적인 것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는데 당연히 역동적이었겠지요?) 그런 축제적인 예배의 성격이 오랜 역사를 통해서 '의식'이 되고 '예전'이 되면서, 원래의 역동적인 성격이 희석되거나 퇴색된 셈입니다.

생명평화운동의 리더! |

예수님과 소통할 수 있고, 이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면 예배의 유형은 어느 특정한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주체와 장소에 따라 다양하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통문화도 이용해 보시구요, 영상이나 춤, 수화 같은 시청각적이고 비언어적인 메시지도 나누어 보세요. 마음을 담아 노래로 기도해도 좋고, 모두 일어나서 몸과 손발을 마음껏 움직이면서 해도 좋습니다. 예배를 진행하는 순간, 모두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참여하여 나눌 수 있다면 여러분이 만드는 그 어떤 예배도 하나님은 기쁘고 즐겁게 받아들이실 것입니다.

또 YMCA에서는 예배 중에 <주기도문>을 함께 나누지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친구들도 있으니 우선 <주기도문>을 함께 읽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필요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이들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능력과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주기도문 새번역)

주기도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간구와 함께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모습에 이것만큼은 꼭 있게 해달라 (하루하루 먹을 수 있는 양식을 통해 생명을 지켜가고, 우리 죄의 용서를 통해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해져 참 자유에 이르는...)는 간구가 이어집니다.

즉, 함께 주기도문을 외우고 나눔으로서 YMCA 목적문처럼 크리스찬으로서의 우리의 삶의 목적과 자세를 확인하고, 꾸준히 실천할 수 있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청소년YMCA 회원들도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용서할 수 있는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천하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작은 예수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3. 청소년YMCA는 계속되어야 한다. Since 1844~

YMCA의 역사는 사랑과 정의의 실천의 역사입니다.
 즉, YMCA역사는 ‘000년에 0000가 0000 했다더라..’는 객관적 지식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①왜 그 시대에 YMCA가 그런 시대적 소명과 운동과제를 가졌었는지
 ②대안은 무엇이었는지
 ③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협력의 자세와 방식을 취했는지를 살펴보고
 ④오늘날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토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YMCA의 역사가 쭉~~ 계속 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여러분들의 활동을 또 후배들이 지금 여러분들처럼 살펴보고 토론하여 이어나갈 테니까요... ㅋㅋㅋ

3-1. 세계YMCA의 역사

YMCA 운동의 발단은 1844년 6월 6일 영국 런던의 포목점 종업원인 조지 윌리엄스 (George Williams)와 그 일을 같이하는 11명의 청년들이 산업혁명 직후의 혼란한 사회 속에서 자신과 같은 청년들이 정신적으로 방황을 하고 있는 상태를 올바르게 잡기 위한 목적으로 모임을 조직한 것이 YMCA의 시작이었습니다. 그전에 1562년 네덜란드에서 일어난 “성서읽기 운동”, 1628년 파리에서의 “성서 공부 모임”, 1677년 “전심전력으로 그리스도에게 매달리는 모임”등이 YMCA 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런던에서 시작된 YMCA운동이 구미사회에 알려져 확산되는 계기가 된 것은 1851년 5월에 개최된 런던 세계박람회에서였습니다. 런던박람회는 근대산업사회의 출발을 알리는 획기적인 국제행사로 세계 각처에서 1만 5천에 달하는 생산업체가 참가하여 생산품을 전시하였고 6백 20만 이상의 세계인이 참관하는 기록적인 박람회였는데 런던 YMCA 젊은이들이 이것을 최고의 기회로 판단하고 YMCA운동을 알리는데 활동키로 하였습니다.

생명평화운동의 리더! |

다양한 강연회와 35만 2천장의 팸플렛은 YMCA의 존재이유를 전 세계에 알리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런던 박람회가 있는 이후 3년 동안에 YMCA운동은 엄청난 속도로 구미지역으로 확산되었으며 1854년에는 북미주 19개 도시 YMCA대표들이 버펄로에서 “북미 및 영령(英領) YMCA연합회”를 결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844년에 피어난 작으나 의로운 불꽃이 10년 만에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커다란 햇불로 불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1855년 파리에서 YMCA 세계연맹이 결성되었고,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요 구세주로 믿는다”는 원칙이 천명된 파리기준이 채택되었습니다.

유럽에서 북미주지역으로 확산된 YMCA는 1878년 제네바 세계대회에서 세계연맹이 사회를 구성한 이래 전 세계적인 운동으로 급성장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또한 YMCA는 세계 에큐메니칼운동(일치운동)의 총 본산으로서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파리기준의 근본원리는 19, 20세기의 모든 에큐메니칼 운동체의 고전적인 원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운동이 확장되면서 역량 있는 많은 지도자를 배출하였는데, 세계학생기독교연맹(WSCF), 국제선교협의회(IMC), 세계교회협의회(WCC)가 모두 모트(J.R.mott)를 비롯한 YMCA지도자들의 직접적인 지도력과 영향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세계적십자 창설자인 앙리 뒤낭(Henri Dunant)도 YMCA의 초창기 지도자였습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통해 YMCA는 어려운 시련기를 겪으면서 헌신적인 봉사정신을 발휘하며 전쟁포로를 위한 사업과 난민 구호 사업 등을 펼쳤습니다.

1955년 파리 100년제(YMCA 운동 출발 100년 기념식)를 계기로 세계 YMCA는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새로운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고, 1973년 캄팔라 세계대회에서는 YMCA의 새로운 시대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더 큰 사회적 책임과 관심을 강조하기 위해 캄팔라 원칙이 채택되었습니다.

1991년 8월 서울에서 “다함께 가꾸는 창조의 세계”라는 주제로 열린 세계YMCA 대회에서는 YMCA가 부활되고 있는 사회주의권 국가를 포함한 104개국이 참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서울대회에서는 기존 YMCA를 주도하고 있던 서구 중심적 사고가 제 3세계의 경험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려는 탈 서구화 현상이 강하게 투영되었습니다.

현재 YMCA는 각국의 연맹이 대륙의 연맹에 가입하고, 대륙 연맹이 세계YMCA 연맹을 구성하고 있으며, 빈곤과 개발, 평화 교육, 장애인 문제, 환경과 개발, 인종문제, 난민과 이민자 문제, 건강과 보건, 국제협력, 타종교와의 대화, 도시문제 등을 함께 해결하기 위한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3-2. 한국YMCA의 역사

1) YMCA운동의 민족운동사적 맥락

19세기말 조선은 밀려오는 외세에 맞서 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화정치와 쇄국정치(외국에 나라의 문호를 개방하지 않는 정치, 조선후기 흥선대원군이 표방한 정치)를 주장하는 관료들의 치열한 다툼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권의 허약한 틈을 타서 지방의 못된 관리들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백성을 괴롭히는 정치를 하였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 백성들은 스스로 관리들에게 저항하는 민란(백성들이 나쁜 관리들의 횡포에 대항하기 위한 운동, 조선후기 진주민란, 고부민란 등이 유명하고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토대로 갑오농민전쟁 또는 동학농민전쟁이 일어났는데 보국안민의 슬로건을 내건 운동이었으며, 조선후기 우리나라의 진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을 일으키고 정부에서 파견한 관리들을 거부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나라 안의 혼란한 사정을 틈타 프랑스, 영국, 미국 등은 기독교 정신을 전파하기 위한 선교사를 파견하였습니다. 그러나 쇄국정치를 지향한 조선 정부는 선교사를 탄압하고 급기야 외국의 문물을 들여와 국가의 힘을 길러야 한다는 개화파 사람들까지 탄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일본은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면서 명성황후(민비)를 살해하는 등 커다란 위협적 존재로 부각되기에 이르렀으며, 조선은 일본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 외세의 힘에 의존하는 정치를 펼치게 되었습니다(아관파천 : 명성황후 살해 사건으로 고종황제가 러시아 대사관으로 몸을 피신한 것) 그리하여 러시아나 미국, 영국 등 구미 제국과 수교를 맺게 되면서 서양의 문물을 하나 둘씩 받아들이는 무리들이 생겨나기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이들은 일본에 유학한 이들로 일찍이 기독교 세계관을 받아들이면서 한편으로는 일본 세력화를 경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이 바로 윤치호를 비롯한 서재필, 이승만 등 초기 한국YMCA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조선에 파견된 선교사들(언더우드, 아펜젤러 등)은 일찍이 지식층과 청년전도를 위해선 교회와 다른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당시 조선은 신분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고 있었고, 양반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교회 자체를 거부하기보다는 이 신분제도를 수용하지 못해 양반과 천민이 함께 모여 예배 보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였습니다. 또 독립협회 해산 이래 개화 독립운동진영 청년들은 이를 대신할 새 단체의 출현을 갈망했습니다. 이 같은 양측의 인식이 맞물려 1899년 언더우

생명평화운동의 리더! |

드 등은 한국 청년 150여명의 뜨거운 성원아래 그들의 서명 날인을 받아 기독교 청년회관 건축비 보조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뉴욕YMCA 국제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현지 조사를 거쳐 국제위원회는 질레트를 창설간사로 한국에 파견했고 그는 국내 선교사와 각국 외교관 및 실업인들을 모아 회관건립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하여 한국의 YMCA 운동은 1903년 10월 28일 창립된 황성기독교 청년회(지금의 서울YMCA)에 그 공식적인 출발을 두고 있습니다. 실로 독립협회 해산이후 4년만의 일이었습니다. 애당초 YMCA는 기독교사회운동단체였지만 일제의 강압정치가 점차 노골화되는 상황에서 역사적 책임의식을 자각한 다음에야 그 운동은 곧바로 정치적 움직임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황성기독교청년회의 “황성”이란 명칭 자체가 이미 이런 분위기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1897년 대한제국 선포이후 서울은 한성, 황성이라 불렸고 이는 우리나라의 자주와 개화를 상징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창설 5개월만인 1904년 3월 12일 독립협회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이상재, 김정식 등이 석방과 함께 청년회에 집단 가입함으로써 그 성격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YMCA 운동은 이때부터 독립운동의 계승자 구실을 하게 되었고 활동도 한국인 중심으로 변해갔습니다.

2) 학생YMCA운동과 3·1운동의 초기 조직화

1905년 을사조약의 체결 후 많은 애국지사들이 국내외에서 구국운동을 전개하였으며, 당시 민족지도자였던 이상재, 김정식, 윤치호, 김규식 등 독립협회 지도자들과 개화파 지도자들이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YMCA운동에 참여하고 개화자강운동의 선봉이 되었습니다. 1905년 김정식을 총무로 일본 동경에 보내는 가운데 1906년 구국의 일념으로 적국의 수도 동경 한복판에 재일본 한국YMCA를 창립하였습니다. 이 재일본 한국YMCA는 일본에 유학은 청년들의 모임과 토론의 장이요 민족적 단결의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1907년 지금의 종로 현 위치에 3층으로 증축한 기념식에 황태자를 비롯한 일본의 통감까지도 참여하게 된 것은 이 당시 YMCA의 사회적 비중과 일본의 이중적 정치술을 보여줍니다. 이 무렵부터 기술 교육과 함께 유도, 축구, 야구 등 각종 운동 경기도 지도했는데 이 대부분은 한국에서 최초로 보급되는 것이었고, 청년이라는 말도 황성기독교청년회의 명칭이 그 효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반면, 일제총독부는 황성기독교청년회의 왕성한 활동을 탄압하기 위해 1911년 소위 105인 사건을 조작하여 양전백 목사와 상당수의 학생들을 수감하였고, 이 사건으로 김

규식과 이승만은 미국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또한 회원을 매수하여 YMCA를 친일세력화 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일본의 끈질긴 탄압이 다양한 방법으로 YMCA를 압박하였고, 1913년 강압적으로 황성기독교청년회를 ‘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로 개명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세계YMCA 존 모트박사의 내한을 계기로 YMCA의 자주 자립의 정신을 확립해 나가 일제탄압에 굴하지 않고 1914년 4월 10개 YMCA(학생YMCA 9개, 서울YMCA)가 모여 조선기독교청년연합회(현재의 한국YMCA전국연맹)를 출범시키고 우리나라 최초의 야구리그전(1906년부터 1912년까지 일본군과의 야구 경기 전적 61전 60승 1패)을 개최했으며 1916년에는 한국학생기도일을 제정해 보급했습니다.

● 여기서 잠깐! 아시나요? YMCA 야구단... ^^

<근대 스포츠의 보급과 YMCA운동>



▶ YMCA 야구단

우리나라에 본격적인 개념의 스포츠가 자리 잡은 것은 기독교가 들어오면서부터입니다. 첫째는 선교사들이 세운 기독교계 학교에서 실시한 체육교육이며, 둘째는 YMCA가 체육을 사회적으로 저변 확대를 시킨 것입니다. YMCA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전인교육(영·지·체)을 표방한 것이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선교사들에 의해 최초로 설립된 기독교계 학교는 배재학당은 선교사들의 지도아래 스포츠를 과외 활동이나 특별 활동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들 기독교계 학교는 경신학교, 이화학당 등으로 스포츠를 받아들이는데 역할을 하였지만 우리나라에 본격적인 근대스포츠를 보급하고 발전시킨 것은 YMCA였습니다. YMCA는 체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체육부를 설치하고 위원장에 터너, 총무에 질레트를 임명하였습니다.

YMCA가 주최한 경기로는 전조선중학교농구선수권대회, 전조선중등학교배구선수권대회, 전조선야구선수권대회, 전조선아마추어권투선수권대회, 전조선씨름선수권대회, 전조선단체유도대회, 전조선기계체조대회 등으로 거의 모든 종목에 망라하고 있습니다.

조선기독교청년연합회 결성을 토대로 실력배양과 민중계몽에 주력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민족운동을 펼쳐 갔으며, 재일본 한국YMCA는 3·1운동의 도화선인 2·8 독립선언의 산실로서 국내의 독립운동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생명평화운동의 리더! |

3·1운동 독립선언 33인의 민족지도자 가운데 9인(정춘수, 최성모, 오화영, 박희도, 박동완, 이필주, 양전백, 이갑성, 이승훈)이 YMCA 관계 인사였으며, 학생YMCA는 조직과 회원면에서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1920년 윤치호 총무에 이어 부임한 박희도 총무가 회장에 선임되면서 민족 운동에 적극 가담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YMCA는 전국적으로 조직을 더욱 확장하였으며 학생YMCA는 1921년 3월부터 연합회에서 월간 종합잡지인 「청년(靑年)」을 발간, 새로운 사회사상과 기독교 사상을 소개하고 물산장려운동 및 민립대학 설립운동, 민족원론운동, 금주금연운동 등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1920년 이후 국제 활동을 강화, 일제의 식민지 정책을 세계에 폭로하고 1922년 연합회가 일본YMCA의 산하에서 완전히 독립하였으며, 1924년 단독으로 세계YMCA에 가맹하였습니다.

3) 물산장려운동과 YMCA

1922년 민족자결원칙에 입각한 독립의 마지막 기회로 기대를 걸었던 워싱턴 군축회의가 아무런 성과 없이 막을 내리자, 국내의 민족주의자들은 실력양성론을 전면에 내걸고 물산장려운동과 민립대학기성운동을 본격화하였고, 이 가운데 물산장려운동은 1922년 6월 평양 조선물산장려회의의 창립을 시발로 전국 각지로 퍼져 나가며 민족경제 건설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물산장려운동의 깃발을 올린 평양 조선물산장려회의의 창립은 조만식이 총무로 있던 평양YMCA를 근거지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평양 조선물산장려회는 독자적인 회관 없이, 평양YMCA 회관에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선전활동이었는데, 조선물산장려 강연회와 더불어 매년 정월 초하루 음력 설날에 대대적으로 벌인 캠페인이 대표적인 행사였습니다. 조선물산장려 캠페인은 1923년 설날부터 시작되었는데, 해를 거듭하며 평양을 대표하는 명물이 되었습니다. 1923년 설날 선전행렬에는 평양노동연맹회 회원들이 단체로 조선물산으로 지은 옷과 모자 또는 수건에 가죽신 또는 짚신을 신고 행렬에 참여하여 이채를 띠었습니다. 서울에서 물산장려운동을 둘러싸고 '중산계급의 이기적 운동'이라 하여 우파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 사이에 열띤 논쟁이 벌어질 즈음에, 노동자들이 단체로 행사에 참여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물산장려운동이 시민들의 커다란 호응을 받으면서 각지의 특산물과 토산품을 판매하던 상점들이 호경기를 만나 번창하였습니다. 그런데 토산품 애용의 바람이 불어 무명 두루마기와 무명 모자가 유행하여 수요가 급증하면서 일부 악덕 제조업자와 상인들이 엉터리 제품을 만들어 파는 일이 늘어났고, 물산장려회는 이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우수한 제품을 제조해서 소비자에게 염가로 제공하는 협동조합체를 조직하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선물산장려회 안에 생산조합이나 소비조합과 같은 자체의 실행기관을 두지 않는 대신, 평양 시내의 우수한 제조업체와 상점들을 조선물산장려회에 가입시켜 조선물산의 품질과 가격을 관리하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의 청년회와 부인회, 일반 사회단체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엮어 일종의 시민 감시망을 가동하는 한편으로 일상적인 조선물산장려 캠페인을 벌여 나갔습니다.

이렇듯 평양YMCA가 주도한 물산장려운동은 이렇게 오랜 정치적 소외의 경험을 통해 국가권력에 기대기보다 민간사회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의 살 길을 찾아왔던 조선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일대 민족운동으로 발전시킨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4) YMCA농촌사업



이후 한국YMCA는 공업화된 도시 중심의 서구식 보다 한국 실정에 맞는 농촌 중심의 사업을 개척해야 한다는 자각아래 1925년부터 전국적으로 “농민의 경제적 향상, 사회적 단결, 정신적 소생”을 3대강령으로 신영농법 보급과 각종 교육활동을 통해 대규모의 농촌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 농촌지도자 강습회 (1928년)

YMCA 농촌사업은 농민교육, 농촌계몽운동 (1925-1928)에서 협동조합, 농사개량운동(1928-1932),

그리고 농촌지도자양성운동(1932-1937)으로 그 영역을 확장하면서 10여 년간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특히 사업의 중심을 이룬 것은 협동조합운동이었습니다.

그 결과 YMCA농촌사업은 장감 양교파와의 에큐메니칼 사업으로까지 발전하였으며, 1929년 현재 YMCA 촌락 227개, 야학생 10,507명, 협동조합 22개, 농민회 82개, 회원 4128명, 그리고 전국 19개 도시의 농민학교 설립 등 다대한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1927년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독립운동을 위한 협동정신으로서 신간회를 조직하여 범국민적인 민족운동을 주도하기도 하였습니다.

5) 해방이후 YMCA운동 재건의 굵직한

8?15 해방 직후의 혼란과 6?25동란의 큰 시련 속에서도 한국YMCA는 희망과 열정으로 교육사업, 종교사업, 부녀자 구제사업 등을 실시하였으며, 전쟁고아를 위한 소년시설인 삼동소년촌을 난지도에 건립하고 그 외 구호사업 등을 통해 한국YMCA 운동이념

생명평화운동의 리더! |

의 정립과 새로운 사명을 추구하였습니다.

1960년대 전쟁으로 소실된 YMCA회관을 재건(1967)하였고, Y이념과 파리기준의 연구, 현장의 개정 등 기초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특히 1968년부터 다양한 사회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론을 수립하는 장으로써 시민논단 개최, 이념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6) 운동성 회복과 사회적 책임의 각성

7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사회는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개발의 불균형과 사회문제들이 야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사회적 역할과 운동과제를 모색하면서 YMCA 운동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YMCA가 도시YMCA와 농촌YMCA로 구분되어가는 시기였습니다. 1970년대 산업화시기에 전태일 분신 사건과 YH무역의 노동자 파업 등은 산업화의 폐해로 나타났으며 이를 치유하는 프로그램이 전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 복잡하고 다양한 경제관계와 법의 질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피해 계층을 구제하기 위하여 서울YMCA에서 출발한 시민자구운동은 시민중계실이 대표적이었습니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 YMCA에는 운동성 회복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신학적, 기구적 각성이 고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군사독재와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민간사회단체의 역할이 무엇일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에큐메니칼운동 차원에서 ‘개발과 정의’에 대한 신학적, 사회적 성찰이 우선적인 공동관심사로 등장하고, YMCA의 기독교적 주체성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는 등의 안팎의 몇몇 요인들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YMCA는 여러 형태의 노력을 통해 그 운동성과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사회개발사업** : YMCA연맹은 1969년 제 20차 전국대회를 계기로 한국 YMCA에서 사회개발 사업을 모든 것에 우선하는 사업으로 전환해 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사회개발과 YMCA- 전략과 태세”라는 주제로 모인 1971년 제 21차 대한YMCA연맹 전국대회에서는 YMCA가 지금까지의 오랜 “전통적 프로그램의 무거운 짐을 과감하게 팽개쳐 버릴 수 있는 용기”를 발휘할 것을 거듭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21차 전국대회의 결의로 설치된 ‘사회개발 특별위원회’는 ‘시민의식 개발’, ‘지역사회 조직’, ‘직업기술 교육’ 등으로 세부 사업계획안을 작성하고 전국적 규모로 이를 실천에 옮겨 나갔습니다. 이들 사업은 1973년까지 활발히 진행된 후 70년대 중반부터 연맹에 의해 새롭게 착수된 농촌사업에 수렴되었습니다.

● **신학적 자기반성-열린교회로의 전환** : 전 세계적으로 YMCA의 정체성에 대한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 YMCA는 1974년 '목적과 사업연구위원회'를 신설하여 한국 YMCA운동의 "신학적 반성과 그 존재이유를 재규정"하는 이른바 'YMCA 이념추구'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이념추구' 운동의 과정에서 한국 YMCA는 스스로를 하나의 "열린 교회(Open Church)"로 자각하였습니다. 그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한국 YMCA는 1976년 제 23차 전국대회에서 "한국 YMCA 목적문"을 제정함으로써, 1973년 캄팔라원칙 수립 이후 자기 목적문을 가진 세계 최초의 "기독교청년회"가 되었습니다.

● **협력사업과 지도력 양성** : 정체성에 대한 추구하고 더불어 연맹 이사회는 전국의 가맹, 미가맹 YMCA의 연맹부담금을 각 도시YMCA의 전년도 결산의 2%로 책정하여 기부담금 전액을 도시YMCA 회관재건에 충당토록 하는 전국 YMCA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결정하였습니다. 한편 전문지도력 양성과 관련하여 유자격 간사 양성을 위한 체제를 정비하였습니다.

● **YMCA 운동담지체(Movement Constituency) 형성** : YMCA의 운동성과 청년성 회복을 목적으로 한국 YMCA는 70년대 초반부터 운동담지체 형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이 같은 노력은 크게 두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첫번째 범주는 회원운동 차원에서 YMCA의 운동성과 청년성을 담아낼 수 있도록 그 회원구성을 넓게 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그것은 먼저 청년Y의 조직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Y는 30세 이하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각 도시 YMCA내에 결성된 클럽을 기초단위로 하여 도시별 연대조직을 통해 전국조직으로까지 발전하였습니다. 1973년 6월 제 1회 청년Y 클럽전국대회가 열린 이래 청년Y는 성장을 거듭하여 80년대 중반에 이르러 전국대회 참가인원이 천명 수준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대학Y의 경우 1969년 대학사회에서의 '하나의 증언'을 위해 KSCF와 기구적 통합을 되었다가 80년대 이래 폭발적으로 늘어난 대학생인구와 대학세계의 다양화 등 변화된 시대적 상황은 대학선교와 기독교 지도력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새로운 검토를 요청받고 있습니다.

두번째 범주는 YMCA운동론과 운동구성체의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목적과 사업연구위원회'는 몇년에 걸친 'YMCA 운동론' 연구를 통해 앞으로의 YMCA 운동구성체는 전통적인 회원구조로부터 YMCA 시민운동 프로그램에 찬동하고 참여하는 시민들을 지역별, 사안별로 묶어가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민주시민사회운동** : 60년대 말 이래 민주 시민훈련사업, 시민권익옹호운동, 시민캠페인 운동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된 YMCA 시민운동은 80년대에 접어들어 한층 발전하여 YMCA운동을 대표하는 위치로까지 성장하였습니다. 민주시민 훈련사업으로 60년대 말부터 시작되어 전국 주요 대도시 YMCA의 목적



▶외채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자구운동 캠페인

사업으로 퍼져나간 YMCA '시민논단'은 군사 독재하의 통제된 언론이 담아내지 못하는 시민들의 민주여론을 수렴해 나감으로써 시민의 의견을 여론화함과 동시에 그 과정에서 민주적인 시민의 훈련에 기여하였습니다. 부당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권익옹호의 차원에서 전개된 시민중계실 사업은 1978년 서울YMCA에 의해 시작된 이래 전국 주요 YMCA의 '표준목적사업'으로 확산되어 갔고 '시민중계실'사업에서 출발한 시민권익 옹호사업은 80년대 후반에 들면서 한국 YMCA가 전개해 간 포괄적인 시민주권운동의 초석역할을 하였습니다.

1980년대 중반 이래 본격화한 시민캠페인운동은 '외채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자구운동', '교육민주화를 위한 시민운동', '공정선거감시 시민운동', '양담배불매운동', '향락문화추방운동', '물가안정을 위한 시민운동', '환경보전생활 시민운동', '향락과소비추방 시민운동', '청소년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 등 시민사회의 주요 관심사에 대해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고 이를 정책화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전국 규모로 전개되었는데, 시민여론의 커다란 호응은 물론 시민운동체로서 YMCA의 존재를 시민들에게 각인시키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 **농촌사업** : 1974년부터 YMCA 사회개발사업은 농촌운동으로 그 영역을 확대하여 이후 16년에 걸쳐 농촌사업을 시행하였다. YMCA농촌사업은 1) 농민자신들의 이익을 기초로 하는 농민자신의 조직을 확대하는 일, 2) 농민을 의식화하고 그들을 한데 묶을 수 있도록 농민을 교육하는 일을 그 과제로 삼아 3단계에 걸쳐 전개되었습니다. 16년에 걸친 농촌사업을 통해 거쳐 간 농민지도자의 총수는 2,000여명에 달하였는데, 이들이 주축이 된 '전국농민운동총연합회'가 1990년 5월에 탄생됨으로써 한국YMCA 농촌사업은 새로이 탄생된 농민조직으로 이관되어 왔습니다.

● **노동조합 간부교육** : 산업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노동운동이 활성화되고 노동사회의 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게 됨에 따라 한국YMCA는 노동조합 간부교육을 실시할 것을 결정하고 노동 교육부를 신설하여 1988년 1월부터 1991년 4월까지

노조간부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특별사업을 통해 한국YMCA는 도시 중산층을 겨냥한 전통적 사업에서 벗어난 특별한 경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민족 통일운동** : 80년대 후반에 들어 사회의 점진적인 민주화 추세와 함께 통일 문제에 대한 민간차원의 논의도 활성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여타의 분단국들이 모두 통일을 이루어 한국만이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게 되면서 통일문제는 보다 절실한 민족의 과제로 등장하였습니다. 한국 YMCA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의 통일운동과 보조를 함께 하면서 통일운동에 참여해 왔습니다. 그 노력의 핵심은 반세기동안 깊게 패인 남북간의 상호불신관계를 YMCA를 포함한 종교 민간단체들의 노력으로 해소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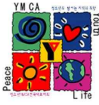
7) 21세기의 도래와 YMCA 생명평화운동

1990년대 들어 YMCA는 지역별로 사회복지시설을 갖추고 시청자 연대운동, 여성지도력개발, 소비자보호운동, 생명문화운동, 어린이농촌학교, 청년학생통일문화한마당, 의정감시운동 등 수많은 운동을 이끌어 왔습니다 이후 YMCA는 각 지방 YMCA의 건설로 이어지면서 다양한 운동을 전개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운동으로 민주시민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의 개설, 교육재정 6% 확보를 위한 운동(교육자치와 교육개혁을 위한 시민회의 사무국), 녹색가게운동, 공명선거 정착을 위한 공선협치의 주도적 참여, 청소년 수련시설 및 사회복지관의 적극적 위탁 운영 참여, 청소년 어울마당을 비롯한 건전 청소년놀이 문화 보급 운동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YMCA의 이념과 운동 전통을 계승하기 위한 복원 운동이 활기를 띠기 시작하는데 진주YMCA의 학생사회개발단 운동의 전개, 대학YMCA의 부활, 고교Y 하령회 복원 운동(1997년), 전국 청소년YMCA동령회를 통한 전국 청소년YMCA 회원대표체계 구성(2006) 등이 대표적인 예이며 지금 현재도 이러한 활동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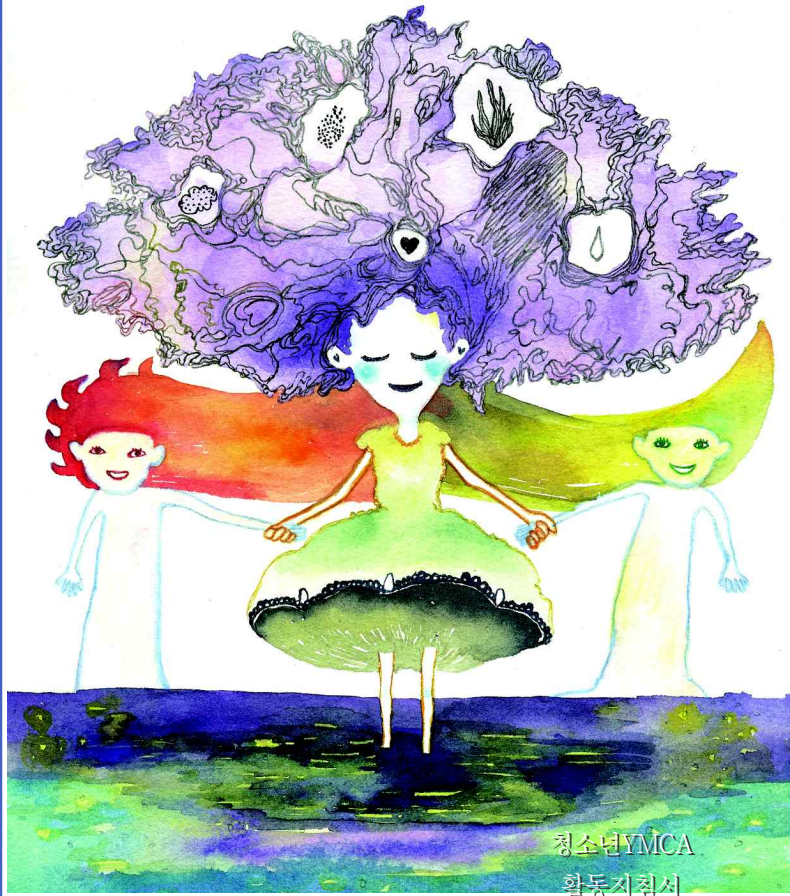
기독교사회운동체로서 탄생한 YMCA는 다양한 사회의 변화가 보다 건전한 방향으로 진척될 수 있도록 시민의 자율적 역할을 신장시키고, 민주적이고 공동체적인 삶의 양식을 정착 시키는 시민문화운동을 더욱 광범위하게 전개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족의 평화적 통일과 민주화의 정착 등 민족적 과제에도 적극 참여하여 역사의 주변에 머물지 않고 한가운데서 민족의 진로를 창조적으로 열어가는 소명을 받고 있습니다. 21세기의 패러다임의 변화와 도전에 발맞춘 “생명평화운동”도 주요한 과제로 요청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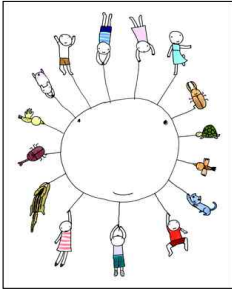
Chapter. 셋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대한민국 청소년이 되기 위해...



청소년YMCA
활동지침서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대한민국 청소년이 되기 위해



여러분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다섯 단계(여섯 명)만 거치면 다 아는 사이'라는 말은 누구나 한번쯤 보셨을 것입니다. 이 사실이 네트워크 이론의 출발점입니다. 정말일까요?

우리나라에서도 방송을 통하여 실제 실험하는 것까지 방영이 되었고 확인 되었을 만큼 인간의 네트워크란 그렇게 좁은 것일까요?

네트워크란 거미줄과 같은 망, 연결, 컴퓨터, 인터넷 등의 다양한 의미를 연상시킵니다. 하지만 사회학적으로 네트워크란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개인 또는 조직 간에 상호작용과 자원을 교환하는 사회적 체계를 이야기합니다.

네트워크 활동은 우리가 살고 있는 on-off-line의 공동체 속에 존재하는 인간과 인간, 단체와 단체 사이를 연결하는 무수히 많은 수단을 통한 의미 있는 연결과 이를 이용한 커뮤니케이션과 활동을 의미하며 청소년YMCA 네트워크 활동은 이를 통한 청소년의 '목적 있는 사회참여'를 의미 하는 것입니다.

네트워크 활동에는 다양한 모양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모델을 제시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한 누가 제안하고 먼저 만든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네트워크 활동의 모형은 지역의 특성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과 방법 등 다양한 여건에 따라 조금씩 변형되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Chapter3.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대한민국 청소년이 되기 위해>를 통해서 각 청소년YMCA 회원 및 YMCA동아리간의 다양한 네트워크 활동 활성화는 물론 각 지역사회 및 한국사회, 국제 사회의 불합리한 사회 현상을 드러내고 알리는데 힘을 모으고 이를 해결 개선 할 수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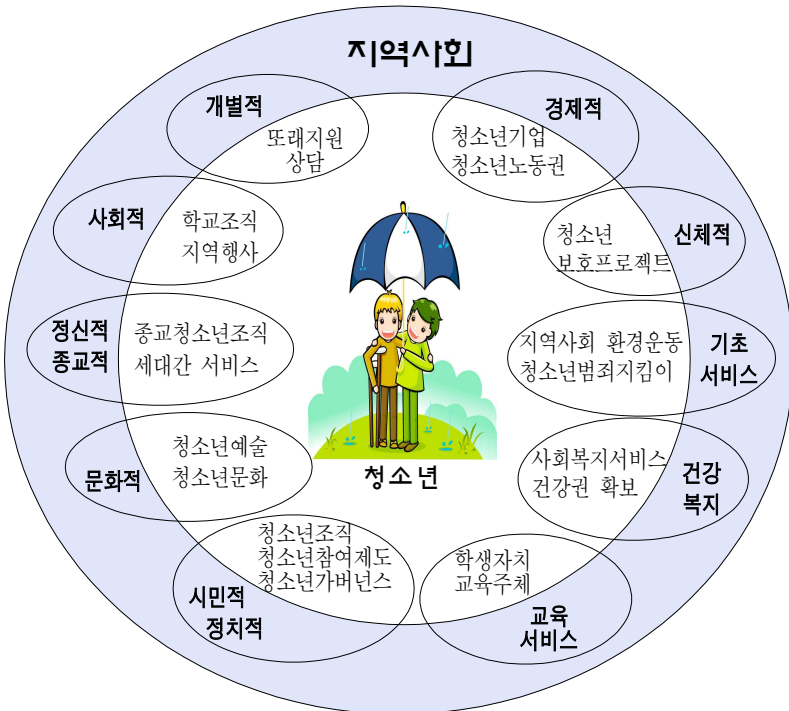
청소년YMCA 동아리가 성공적인 네트워크 활동을 준비한다면

- ① YMCA 목적과 이념에 잘 맞는 주제인지
- ② 청소년 동아리 구성원의 이해와 의지가 충분한지
- ③ 청소년YMCA 동아리의 활동 역량에 적합한 주제인지
- ④ 목적을 위해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 유지하기 위하여 함께할 개인 및 단체가 있는지 우선 살펴보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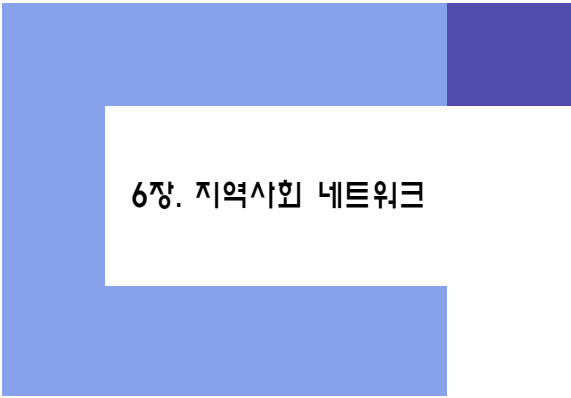
생명평화운동의 리더! |

청소년YMCA 네트워크 활동의 목적은 디지털 사회의 청소년이 더 이상 사회의 주변인으로 머무르지 않도록 on-off-line 및 mobil등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활용하여 분명한 목적을 전달하고 사회에 참여하도록 촉진하는 다양한 활동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청소년이 보이는 지역사회' 를 위해 알아두면 좋을 지역사회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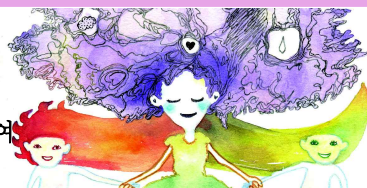
- 7) **청소년이 보이는 지역사회** : 청소년이 평화롭게 성장하고 자신을 가꾸며 학습할 수 있는 권리가 명문화 되고, 청소년과의 파트너십이 제도화되며, 청소년의 참여가 공식화 되는 지역사회. 청소년이 시민사회 일원으로 활동하고 인정받는 지역사회



6장. 지역사회 네트워크

6장. 지역사회 네트워크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청소년 사회참여



오늘 아침에도 잠자리에서 일어나 바쁘게 준비하고 집을 나와 학교로 학원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일상의 생활을 합니다. 나의 가정과 학교가 있는 곳 ‘지역사회’ 속에는 체계가 잘 갖추어진 시스템, ‘가족’, ‘학교’, ‘교통수단’, ‘학원’, ‘도서관’ 등 각기 모양과 크기가 다른 시스템이 모여서 지역사회를 이루고 동, 읍, 군, 시, 도 국가라는 커다란 국가 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지역사회는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네를 중심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 청소년 네트워크 활동의 목적을 청소년의 사회 참여를 촉진 시키는 다양한 활동이라고 정의할 때 우선적으로 이해하고 준비 하여야 할 것은 지역사회와 청소년의 사회참여란 무엇인가? 지역사회 청소년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와 방법, 이와 같은 활동의 실제 예를 활용한 설명일 것입니다.

네트워크를 이야기 하지 않더라도, 누구는 “연합을 뚫는다”라고도 하고 어떤 동아리는 “대면식”을 열심히 하기도 합니다. 이런 표현, 이런 활동은 모두 네트워크의 아주 작은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합을 뚫고 대면식을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기 마련이지요. 더 많은 (이성) 친구들을 사귀기 위해서 다른 동아리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혹은 선배들이 늘 해왔던 것이기에 우리는 이런 활동을 해 왔습니다. 이런 목적, 이유도 네트워크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청소년 YMCA 회원들이 네트워크를 할 때는 이러한 이유 이외에도 고려해야 할 것들이 더 있습니다.

먼저 이 네트워크가 우리 동네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활동을 하다보면 때때로 청소년을 지나치게 내세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청소년이 우리사회에서 보호받아야 할 약자이기는 하지만 청소년이 가진 매력은 언제까지나 청소년으로 머물러 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성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여성이고 자신이 성을 선택할 수 없습니

생명평화운동의 리더! |

다. 이주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이고 장애인의 경우도 자신의 객관적인 처지를 완전히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전체 지역사회를 아울러서 말할 줄 알아야 하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서는 청소년이 희망이고 비전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활동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겸손하면서도 좀 더 넓은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는 것을 잘 표현해서 지역사회의 믿음을 얻을 수 있어야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어른들과도 동등하게 네트워크 할 수 있고 그 네트워크가 지역사회에서 인정을 받아서 활동도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트워크를 하는 방식은 정말 다양합니다. 핸드폰을 통한 유선통화, 문자 메시지, 싸이질, 버디나 네이트온, 메일, 오프라인 상에서의 회의나 토론회 등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우리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누구와도 협력할 수 있고 누구와도 함께 활동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동의하고 함께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1. 지역사회와 청소년의 사회참여란 무엇인가 ?

지역사회란 한 지역의 일정한 범위 안에서 태어나거나 살고 있는 지역을 근거로 하는 사회적인 연고 관계로 자연적으로 이루어져 동일한 문화와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사회를 말합니다. 어원적으로도 지역사회(Community)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용어로 Communis에서 Com(함께)과 munus(봉사한다)의 합성어입니다.

즉, 모두가 같이 한다. 모두가 공동으로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과거 농경 사회나 초기 산업화 사회에서 성장한 기성세대나 과거의 청소년에 비하여 정주의식 및 애향심이 이전 사회와는 다른 현재의 청소년들의 입장에서는 '현재 본인의 주거지를 기준으로 일반적인 하루의 일과가 이루어지는 지역'이라고 정의 하는 것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는 문화, 경제의 공동체성 이외에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집단의 의미를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구성원 사람들 간의 관계이며 소속감과 집단 내 역할에 대한 의무감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농경 사회부터 초기 산업사회를 거치는 동안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는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와 의지에 의하여 확대되었다고 보기보다는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른 사회 문화의 변화, 정치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수혜적으로 확대 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보화 시대, 민주화시대를 살고 있는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는 주도성과 주체성을 가지게 되었으며 인터넷과 핸드폰을 통한 의사소통 수단의 발달로 속도는 점차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둘러싼 가장 큰 공동의 관심사는 교육을 통한 성장과 좋은 직장으로 귀결됨으로 주도적 사회참여의 여건은 성숙되었으나 생산적 사고보다는 소비적 사고를 지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성세대의 훈육 방식도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한 여건의 마련에 있지 다양한 관심을 유발하는 사회적 경험을 폭넓게 보장하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때로는 자발성을 가지고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 개인 및 단체가 있으나 교육제도와 학교 시스템 안에서의 청소년과 학생을 구분 하는 문제 등과 관련하여 목적의 제한성을 가지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년YMCA 동아리의 사회참여는 지역YMCA를 가장 중요한 네트워크 자원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 내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진행함에 있어서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부족한 것을 채워 나아가는 것부터 시작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하며, 다양한 지역의 어려움을 청소년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보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2.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 ?

장애인 편의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한 장애인 단체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장애인이 휠체어나 목발을 집고 이동하기에 불편하지 않다면 정상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얼마나 더 편하겠습니까?”

지역사회의 문제는 단순히 지역 내부에 제한된 문제가 아니고, 국내외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습니다. 청소년의 문제는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다양한 영향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지역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목적을 함께 할 수 있는 개인 및 단체의 참여가 가능한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몇몇 동네에는 “RED ZONE”이라는 것이 있어서 청소년들이 통행할 수 없는 특정 구역이 있습니다. 사실 RED ZONE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유흥업소 등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 RED ZONE은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시킨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동네에서 여성의 성을 사고 파는 일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면 이것은 청소년에게 뿐 아니라 어른들에게, 그 구역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어떤 어른들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한 업소가 장사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만 업소의 존재 자체가 불법인데다가 그 이유가 사람을 사고 파는 장사라면 청소년이든 누구든 반대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이익이 얽혀 있어서 청소년들만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어른들, 다른 단체의 청소년들과 네트워크 할 필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네트워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그 구역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적”으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모두 한동네에 사는 이웃이지만 지금은 서로 생각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끊임없는 대화와 설득, 가장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가겠다고 서로 약속하고 활동을 전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네트워크는 지역적으로 제한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다른 지역의 단체 심지어 다른 나라의 유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도 네트워크의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교통, 통신 및 정보기술이 고도로 발달하고, 국제관계가 긴밀히 전개되는 사회에서는 외부의 적용 가능한 자원을 잘 탐색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 우리가 매일 타고 다니는 버스나 지하철 열기 왕성한 젊은 청소년들이 불편하고 힘들면, 장애인이나 어린이 노약자는 얼마나 힘들까요?
- 학교에서 먹는 먹거리는 좋은 재료일까요?
- 손에서 잠시라도 떨어져 있으며 허전한 핸드폰의 요금을 적당한 것일까요?
- 누구나 입는 교복의 가격은 적당한 것일까?
- 버스요금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적당한 것일까요?
- 우리 지역에서 청소년이 이용 할 수 있는 청소년 전용 시설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적당한 수준인가요?
- 우리 지역의 청소년 정책은 다른 지역의 청소년 정책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런 다양한 관심은 여러 가지 해결을 위한 목적을 만들게 되고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자원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청소년 뿐 아니라 이 문제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입장을 존중받게 되고 이를 통하여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 이런 사람들의 참여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 네트워크는 개선하고자 하는 문제를 공동으로 인식하고 생각과 신념을 공유하고 인터넷과 통신 기술로 연결된 수평적 모형의 조직으로 유연하고 의사 결정 및 표현에 있어 민주적 방식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네트워크라는 말은 어떤 핵심, 주도적인 세력, 힘의 지배 이런 것을 거부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트워크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민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근본정신으로 하기 때문에 대장이 누구인지 세력을 장악한다든지 이런 마음으로는 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동아리가 더 잘한다든지 더 목소리가 크다든지 이런 경쟁을 해서는 마음먹은 일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네트워크를 할 때는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 단체들의 상황과 하고 싶은 일이 모두 논의되고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모인다고 해서 다 좋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외되는 사람도, 단체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수준에 관계없이 다 함께 공들여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생명평화운동의 리더는 이런 지혜를 잘 짜낼 수 있는 리더를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평화운동의 리더! |

그래서 청소년YMCA회원들이 누군가와 혹은 어떤 단체와 네트워크를 하고자 할 때는 그 단체나 사람이 추구하는 바, 목적하는 바가 우리의 것과 얼마나 비슷한지 먼저 살펴보고야 하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어느 정도 함께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네트워크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서 이 네트워크가 무엇을 할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 토론해야 합니다. 이때는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먼저 우리는 마음속에서 서로가 가진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일겠다는 결심을 단단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가슴 깊이에서부터 존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성별이나 나이, 회원 수나 활동 경력 이런 것으로 상대방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덜 가지거나 더 가지거나 해서 안 됩니다.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개인과 단체는 서로를 깊이 신뢰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네트워크를 성공적으로 성립시키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네트워크가 계획한 활동을 함께 진행한 후에는 활동에 대한 평가도 다 함께 하면서 앞으로도 이 네트워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토론해야 합니다. 이때에도 서로 잘잘못을 따지고 프로그램을 세세히 들여다보기보다는 네트워크가 애초에 목적했던 바를 어느 정도 달성 했는가 또 개별 단체와 개인에게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를 먼저 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좋지 않았던 점, 개선해야 할 점을 논의해야 하는데 이때에도 부족한 점을 고쳐갈 수 있다는 신뢰와 희망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함께 생각해 볼 것

- ① 다른 동아리가 추구하는바, 목적하는 바가 우리 동아리와 얼마나 비슷한가
- ② 네트워크를 원하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함께 진행할 과제가 있는가
- ③ 서로의 차이와 다양성일 인정하겠다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있는가
- ④ 공통의 활동을 진행하기 위한 책임감이 있는가 (이름만 함께하는 것은 아닌지..)
- ⑤ 공통의 활동을 평가하여 부족한 점은 고쳐가겠다는 신뢰와 희망이 있는가

네트워크의 원리를 흡수한 조직들의 활동은 수직적 위계제도에 바탕을 둔 기존 사회 시스템, 국가, 국제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협력 할 수 있는 다양한 모형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의사소통 및 결정의 방향이며 이를 통하여 청소년이 생물학적(연령적)으로 가지고 있는 참여의 제한성 또한 극복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형성된 네트워크 조직은 외부 공격에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와 이에 따른 목적과 생각의 공통성의 변화에 따른 내적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참여가 미약했던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면 자기들의 참여 범위나 지금까지 행사해왔던 권리가 줄어들었다고 착각하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는 참여할 수 있는 분야 자체를 넓혀 나가는 것이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에서만 우리의 참여 권리를 주장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아무도 장애인의 보행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장애인의 권리”라는 완전히 새로운 분야라는 것입니다. 또 18세 참정권의 경우에도 18세 청소년이 선거에 참여하게 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잘 설명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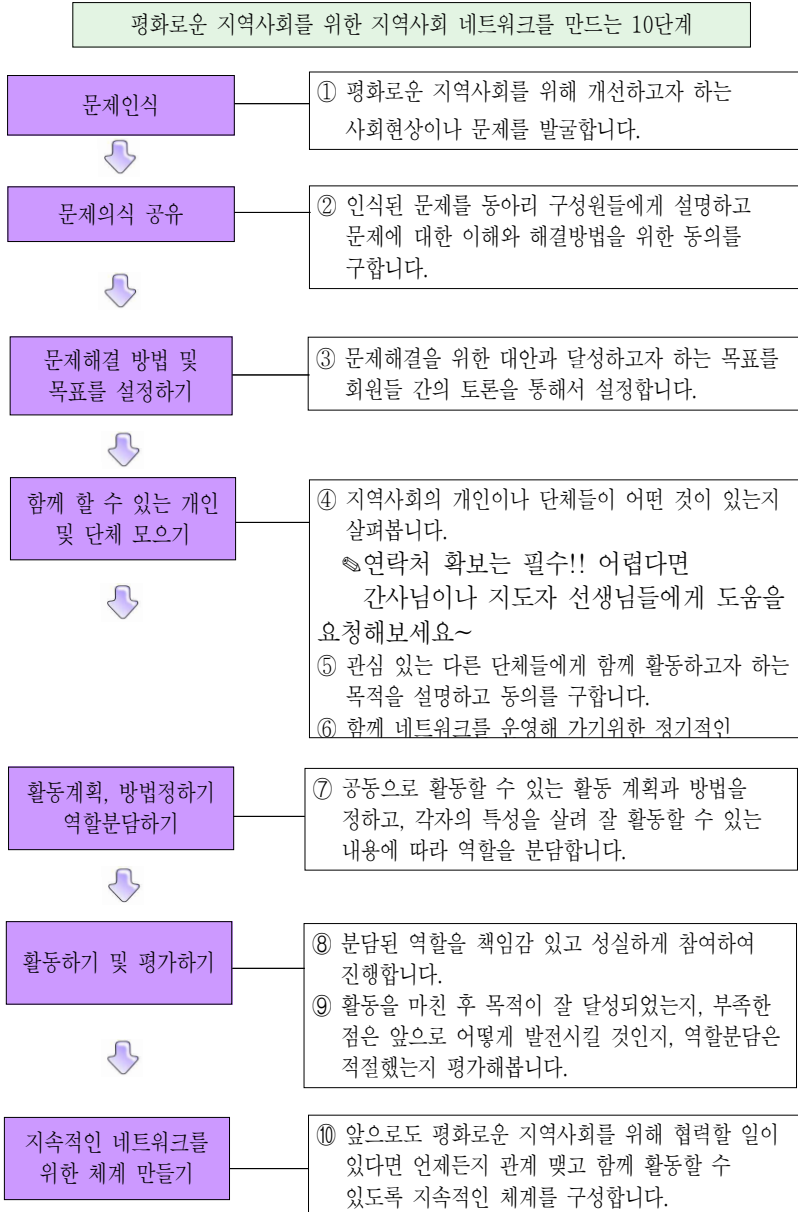
3.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만드는 방법

가장 작은 단위의 네트워크는 무엇일까요?

청소년의 입장에서 태어나면서 생기는 네트워크는 가족 관계이며 성장하면서 만들어 가는 네트워크는 친구 관계이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 현상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목적에 따른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를 통칭 하는 것이 동아리, 모임, 단체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개인의 인간관계를 확대하는 네트워크의 확장은 직접적인 만남을 통하여 이루어져 왔던 전통적인 방식에서 블로그(Blog) 및 Mobil 등의 정보화 매체를 이용한 방식으로 빠르고 다양하게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사용이 익숙한 인터넷, 핸드폰, SMS는 지역과 시간, 공간을 벗어난 people network를 형성하는 강력한 장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청소년은 이 부분의 확산과 성장에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만드는 방법은 네트워크의 모양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인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관련하여 당신이 뭘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아느냐가 중요합니다. 많은 오프라인 모임이나 행사에 참여하여 face to face 방식으로 지역사회 내 동역자를 만나고 협력을 구해야 합니다. 더불어 온라인 및 모바일을 통한 의사소통 구조를 개발하여 관련된 많은 사람들과 시 공간을 초월하여 상호 교류적 관계를 유지 하면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네트워크 참여자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연결고리를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하워드 라인골드(Howard Rheingold)가 참여군중(Smart Mobs : 휴대폰과 인터넷으로 무장한 새로운 군중)에서 말 한 것처럼 인간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전자 정보 문명의 기술과 도구를 잘 사용하여 단순한 종적 소비자나 기존의 권력과 사회 통제에 수동적으로 작동하는 시민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신기술을 이용하여 통제하려고 하거나 독점하려고 하는 사회 구조를 반대하고 오프라인 활동에 적극적이며, 확고한 윤리관과 예의를 지키는 똑똑하고 현명한 시민이 될 것인지는 현재 이런 문화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의 몫이 되었습니다.

다매체적이며, 개인의 거의 모든 정보가 데이터화 되어 어딘가 보관되고 있는 현실이지만, 윤리관을 지키며, 민주적이고 즐겁고 지적인 새로운 사회 형태를 만들어 가는 일은 일단 새로운 매체가 기술자들이 손에서 벗어난 후, 그것을 전유하고 수용하고 변형하고 재형성하는 사용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강화시키는 도구로 사용 할 것인지 집단 속에서 스스로를 분리, 고립시켜 네트워크를 무력화시키는 도구로 사용 할 것인지는 사용자의 몫일 것입니다.

4. 지역사회 네트워크! 이렇게 활동에 봅시다

청소년YMCA가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만드는 방법은 다양한 주체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제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용 사례를 통하여 이를 구체화하고 함께 생각해 봅시다.

4-1. 청소년들간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례

1) 수원지역 청소년 네트워크를 통한 청소년 정책제안

청소년들의 참여확대와 권리증진을 위해 각 시, 군에는 청소년들로 구성된 ‘청소년 위원회’ (경기도의 경우 ‘차세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원지역에서 청소년들 스스로 ‘청소년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수원시에 제안하는 청소년 정책을 함께 토론하고, 준비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성하였습니다. 구성의 목적과 진행과정, 활동내용 및 평가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트워크를 구성한 사람들 : 수원 청소년YMCA 연합회, 수원시 차세대 위원회 ‘매홀’

(2) 네트워크 구성의 목적

- 청소년들이 원하는 지역의 청소년 정책에 대한 욕구들을 함께 조사하고 토론하여, 수원시의 청소년정책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
- 청소년들의 생각과 주장을 지역사회에 홍보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체계를 발굴 및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3) 네트워크 구성과정

- ① ‘수원시차세대위원회’도 청소년 정책 및 의식조사와 관련하여 관심이 많다는 것을 인식하여 차세대위원회 정기회의 때 ‘수원 청소년YMCA연합회’ 회원들이 참석하여 목적을 설명하고 함께 활동할 것을 제안함.
- ② 차세대위원회와 청소년Y연합회의 역할 및 활동 소개, 토론을 통해 함께 할 수 있는 공통의 과제를 찾음으로써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함께 활동하기로 결정함.
- ③ 차세대위원회의 행사에 청소년Y 회원들도 역할을 분담해 함께 도와주고 활동하여, 서로 협력하고 지원하는 경험으로부터 시작함. (예를 들어 차세대위원회가 진행하는 ‘동아리 경진대회’ 행사의 홍보, 촬영,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함께 진행함.)
- ④ 수원시 청소년활동과 관련하여 꾸준히 연계하여 활동하기로 논의함.

(4) 함께 진행한 활동

- ① 5.31 미래유권자축제 (2006년 5월 31일)

- 531 지방선거를 맞아 지방선거에 참여하고 수원지역 청소년들의 의제 수립 및 제안을 위한 캠페인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계획함.
- 공동의 기획단을 구성하여 길거리 공연 홍보 및 준비, 동아리 공연에 참가한 팀을 이용한 공연팀 섭외, 수원시 청소년 정책 우선순위 뽑기 대회 진행.

② 수원시 정책에 청소년의 목소리를 담자 (2006년 11월 4일)

- 청소년의 요구와 생각에 대한 의식조사를 통해 수원시 청소년 정책을 제안하고자 450명의 설문조사 및 ‘수원시 청소년 의식조사 토론회’를 통한 정책 제안을 공동으로 진행.

(5) 활동 평가 및 향후과제

- 평가 : 수원 청소년Y연합회와 수원시 청소년 차세대위원회와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역의 청소년을 위한 고민을 함께 할 수 있었고,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통해 지역사회의 청소년운동을 진행할 수 있었다.
- 향후과제 : 수원시 청소년 차세대 위원회를 비롯한 수원지역에 더 많은 청소년들 모임이 존재하는데, 더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지역의 확고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고, 이를 지원하고 협력하는 성인들의 네트워크 및 지원체계도 필요하다.

2) 구리지역 청소년 네트워크를 통한 청소년축제 ‘메롱?’

(1) 네트워크를 구성한 사람들

- 청소년단체 : 구리청소년YMCA연합회 「**세상을 이끄는 지도자들**」, 구리시차세대위원회, 종합자원봉사센터, 구리 가정법률상담소, 땀기머리미용봉사회, 청소년인권운영위원회,
- 구리지역 청소년동아리 : 또래V, 나눔터, 송백, 스페셜퍼포먼스, 영토, 아우토반, MIZ, Staccato(스타카토), G.FrogLooper, EXIT, M & H, 폴라리스 크루, G. Giant, PEACE☆, Fabulous, 개념원리, RPM, P.S.P 밴드, WERRA, 미라클, S.T.I, 데시벨, 코코아, 카탈리스트, M to M, 풍선아트, RH-

(2) 네트워크 구성목적

-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역사회에 알리고 청소년들의 문화 역량을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준비하고 참여하는 축제의 장을 만든다.

생명평화운동의 리더! |

- 청소년 스스로 축제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학교교육에서 얻지 못하는 공동체를 운영하는 논리, 약속을 관리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처리하는 데서 오는 생활상의 체험 등을 통하여 관계를 맺고 일을 처리하는 과정을 알아가는 효과적인 기회가 되도록 한다.
- 담당교사, 자원지도자, 청소년단체로 이루어진 지역사회 연계망을 구축하여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자율적인 참여와 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3) 네트워크 구성과정

① 구리시 청소년동아리 거리축제 「메롱?축제」 기획단 구성

- 일정 : 매년 8월 말
- 주체 : 구리청소년YMCA연합회 「세상을 이끄는 지도자들」
- 내용 : 홍보일정 및 축제 준비일정 계획수립, 축제 주제설정방법 논의 등 축제 진행 전반에 걸친 활동을 진행한다.

② 끈들을 모으자~!! 구리시 청소년동아리 거리축제 홍보 및 참가 동아리 모집

- 일시 : 매년 9월 ~ 10월 2째 주
- 대상 : 구리·남양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동아리와 청소년활동에 관심 있는 단체나 조직 등
- 방법 : 포스터 부착, 직접 홍보 등
- 특이사항 : 현재 매년 40여개의 동아리가 축제에 참여하고 있다. 참가 동아리 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동아리 활동 영역은 다양하지 못하고 몇 가지 영역에 편중되어 있다.

③ 함께 만들어가자!! 구리시 청소년동아리 거리축제 「메롱?축제」 준비모임

- 목적 : 준비모임은 총 3회에 걸쳐 진행하며, 축제 기획단을 중심으로 참가동아리들이 함께 모여 축제의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함께 만들어간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역사회에 알리고 청소년들의 문화역량을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준비하고 참여하는 축제의 장을 만들고자 한다. 참가자들이 우리들만의 거리축제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과 참가동아리 간의 연계와 소속감을 갖고자 한다.

- 1회 준비모임
 - 일시 : 축제 D-15
 - 참가인원 : 축제에 참가를 신청한 동아리 대표
 - 내용

- 1) 사업개요 설명 : 참가신청서 작성, 「메롱?축제」의 전반적인 진행사항
- 2) 홍보부스 설치에 관한 설명
 - YMCA준비사항 : 동아리현수막, 부스
 - 홍보부스 설치 및 운영(동아리 별 판넬 제작), 문화공연, 기타홍보 및 전시
- 3) 사회자 선정에 관한 회의
- 4) 참가동아리의 홍보부스운영과 동아리 활동발표에 관한 사항(공연시간 포함)
 - 부스운영 과 공연시간
 - 참가동아리가 다른 동아리의 정보를 함께 공유함으로써 인해 서로 연계가능
- 5) 참가동아리 부스 준비현황 확인
- 6) 축제장소 설명
- 7) 홍보사항에 대한 문제점 논의, 대안 마련
- 8) 지원금 계획은? 계좌입금, 통장사본제출
- 9) 「메롱」 축제 2차 준비모임 날짜 확정(10월 19일, 목, 오후 7시)

○ 2회 준비모임

· 일시 : 축제 D-7

· 참가인원 : 축제에 참가를 신청한 동아리 대표

· 내용

- 1) 「메롱?축제」의 준비 및 진행 사항 브리핑
- 2) 참가동아리의 홍보부스운영과 동아리 활동발표에 관한 사항
 - 참가동아리 준비사항 파악
 - 홍보부스 설치 및 운영(동아리별 판넬 제작), 문화공연, 기타홍보 및 전시
 - 부스운영 : 오후 1시 ~ 6시 /
 - 공연시간 : 오후 4시부터, 동아리별 10분 이내(밴드와 노래팀은 2곡)
 - 3차 준비모임에 동아리별 홍보현수막(세로50cm×가로100cm)배포
 - 3차 모임까지 댄스동아리 음악, 노래 MR, CD제출
 - 축제당일 오전 11시부터 밴드리허설
- 3) 동아리 대표자 통장사본 제출
- 4) 축제 D-5, 지원금 입금예정, 지원금 사용에 관한 내용
 - 지원금은 한 동아리 당 50,000원, 계좌입금됨
- 5) 「메롱?축제」 3차 준비모임 공지

○ 3회 준비모임

· 일시 : 축제 D-3

생명평화운동의 리더! |

- 참가인원 : 축제에 참가를 신청한 동아리 대표
 - 내용
- 1) 「메롱?축제」의 준비 및 진행 사항
 - 2) 참가동아리의 홍보부스운영과 동아리 활동발표에 관한 사항
 - 각동아리 준비사항 파악
 - 댄스동아리 음악, 노래 MR, CD제출
 - 축제 당일 오전 11시부터 밴드 리허설
 - 3) 지원금 사용에 관한 내용 - 통장사본 제출이 늦어지면 입금지연
 - 4) 부스 위치 선정 및 문화공연 순서 확정 등
 - 부스 위치도를 만들고 번호를 정해 예비뽑기(부스활동에 종류에 따라 동아리별로 조정가능)
 - 문화공연은 영역별로 분류하고 그 안에서 논의를 통해 순서를 정한 뒤, 기획단에서 최종 조율
 - 7) 축제 당일, 12시 정도에는 도착하고 1시 전에는 세팅 완료하기

(4) 함께 진행한 활동 : 구리시 청소년동아리 거리축제 「메롱?축제」 (2006년 예시)

- 일시 : 2006년 10월 28일(토), 오후 1시 ~ 오후 8시
- 장소 : 구리시 구리역 공원
- 대상 : 지역 청소년 및 일반시민 2,000명
- 참가동아리 및 내용

번호	동아리명	학교	장르	부스	문화공연	비고
1	꾼	구리청소년Y	기자단	공과 쌀 옮기기		
2	도래샘	구리청소년Y	시사토론	등전단지기		인권퍼포먼스
3	먹골소리	구리청소년Y	사물놀이	미선다트단지기	사물놀이	
4	뿌리	구리청소년Y	봉사	춧물꼬기		리폼, 천연비누
5	주초	구리청소년Y	봉사	두더지게임	노래(박다술)	연극
6	해늘	구리청년Y	지원지도자	음료수 판매		본부 옆 부스
7	또래V		봉사(상담)	또래상담		청소년상담센터
8	니눔터		상담	상담		청소년상담센터
9	종합자원봉사센터		봉사	자원봉사활동 홍보		자원봉사센터
10	구리 가정법률상담소		상담	생리주기 팔찌 만들기		
11	덴기머리미용봉사회		미용봉사	페이스페인팅, 레인보우터투		
12	송백		천연비누	천연비누 제작		
13	스페셜퍼포먼스		미술	미술 부스	미술공연	이벤트 진행
14	청소년인권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인권축제		동행청소년문화의 집
15	캠스터필름(수원Y)	수원	영상	축제 영상 촬영		
16	영토	구리여고	영화토론	헬륨가스, 다트		

| 청소년YMCA활동 지침서

17	아우토반	구리여고	농구	탁구공 핸드폰 줄 판매		
18	구리시차세대위원회	연합	차세대위원회	초코파이 팔리먹기		
19	MZ	진건고	댄스		댄스	팝핀
20	Staccato(스타카토)	연합	댄스		댄스	팝핀
21	G.FrogLooper	연합	댄스		댄스	팝핀, 하우스
22	EXIT	수택고	노래, 댄스		노래, 댄스	
23	M & H	연합	댄스	스트릿댄스 소개 및 거리공연	댄스	팝핀, 브레이크인
24	폴리리스 크루	연합	B-boy	스트릿댄스 소개 및 거리공연	댄스	힙합, B-boy
25	G. Giant	구리고	댄스	(미정)	댄스	팝핀
26	박성진(개인)	태릉고	댄스		댄스	팝핀(개인)
27	PEACE☆	구리여고	댄스	음료판매	댄스	
28	권은자		로보랩	레고-로보랩		
29	Fabulous	구리여고	댄스		댄스	(개인)
30	개념원리	용인	댄스		댄스	용인
31	유수환	(개인)	노래		노래	(개인)
32	김법규, 임철순	연합	노래		노래	(개인)
33	RFM	남양주공고	밴드	RFM 시인회	밴드	
34	P.S.P 밴드	연합	밴드	연합홍보	밴드	
35	WERFA	연합	밴드	연합홍보	밴드	
36	미리클	구리고	밴드	연합홍보	밴드	
37	S.T.I	수택고	밴드	연합홍보	밴드	
38	데시벨	인창고	밴드	동선게임	밴드	
39	이관형	구리고	노래		노래	(개인)
40	코코아	인창고	만화	팬시판매, 코스튬플레이		
41	카탈리스트	구리여고	과학	과학실험		
42	M to M	구리여고	영화감상	격파게임		
43	풍선아트	풍선아트	풍선아트	풍선장식		
44	다+	토평고	대중음악		노래	

- 참여인원 : 연인원 1,500여명 참여 / 참여 동아리 : 44개 / 부스운영 : 32개
 - 프로그램 (부스운영 - 13:00~18:00, 문화공연 - 1부 13:00~15:00, 2부 15:30~17:30, 3부 18:00~20:00)
- 1부 (13:00~15:00)

13:00 ~	오프닝
13:20 ~	연극 : B.F (구리청소년YMCA연합회 소속 「주초」) B . F ? ? Best Friend? 아니면 Bad Friend? 과연 B.F의 숨은 뜻은 무엇일까?
14:00 ~	재활용퀴즈대회 - 구리청소년YMCA연합회 소속 뿌리, 자원재활용을 위한 청소년녹색소비운동 / 미래와 환경을 생각하는 신나는 나눔 재활용 OX 퀴즈대회
14:20 ~	청소년 인권 퍼포먼스 - 구리청소년YMCA연합회 소속 「도래칩」 구리시 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목소리를 재미있는 퍼포먼스로 말한다.
14:40 ~	Special Performance와 함께하는 Magic Event - 스페셜퍼포먼스(동아인제대학 미술학과)

생명평화운동의 리더! |

2부(15:30~17:30)

1	먹골소리	사물놀이
2	PEACE☆	댄스
3	Staccato	댄스
4	박디솔	노래
5	플라리스크루	댄스
6	박성진	댄스
7	김법규, 임철순	노래
8	RPM	밴드
9	테시벨	밴드
10	Fabulous	댄스
11	MIZ	댄스
12	PH-	노래

3부(18:00~20:00)

1	개념원리	댄스
2	이관형	노래
3	M&H	댄스
4	EXIT	댄스, 노래
5	스페셜퍼포먼스	미술
6	미라클	밴드
7	S.T.I	밴드
8	유수환	노래
9	G.Giant	댄스
10	G.FrogLooper	댄스
11	P.S.P BAND	밴드
12	WERRA	밴드

○ 참여단체

- 1) 구리시 청소년상담센터
- 또래 V(또래상담동아리), 나눔터(자원상담원 모임) : 거리상담, 학교폭력예방캠페인
- 2) 구리시 종합자원봉사센터 : 자원봉사 홍보
- 3)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구리지부 : 생리주기팔찌만들기,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캠페인
- 4) 당기머리 미용봉사회(구리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소속) : 페이스페인팅, 레인보우터투
- 5) 천연비누 만들기 : 송백(교문동 우성APT 상가 위치)
- 6) 동작구 청소년 문화의 집
- 청소년인권운영위원회 : 청소년 인권 캠페인(인권 동화만들기, 청소년인권 OX퀴즈)

○ 기타 프로그램

- 북한에 통일자전거보내기 운동, 동티모르 돕기 윈두커피 홍보행사
- 환경푸름이(구리청소년V연합회 환경봉사동아리 뿌리)의 리폼 배우기
- 청소년인권센터
- 청소년인권퍼포먼스 : 연극(주제 : 학교폭력, 왕따), 패러디(학교폭력, 급식)
- 청소년인권홍보활동 : 판넬 전시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 유해환경인식개선 캠페인
- 청소년신용경제캠페인
- Teens Techno Festival - 레고를 이용한 로봇체험 프로그램(도움 : 세스넷)

(5) 활동평가 및 향후과제

● 활동평가

- 청소년과 지역주민이 함께 뒤섞이며 다양하게 표출되는 청소년들의 문화적 욕구를 수용하여 자신감과 즐거움을 함께 얻을 수 있었다.
- 지역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하고 청소년들의 문화를 이해하며,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사회 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었다.
- 축제에 참여한 이들이 현금거래를 하되 금액을 사전에 정하고 당일 번 수익금은 동아리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번 축제에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미 있게, 즉 뒤풀이 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부(북한에 통일자전거 보내기 등)하였다.
- 축제의 내용이 단조롭다. 방송문화에만 치중되어 있으며 청소년들의 관심 또한 그쪽으로만 쏠려있는 것이 실정이다. 지속적인 지역 청소년 문화 활동의 지원과 축제의 기회를 확대하여 다양한 청소년문화가 생겼으면 한다.

● 향후과제

- 자치하는 청소년축제가 되자. - 기획단의 역할과 역량을 업그레이드하여 자치하는 청소년축제가 되도록 한다. 청소년들이 그 과정을 경험하며 그 속의 여러 관계와 소통의 내용을 배우고 알아갈 수 있도록 한다.
- 청소년의 목소리를 담아라. - 자치축제는 청소년의 힘으로 완벽하게 축제를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활동에 자신들의 목소리, 자신다운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스스로의 목소리를 높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고 할 수 있는 만큼을 해내는, 약속을 지키는 공동체의 믿음, 체험, 합리적 의사소통과 살림꾼이 되어가기 까지 청소년들이 직접 축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가능하도록, 이 모든 것을 문화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리지역 청소년 동아리들의 일상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대안적 청소년 문화와 문화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2. 청소년단체와 성인들로 구성된 단체와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례

1) 531 지방선거 참여를 위한 청소년운동본부

(1) 네트워크를 구성한 단체들

(사)국민독서문화진흥회, (사)남북청소년교류연맹, (사)남호청소년회, 신월청소년문화센터, (사)월드유스비전,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반딧불이, (사)청소년문화세상/하남청소년문화의집, (사)청소년을 위한 내일여성센터, (사)청소년좋은세상, (사)파라미타청소년협회, (사)한국청소년보호육성회, (사)한국청소년연합, (사)한중청소년교류연맹, (재)인천가톨릭청소년회, (사)울산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함께, (재)후농청소년문화재단,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531지방선거 전국 대학생 연대, 놀이미디어교육센터, 대구청소년단체협의회,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대한YWCA연합회, 새날청소년세상, 수서청소년수련관, 인터넷신문바이러스, 전라북도청소년단체협의회, 청소년YMCA전국대표자회, 한국걸스카우트연맹, 한국고등학교학생회연합회, 한국청소년교류진흥협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복지진흥회, 한국청소년인권센터, 한국청소년지도자연맹, 한국해양소년단연맹, 한국환경청소년단,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이상 39개 단체

(2) 네트워크 구성방법

- 2005. 6. 30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18세 선거권 확보 운동으로 **19세 선거권 국회 통과**
- 2006. 3. 17 흥사단에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흥사단, 한국YMCA전국연맹, 미지센터, 한국스카우트연맹, 한국걸스카우트연맹’ 7개의 **준비단체가 모여서 지방선거에 청소년의 참여를 조직할 것에 합의**하다.
- 2006. 3. 24 스카우트 연맹에서 지방선거 참여를 위해 **정책과제제안활동, 홍보 및 프로그램 활동, 네트워크 활동으로 나누어 활동하기로 합의**하다.
- 2006. 3. 30 한국YMCA전국연맹에서 “**531지방선거참여를 위한 청소년운동본부(가칭)**”참여를 모든 **청소년단체에 제안**하기로 합의하다.
- 2006. 4. 7 미지센터에서 준비단체가 “531지방선거참여를 위한 청소년운동본부”의

- 향후 일정 및 정책과제에 합의하고 제안단체를 추가로 모집하기로 합의하다.
- 2006. 4. 18 미지센터에서 확대된 제안단체를 중심으로 **“531지방선거참여를 위한 청소년운동본부”의 참여단체를 모집하기로 합의하다.**
 - 2006. 4. 21 한국YMCA 전국연맹에서 참여단체 대표자 회의를 열고 이동수(대한민국청소년의회 의장, 고3), 배다송, 손중선, 이봉준(이상 청소년YMCA 전국대표자회 공동회장, 고2), 이아라(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대표, 고3), 강정남(531 지방선거 전국대학생 연대 상임대표, 부산대 총학생회장), 유성희(대한YWCA연합회 사무총장), 장동현(홍사단 사무총장), 유정희(한국걸스카우트연맹 사무총장), 신흥기(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사무총장)를 **공동상임대표로 결정하다**
 - 2006. 4. 27 한국YMCA전국연맹에서 **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전성민 소장(미지센터)을 집행위원장으로 결정하다
 - 2006. 5. 2 **531 지방선거 참여를 위한 청소년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열다

(3) 활동내용

● 중앙 사무국

- ① 참여단체 대표자 회의 : 2006. 4. 21(금) 오후 2시 한국 YMCA전국연맹 회의실
- ② “531 지방선거 참여를 위한 청소년운동본부”발족식
 - 일시 : 2006. 5. 2. 오전 11시
 - 장소 : 홍사단 강당
 - 내용
 - * 운동 본부 발족의 배경 설명
 - * 선거 참여 방법과 내용에 대한 사업 계획 발표
 -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소년 관련 의제 및 정책 제안
 - * 발족 선언문 낭독
- ③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에 대한 청소년 정책 제안
 - 참여 단체 사이트를 통한 기본의제 제안활동을 통해 수립된 청소년 의제를 5. 2(화)에 전국적으로 발표하고 공식화함.
 - 청소년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써 인정받고 그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지역사회를 목표 지점으로 삼음

생명평화운동의 리더! |

- 청소년법 중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 및 선택사항을 분석
- 각 후보자들의 공약사항 분석 : 청소년법 중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대한 이해 정도, 실행가능성과 예산 확보 방법 등에 대한 조사활동(후보자 초청토론회, 공약집 분석 등)
- 그 이외 청소년의 인권과 평화적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의 정책과 활동(조례 제정 등)을 제안하는 다양한 의제 발굴이 요구됨
- 예> 청소년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 청소년의 인턴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인프라 조성 정책 등
- 이후 지역사회 청소년 정책의 기반으로 작동하도록 하며 지역사회 청소년활동의 핵심과제가 될 수 있도록 함.

● 각 지역별 활동 제안

- ① 지역사회 청소년 대표자 연석회의 및 청소년의제 제안 전국 캠페인
 - 청소년 의제 제안 전국 캠페인 : 2006. 5. 12(금) ~ 5.13(토)
 - 동네에서 활동하는 10대들을 정치 과제 수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모아서 논의하는 기회로 삼음.
 - 각 지역에서 자치활동을 하고 있는 다양한 청소년 그룹의 대표자 또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함.
 - 각 지역별 의제 및 청소년법을 검토하고 시 행정 및 의회 정책을 모니터링 한 결과를 기반으로 “청소년 10대 의제”를 채택하고 각 후보 진영에 제안함.
 - 후보 초청토론회 참석하여 청소년 의제를 발의하고 질문함.
 - 이후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네트워크로써 활동 기반 조성.
- ② 1924 투표참여 캠페인
 - 2006. 5. 26(금) ~ 5.27(토) 전국 동시 다발 캠페인 전개
 - 1924의 정책과제 도출 → 지역사회 정착이 가능하도록 일자리 창출
→ 지역에 남은 젊은이는 낙오자라는 지역사회 인식에 대한 변화를 촉구함.
 - 1924를 대상으로 선거 및 투표에 관한 교육 실시
 - 19세 중 참정권 부여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임
 - 20세 이상인 경우라도 투표하는 방식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투표소 방문, 투표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 확신도 없음(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함).

→ “동네 친구들끼리 모여서 함께 투표 참여하기” 등 대안 제시.

- 부재자 투표 방식을 다양화 하고 실제로 대학생 부재자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
- 캠페인 활동 → 싸이월드 과도타기, 대화명 “1924 투표하자”달기 캠페인, 싸이월드 87년 클럽을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

③ 미래 유권자 축적

- 연석회의를 통해 실행이 가능한 지역에서 5.31에 전국 동시다발로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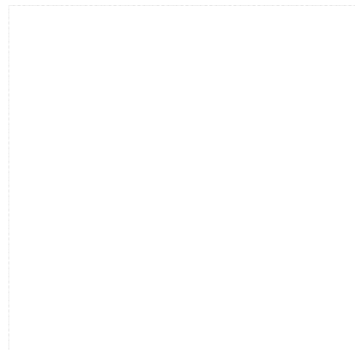
(4) 활동 평가 및 향후 제안

● 활동평가

- 10대의 첫 선거를 맞아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위한 전국적 운동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과제를 추진하는 경험을 갖음.
- > 청소년들에 의해 구성되고 활동하는 청소년단체, 청소년과 일반 성인을 회원으로 운영하는 단체, 청소년을 위한 성인들로 구성된 청소년단체 등이 청소년의 정치참여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함.

● 향후제안

- 청소년의 참여활동 증진과 평화로운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청소년단체 네트워크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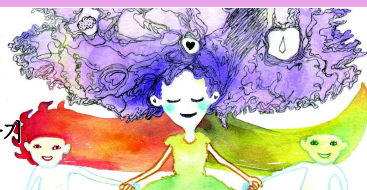




7장. 지구촌 네트워크

7장. 지구촌 네트워크

지구촌시민으로서 지구촌의 공존질서 만들기



1. 왜 지구촌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할까요?

1-1. 지구촌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하는 이유

모든 생명은 태어나는 순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천부인권(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사람으로서의 권리)”이지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것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인권을 침해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인권과괴 현상이 극에 달한 세계 2차 대전 후 국제연합은 1948년 12월 10일 총회에서 모든 인류의 인권보장을 목적으로 한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합니다. 세계인권선언은 각기 다른 정치, 경제, 종교, 문화적 배경을 가진 50개 국가가 참여한 것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인권이 가진 고유한 가치를 모두가 인정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이익을 위한 전쟁, 인간의 편리를 위한 환경파괴가 원인이 된 생명과괴 현상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널리 알리고 생명수호를 위한 작지만 구체적인 활동을 함께 할 때, 생명의 위기는 극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상의 모든 생명체, 생명 성장의 근원이 되는 돌, 바람, 태양, 흙과 같은 무생물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공존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자연이 없이는 인간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세계화로 인해 각종 문제는 국경에 관계없이 전 세계를 무대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은 문제라 해서 언제까지 안심하고 있을 수는 없게 된 것이지요. 지구는 단 하나이기에, 우리는 지구촌 시민이기에 지구의 생명위기를 극복하는 일에 모두가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트워크 활동이 가지는 최대의 장점은 경험을 나누고 함께 효율적인 대안을 찾는 일입니다. 이미 문제가 발생한 지역에서는 극복을 위해서, 문제가 아직 발생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확산을 막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대가 겪은 문제를 여러분의 아들과 딸이 겪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지구촌 시민이 된 것이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갖게 된 자연적 권리라면 지구촌 시민의식을 갖는 것은 여러분의 의무가 되겠네요.

1945년 해방을 맞은 후 1950년 한국 전쟁을 경험한 우리나라도 과거 UN과 일부 선진국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시다. 우리나라가 이만큼의 발전과 성장을 이룩하기까지는 부지런하고 영리한 한민족의 저력이 근본이 되었지만 어려운 시절 우리를 도와준 다른 나라의 원조가 큰 도움이 되었습시다. 1인당 국민소득 2만 불 시대를 바라보는 지금, 이제는 우리가 다른 나라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도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쉽게 마시는 탄산음료 한 병 값이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하루 세끼 식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1-2 청소년과 지구촌 네트워크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세계YMCA 네트워크는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세계 대회에 청소년 대표가 포함되어 있고, 청소년 활동을 주제로 한 회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진행되는 YMCA 청소년 국제 네트워크는 기획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가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대부분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세계YMCA의 시작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국제 네트워크는 불과 몇 명의 관심 있는 친구들이 모여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네트워크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우선 공통의 관심사가 필요합니다. 문제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위해서는 서로 의견을 나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요. 의견을 나누는 것은 사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최대의 강점, 인터넷이 있으니까요. 자그럼 YMCA 청소년 국제 네트워크를 한 번 만들어 볼까요?

우선 누군가 제안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겠지요. 세계YMCA 홈페이지에 청소년들의

행복추구권에 관심이 있는 회원들의 참여를 안내하는 팝업 창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청소년들의 행복추구권에 관한 개인들의 의견을 모으는 작업이 필요하겠지요. 행복추구권에 관한 의견이 모아지면 개선해야할 내용이 정리 되겠지요. 내용이 정리되면 어떻게 실천으로 옮길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할 테지요. 이렇게 네트워크의 내용과 활동방식이 정해지면 활동이 시작될 수 있겠네요. 전 세계를 상대로 시작하기 어렵다면 아시아를 중심으로 먼저 시작해서 다른 대륙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방법도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한국YMCA가 세계YMCA 내에서 비전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서 위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청소년들도 세계YMCA를 무대로 활발한 활동을 열망든지 전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세계YMCA 대회 청소년 대표자 회의에서 세계의 청소년들을 대변해서 중요한 발언을 하고 있는 한국대표,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2. 지구촌이란 무엇인가?

2-1. 지구촌의 형성

세계화·지구촌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지시나요?

인터넷과 방송기술의 발달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생중계했으며, 파리의 최신 패션은 일본의 동경과 한국의 서울에서 동시에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수단의 발달에 힘입어 한국의 MP3는 전 세계 청소년들의 목에 걸려 있으며, 필리핀의 바나나는 길거리 과일가게에서 항상 만날 수 있습니다.

2005년 연말기준, 해외여행을 경험한 전 세계 인구는 14.6%(8억 8천만 명), 한국에 91일 이상 체류하면서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 등록된 외국인 수는 82만 명, 불법체류자와 단기 여행객을 포함한 외국인은 1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전국의 초중 고등학교에서 원어민 강사를 만나는 것도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길거리를 지나다보면 ‘000국가의 신부와 국제결혼’ 이런 현수막을 쉽게 보실 수 있을거예요.

세계 각국의 다양한 요리를 한국에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세상, 국경의 의미가 무색해진 지금, 여러분은 지구촌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지구촌을 만들어낸 세계화는 무엇이며, 세계화로 인한 긍정적·부정적 요인은 무엇일까요?

2-2. 세계화의 영향

1) 세계화의 정의

세계화는 무역 자유화를 목표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역 자유화는 자유로운 재화의 이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계화는 국가의 경계를 넘어 경제, 문화, 기술 등이 교환, 확대되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 간 다양한 영역의 자유로운 교류를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세계화를 추진하는 주요한 목적인 것이지요.

국가 간 진행되는 다양한 영역의 교류는 재화(돈)를 매개로 진행됩니다. 교류에는 일정한 규칙이 필요합니다. TV나 신문을 통해 자주 접하게 되는 FTA(free trade agreement - 자유무역협정)는 이러한 규칙 중 하나입니다.

FTA(Free Trade Agreement - 자유무역협정)

특정 국가 사이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 일반적으로 FTA 앞에 국가명을 붙여 협정 당사국을 표기.

한미FTA는 한국과 미국사이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

세계화를 통한 긍정적인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간 교역을 통한 세계 전체의 부 증가
2. 저렴한 가격의 제품 구입 가능
3. 문화교류를 통한 국가·민족 간 상호이해 증가
4. 전쟁 위협 감소
5. 해외자본의 유입으로 인한 저개발 국가의 현대화

세계화를 통한 부정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비판적인 선진문화 수용으로 인한 자국 고유문화 상실
 2. 저개발 국가의 높은 해외자본 의존율로 인한 자국 시장 황폐화
 3.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 발생
- ※ 1, 2, 3번의 요인으로 인해 국가의 경제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세계화의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계화로 인한 농산물 시장 개방의 문제점은 더욱 심각합니다. 일부 선진국의 기업형 농업 생산물 공세는 낮은 가격을 무기로 농업을 생계수단으로 삼고 있는 저개발 국가 및 일부 국가 농부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농부들이 쌀 시장 개방에 반대하여 끊임없이 저항하고 있으며, 목숨을 잃는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2) 세계화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세계화의 핵심가치는 경쟁과 효율입니다. 세계화로 인한 무한 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효율(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지나친 경쟁과 효율의 추구는 생명의 존엄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은 자연을 파괴하였으며, 인간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삼음으로써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식의 등락 폭이 살인사건보다 더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 불평등한 근로조건 속에서 핍박 받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습니다.

인간과 자연은 효율을 높이는 수단이 아닌 주인이 되어야 하며, 세계화를 통한 물질적·문화적 풍요는 생명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세계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면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현재의 삶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에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현재의 삶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화를 통해 국제교류의 표준이 만들어졌다면 우리는 인간미 넘치는 인간의 국제표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국제표준의 핵심은 소외된 자들에 대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러한 국제표준이 이미 있다면 널리 알려야 합니다. 생명이 없는 세계화로 하여금 따듯한 생명의 온기를 느끼게 해야 합니다.

2-3 생명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구촌 네트워크의 형성

세상에 다양한 생명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후이변, 질병, 전쟁으로 인해 생명은 끊임없는 위협을 받고 있지요.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생명이 받는 피해의 속도와 범위는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광우병, 조류독감, 신종 유행성 질병(사스·에이즈 등)이 국경을 초월하여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아동·여성 국제 인신매매, 불법 마약 유통, 문화재 불법 유출, 위조지폐 제조, 범죄 조직의 해외 진출 뉴스를 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생활의 편리와 경제적 이익을 위한 개발로 인해 환경은 몸살을 앓고 있으며, 경제·종교·정치적 목적으로 전 세계 40여개 지역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증가로 인해 급격하게 증가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어 지구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타클라마칸 사막, 고비사막에서 시작되는 황사는 편동풍을 타고 하와이까지 날아갑니다. 전쟁으로 인해 아동, 여성을 포함한 수많은 민간인과 환경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경제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와 전쟁은 소수의 인간을 위한 것이면서도 피해는 전 지구적이기에 큰 문제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끊임없는 생명파괴와 관련한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무의식중에 갖게 되는 생명경시 현상이겠지요.

따라서, 지구의 생명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의 소중한 가치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빌딩숲 아스팔트 사이에서 힘겹게 꽃 한 송이를 피워낸 들꽃이 전하는 감동을, 유조선 기름유출로 인해 기름범벅이 된 뱀권의 모습에서 안타까움을, 빈곤·전쟁으로 인한 배고픔에 온 몸의 뼈를 앙상하게 드러낸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작지만 따뜻한 마음을 회복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움직여야 실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4. 생명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지구촌의 노력

다행스러운 것은 생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풍요, 번영이라는 세계화의 이면에 존재하는 빈곤, 질병, 환경파괴, 인간성 상실

이라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인간미 넘치는 인간의 국제 표준을 만들고, 선을 행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단체들의 활동사례

국제연합(UN - United Nations)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 192개의 회원국, 16개 전문기구, 27개 독립기구, 37개 관련기구를 거느린 세계 최대의 조직.

그린피스(Green Peace)
 핵실험 반대 및 자연보호운동을 목적으로 1971년 캐나다에서 12명의 환경보호운동가들이 모여 결성한 국제적인 환경보호 단체. 본래 프랑스의 핵실험을 반대하기 위해 발족하였으며, 고래의 보호 단체로도 유명하다. 본부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전 세계 39개국에 43개 지부가 있으며, 160여 개국 300만 명의 회원이 내는 기부금으로 활동.

국경없는 의사회(Medecins Sans Frontieres)
 국제 의료구호조직. 1971년 성립되어 전쟁, 천연재해, 질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긴급의료 구호활동을 전개. 의료설비가 부족한 지역에 의료서비스와 시설을 지원하는 활동도 함께 진행. 매년 3천명이 넘는 의사,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관련 민간인들이 자원봉사에 참여.

적십자(Red Cross)
 스위스의 앙리 뒤낭이 1859년 이탈리아 통일전쟁에서 부상당한 사람들을 구호했던 체험을 기록한 <솔페리노의 회고>가 계기가 되어 1864년 제네바 협약을 채택으로 성립된 단체. 전쟁 시 부상자 등을 구호를 목적으로 한다. 전 세계의 분쟁지역에서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대표적인 단체 중 하나. 지금은 포로, 민간인의 보호, 평시의 건강증진, 질병예방, 재해구제 등의 사업도 진행.

유니세프(Unicef)

전 세계 어린이를 지원하는 유엔기구로서 1946년 12월 11일 창립. 국적과 인종, 이념, 종교, 성별 등과 상관없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린이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 도움을 손길을 전하는 단체. 본부는 뉴욕에 있으며 156개국에 대표사무소가 설립되어 활동 중.

월드비전(World Vision)

1950년 한국전쟁 당시 고아와 미망인을 돕기 위해 설립된 국제구호 및 개발기구. 한국에서 첫 구호사업을 시작해 전 세계 100여 개 국에서 긴급구호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한국은 1991년부터 월드비전의 지원을 받던 국가에서 월드비전 후원국으로 전환하여 다양한 활동 전개.

사랑의 선교수녀회(Missionaries of Charity)

1950년 테레사 수녀가 인도 캘커타의 빈민촌에서 가장 가난한 이들과 가난한 삶을 함께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한 수녀회. 테레사 수녀는 197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으며, 그녀가 설립한 사랑의 선교수녀회는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원 봉사 참가. 현재 120여 개국에 분원이 있음.

2) 국내단체들의 활동사례

세계선린회(World Neighbours)

1992년 세계YMCA 연맹 사무총장을 퇴임한 이수민 회장이 중심이 되어 인종과 종교를 초월하여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사랑과 정의를 누리며 떳떳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설립. 빈곤과 여러 가지 악조건에 시달리면서도 자신들의 힘으로 가난에서 헤어나려고 애쓰는 세계 이웃나라 주민들의 자립 노력과 살기 좋은 선린마을 만들기 운동을 격려, 지원하는 일에 주력. 현재 중국의 연변·내몽고, 필리핀 중부지역 파나이 섬의 4개 농어촌, 베트남 호치민의 4개 농어촌, 방글라데시의 선린마을 만들기 운동 진행.

기아대책(Food for the Hungry International)
 1971년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래리 워드 박사에 의해 창립된 국제구호 단체. 한국을 비롯한 세계 12개국 참여. 지구촌 곳곳의 기아 현황을 알리고, 식량과 사랑을 전해 굶주린 이들의 생존과 자립을 돕고 있음.

개척자들(The Frontiers)
 1992년 필리핀 ‘피나투보 화산’ 분출 사고시 한국의 목회자들이 중심이 되어 희생당한 사람들을 위한 기도 모임을 시작으로 인류의 화해와 세계평화를 위해 일하고 있음. 분쟁지역 긴급구호 활동, 평화캠프, 세계를 위한 기도모임 등의 활동을 꾸준히 진행.

3) 개인의 활동사례

왕가리 마타야
 케냐의 환경운동가, 현재는 환경자연자원부 차관. 1977년부터 케냐 사막에 나무를 심는 그린벨트 운동을 전개하여 30년 가까이 아프리카 전역에 3천5백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밀립을 되살린 공로로 2004년 노벨 평화상 수상. 그녀의 그린벨트 운동은 전 세계에 알려져 100만 명의 운동가들과 6,000여개의 여성단체들이 참여하는 지구촌 네트워크 형성.

이외에도 보이지 않는 지구촌 곳곳에서 수많은 단체와 개인이 지구촌의 생명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한 현장에 직접 가기도 하지만, 시간과 여건이 허락하지 않을 경우 약간의 활동비를 후원하여 생명 살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움이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이 너무 많아 더욱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YMCA를 이해하기 위해 지침서를 공부하고 계실 청소년 여러분, 지구촌 네트워크에 YMCA가 없는 것이 이상하지요? 물론 YMCA도 위에 열거된 단체들 못지않게 지구촌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 지구촌의 평화 공동체 YMCA

1844년 “젊은이들의 정신적, 영적 상태의 개선”을 목적으로 런던YMCA가 창립된 이래 YMCA운동은 전 세계로 확산되어 1855년 세계YMCA 연맹이 결성되었으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범세계적 운동체로 발전했습니다.

현재 세계YMCA 연맹의 회원국은 123개국, 14,000개의 지역YMCA, 4천5백만 명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세계YMCA 연맹은 아시아·태평양 YMCA연맹, 유럽YMCA 연맹, 아프리카YMCA 연맹, 북미YMCA 연맹, 남미YMCA 연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계YMCA 연맹의 본부는 스위스에 있지요. 61개 시청년회로 구성된 한국YMCA 전국연맹은 아시아·태평양 연맹에 속해있으며, 아·태연맹의 본부는 홍콩에 있습니다.

YMCA 활동은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각 지역별 활동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계급·종교·성별·나이에 관계없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YMCA 활동은 종교관련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사회, 도시, 농촌 혹은 나라, 세계가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5년, 세계YMCA는 150주년을 기념하는 세계대회를 인도 뭄바이에서 개최했습니다. 대회에서는 지난 150년을 회고하고, 현재 세계가 직면한 군사화, 빈곤, 질병, 기아, 자연재해, 불평등, 인권침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의로운 평화의 건설”이라는 주제를 다가올 150년, 새로운 시대의 운동 실천과제로 결정하였습니다. 한국YMCA는 3·1운동부터 시작하여 한국의 민주화에 기여한 사회운동 경험을 토대로 세계YMCA 안에서 미래운동의 대안적 가치를 찾는 일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 5월, 한국YMCA 전국연맹은 『한국YMCA 비전선포식』에서 “꿈꾸는 젊은이, 함께 가꾸는 지역사회, 평화로운 지구촌”이라는 주제를 다가올 100년의 운동 실천과제로 선포합니다. 이렇듯 한국YMCA는 생명평화운동을 주도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YMCA의 국제사업을 살펴볼까요?

YMCA는 평화로운 지구촌 건설을 위해 다양한 네트워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개발 국가를 돕기 위해 기금을 모으고 젊은이들이 노력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4년 창립 90주년을 맞아 한국YMCA는 “평화로운 지구촌”이라는 생명운동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한중일YMCA 연합회의회를 제안하여 평화로운 지구촌 만들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한국YMCA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지구촌 평화건설 활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북한 통일자전거 보내기 캠페인 ‘통일은 자전거를 타고’



2005년부터 매년 2천대의 자전거를 전국에서 모금하여 북한의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보내는 캠페인입니다. 북한의 에너지난을 극복하고 대중교통이 편리하지 않은 청소년과 시민들이 통학 및 출근수단으로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통일 자전거’를 보내고 있습니다.

모금캠페인 기간에 맞추어 평화통일의 염원을 담고 청소년들이 한반도의 남쪽 끝에서 통일전망대까지 자전거로 종주를 하고 있으며,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위기에도 굴하지 않고 보편적 인류에 실천이라는 민간지원사업 원칙에 근거하여 사업 지속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사업은 아니지만 평화로운 남북관계 형성이 세계 평화 구축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기에 다른 어떤 국제 협력 사업보다 중요합니다.

2) 치유와 재건을 위한 동티모르 지원사업

동티모르는 17세기부터 포르투갈의 식민지였고, 1970년 포르투갈 철수 후 인도네시아가 무력으로 점령하였다가 유엔평화유지군의 보호아래 지구촌에서 가장 최근에 독립국가가 되었습니다. 끊임없는 폭력과 갈등을 치유하고 평화로운 지역사회를 재건하기 위해 커뮤니티 개발사업, 청년지도력개발사업, 사메 커피농가 지원을 위한 ‘A Cup of Peace, A Cup of Coffee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 Cup of Peace, A Cup of Coffee 캠페인’은 다국적 기업에 의해 헐값에 판매되던 동티모르 천연커피를 한국YMCA가 매입, 판매후 수익금을 동티모르 지역사회 재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생명평화운동의 리더! |

또한 동티모르에서 아시아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 '평화학교'를 운영하고 평화축제 및 청년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티모르 청년 평화워크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아시아 나눔 프로젝트 '아시아 지역사회개발사업'

'아시아 지역사회개발사업(Mission in Action Programs)'은 아시아 저개발국가의 지역 YMCA와함께 아시아의 빈곤과 개발현장의 구체적인 사회이슈에 관해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을 위한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 내몽골 사막화 방지를 위한 "청소년 평화워크캠프"

동북아 청년평화파수꾼 양성을 위한 한국, 중국, 일본의 공동평화교육과 함께 사막화 방지를 통해 환경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내몽골에서 나무심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 한일 대학생 평화순례단 및 한일 학생교류 프로그램

한국과 일본의 대학생이 모여 폭력과 차별을 극복하고 "평화로운 지구촌 만들기"를 주제로 생명, 평화운동 현장체험, 평화축제 등의 행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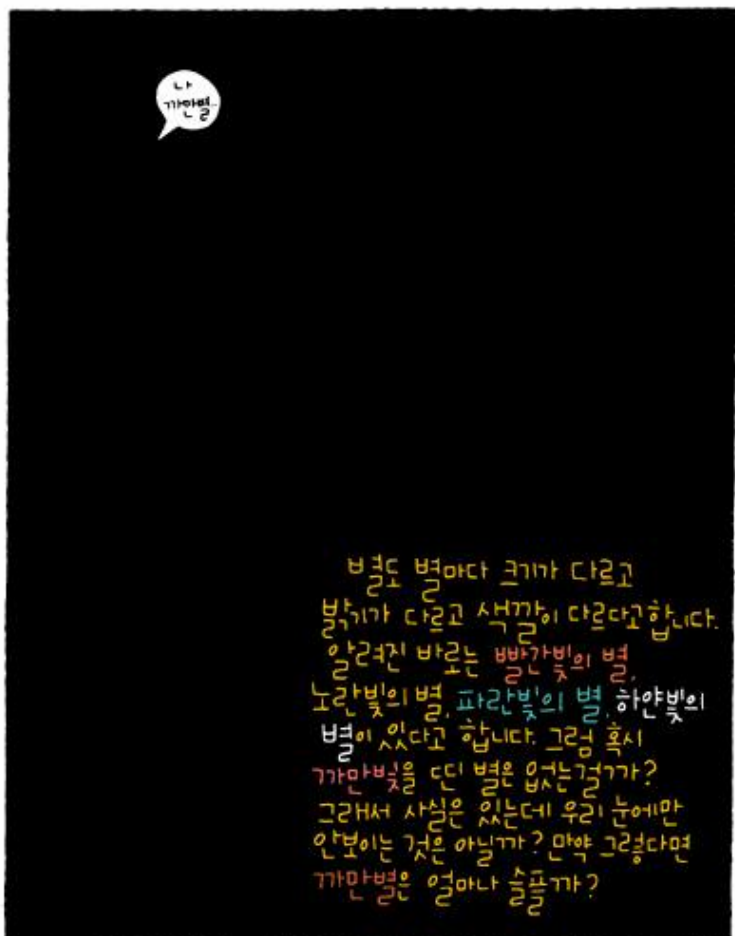
또한 일본의 학생YMCA와는 정기적인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양국 공동의 역사인식 및 평화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 아시아기독교청년연대 EASY 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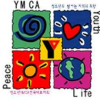
아시아 기독교청년들의 연대와 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예큐메니컬 워크샵, 1년 1회씩 개최.

7) 아시아 태평양YMCA Youth Assembly

'지속가능성을 향한 연대의 영적기반을 강화하는 YMCA 청년'이라는 주제로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청년/청소년들의 운동과제와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신 주변에 당신이 모르는 가만별은 없습니까? 관심사각. EVID



부 록

- 부 록 신는 순서 -

1. 청소년YMCA 회원 입회원서
2. 청소년YMCA 동아리 인준신청서
3. 청소년YMCA 집회신고 및 허가서
4. 청소년YMCA 집회 활동일지
5. 청소년YMCA연합회 대표자회의 일지
6. 청소년YMCA 신입회원교육 사업계획서
7. 청소년YMCA 신입회원 인준식 순서(안)
8. 청소년YMCA 평가 및 인준심사표
9. 청소년YMCA 정기총회(안)
10. 청소년YMCA 전국대표자회 회칙
11. 00지역 청소년YMCA연합회 회칙
12. 00지역 청소년YMCA 회칙

■부록1 : 청소년YMCA 회원 입회원서

()년 00지역 청소년YMCA연합회 입회원서

사진 (2장)	동아리명	이름	성별
			♂ , ♀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년 월 일 (만 세)		
학교	학교 학년 반 번(계열 : 인문계, 자연계, 예체능, 실업계)		
종교	교 (기독교인 경우 : 교회)		
주소		E-MAIL	
HOME		핸드폰	
❖ 자기소개 ❖			
❖ 00YMCA에 들어온 목적이나 동기는 무엇입니까? ❖			
본인은 00청소년YMCA연합회 회원으로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보호자 승낙서 위와 같이 00청소년YMCA연합회 회원으로 입회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년 월 일 보호자 : (인)			

00YMCA 청소년부/☎000-0000

■부록2 : 청소년YMCA 동아리 인준신청서



00지역 청소년YMCA 인준신청서

동아리명	
회 원 수	명 (1학년 명, 2학년 명, 3학년 명)
활동개시일	년 월
활동 목적	
활동 내용	
구비서류 : 1. 전년도 활동보고서 2. 연간 활동계획서 3. 회원명단 4. 회칙	

우리 동아리는 위와 같이 00지역 청소년YMCA연합회에서 활동하고자 인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동아리대표 0 0 0 인

■부록3 : 청소년YMCA 집회신고 및 허가서

()년 집회신고 및 허가서

동아리명			
집회일시	년 월 일 요일		
집회장소			
활동인원	총 명		
집회내용	○ 안건 : ○ 세부내용 :		
동아리 대표		연락처	
<p>위와 같이 집회 허가를 신청하며 허가 된 집회 시간 및 장소에서는 본 동아리의 회원들의 활동이 존중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본 동아리는 집회 시간을 준수 할 것과 집회 시간 내에 집회 장소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책임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요일 동아리 대표 (인)</p> <p style="text-align: center;">00YMCA 귀중</p>			

■부록4 : 청소년YMCA 집회 활동일지

00지역 청소년YMCA 집회활동 일지

동아리명				대표		
일시	년	월	일	요일	시간	시 분 ~ 시 분
사회자		정리자		장소		
참가자	총(명)					
주요내용						
세부내용						
건의사항 및 특이사항						
지도자 의견						
☺ 다음 집회 계획 : ☺ 다음 집회 내용 :				확인	동아리 지도자	담당지도자

■부록5 : 청소년YMCA연합회 대표자회의 일지

00지역 청소년YMCA연합회 대표자회의 일지

동아리명				대표		
일시	년	월	일	요일	시간	시 분 ~ 시 분
사회자			정리자			장소
참가자	총(명)					
주요내용						
세부내용						
건의사항 및 특이사항						
지도자 의견						
☺ 다음 집회 계획 : ☺ 다음 집회 내용 :				확인	동아리 지도자	담당지도자

■부록6 : 청소년YMCA 신입회원교육 사업계획서

00지역 청소년YMCA연합회 신입회원교육 사업계획(안)

1. 목적

- 청소년YMCA연합회 회원들이 YMCA에 대한 자부심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 청소년회원들이 동아리 활동의 중요성과 향후 동아리 활동의 올바른 활동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2. 일시 : 년 월 일(요일),

3. 장소 : 00 회관

4. 대상 및 참여인원 : 청소년YMCA 회원 00명

5. 지도력 : 000, 000

6. 프로그램 내용 및 일정

시간	프로그램명	내용
1시 ~1:10	- 함께 노래부르기 - 신입회원교육 목적공유	-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 신입회원교육 목적 설명
1:10 ~ 1: 50	- 공동체놀이	- 인터뷰 게임
1:50 ~2시	- 휴식	- 휴식
2시~4시	- YMCA 란?	- YMCA영상물 관람 - YMCA 설립목적, 이념, 역사, 활동내용
	- 청소년YMCA 란?	- 청소년YMCA란? - 일반 동아리와 청소년Y의 차이
	- 민주적의사결정이란?	- 합리적인 의사결정방법
	- 인간관계훈련	- 꼬인 손풀기, 발바닥 붙이고 일어나기
4시 ~5시	동아리 소개 및 각오	- 동아리 소개 - 신입회원들의 장기자랑
5시 ~ 5: 10	- 함께 노래부르기 - 뒷정리	-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6. 세부 일정 및 내용

- 1) 신입회원교육의 목적 공유(함께 노래부르기)
 - 목적 : 신입회원교육의 목적을 회원들에게 발표함으로써 여기에 참가하는 개인의 목표를 세울 수 있는 자리와 청소년Y 동아리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는다.
 - 시간 : 약 10분
 - 내용 : 신입회원교육의 목적을 공유한다.
- 2) 공동체놀이
 - 목적 : 청소년Y 연합회의 신입회원들이 다른 동아리 신입회원들과 어울릴 수 있는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을 통해 서로 얼굴을 익히고 친해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 시간 : 약 40분
 - 내용 : 인터뷰카드게임 등
- 3) YMCA 란?
 - 목적 : YMCA의 역사와 이념, 활동에 대하여 이해하고 생각해볼 수 있도록 토론시간을 갖는다.
 - 시간 : 2시간 중 30분
 - 내용 : YMCA홍보 영상물 시청, YMCA의 역사, 내가 생각하는 YMCA, 우리가 만들어갈 YMCA 등
- 4) 청소년YMCA 란?
 - 목적 : 청소년Y와 일반 동아리의 차이를 이해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며 앞으로의 활동의 목표를 세울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 시간 : 2시간 중 30분
 - 내용 : 청소년Y 활동 ppt, 청소년Y와 일반 동아리의 차이, 청소년Y목적문 등
- 5)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법
 - 목적 :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동아리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례와 토론을 통해 학습한다.
 - 시간 : 2시간 중 30분
 - 내용 : 일방적인 의사소통과 양 방향적 의사소통의 차이 등
- 6) 인간관계훈련
 - 목적 : 함께 몸으로 움직이고 서로 생각하며 공동체에 대하여 생각해 본다.
 - 시간 : 2시간 중 30분
 - 내용 : 꼬인 손 풀기, 서로 발바닥 붙이고 일어나기 등
- 5) 청소년Y 연합회 동아리 소개 및 각오
 - 목적 : 청소년Y연합회 동아리 활동의 목표와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연합회 회원모두가 함께 공유함으로써 앞으로 연합회 활동을 하는데 있어 목적의식을 갖고 자발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입회원들의 장기 자랑을 통해 함께 웃고 즐기며 하나가 될 수 있는 자리를 만든다.
 - 시간 : 약 1시간
 - 내용 : 한 해 동안의 연합회 활동내용, 동아리 소개, 신입회원들의 장기자랑

■부록7 : 청소년YMCA 신입회원 인준식 순서(안)

00지역 청소년YMCA 신입회원 인준식 및 동아리 인준식, 자원지도자 위촉식

◎ 1부 - 예배

(1) 예배로의 초대

- 묵상기도 시편 4편 1절 ~ 8절 인도자(회원들은 눈을 감고)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곤궁에 빠졌을 때에, 나를 막다른 길목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너희 높은 자들아, 언제까지 내 영광을 욕되게 하려느냐? 언제까지 헛된 일을 좋아하며, 거짓 신을 섬기겠느냐? 주님께서서는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각별히 돌보심을 기억하여라. 주님께서서는 내가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신다. 너희는 분노하여도 죄짓지 말아라. 잠자리에 누워 마음 깊이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려라.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여라.

수많은 사람이 기도할 때 마다 “주님,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십시오.”“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 수 있을까?”하며 불평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취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 주신 기쁨은 헛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에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큼니다.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 말씀봉독 000 (청소년YMCA연합회)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요 17: 21)

- 찬송 평화의 아침을 여는 이(1절과 4절) 다함께

- 환영의 인사 000 (00YMCA 사무총장)

“우리는 오늘 00지역 청소년YMCA연합회 청소년회원들의 하나됨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역사회의 청소년활동 실천자로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알고 실천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 함께 드리는 예배에 초대되었습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시며 일어서게 하시는 주님께서서는 오직 하나의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시길 원합니다.”

- 대표기도 000(청소년YMCA연합회)

- 찬송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다함께

(2) 죄의 고백

참회의 기도 1

- 인도자 :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세상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청소년YMCA 회원 :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00지역 청소년YMCA연합회 활동’을 참으로 선한 일의 목적을 알면서도, 나의 것을 지키기에 급급함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참뜻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지도력으로 성장하려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바른 길 보다는 편안한 길을 더 좋아했고, 헌신과 희생을 서로 회피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새것을 주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가려 하시지만 우리는 경직되고 변화를 싫어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 **다함께 : 주님, 죄와 결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용서와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참회의 기도 2

- 인도자 :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진리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청소년YMCA 회원 : 우리는 끊임없이 잘못된 일을 저지르며 시행착오에 빠집니다. 우리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바라보는 편견을 갖기를 일삼으며 겉모습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세상에 살지만, 너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성 속에 일치를 추구하며 정의와 평화를 사랑해야 하며 우리에게 삶의 본질적인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런 일을 방해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진리가 무엇인지 찾으려 하지도 않았습다.
- **다함께 : 주님, 죄와 결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용서와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참회의 기도 3

- 인도자 :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청소년YMCA 회원 :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생명의 다양함과 충만함을 존중하지 않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강자들이 약자들의 권리를 짓밟고, 건강한 이들이 병자들의 권리를 무시하며, 한 세대가 다른 세대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가난한 이들의 권리를 무시합니다. 폭력과 전쟁은 생명을 파괴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평등과 존중과 개혁과 치유를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 **다함께 : 주님, 죄와 결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용서와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3) 말씀

- 청소년YMCA 회원 - 이사야 53장 4 ~ 6절 :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찢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습니다.
- 청소년YMCA 회원 - 로마서 12장 1~2절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4) 청원기도

청원기도 1

- 인도자 : 우리 자신과 하나 됨을 위해 기도합니다.
- 청소년YMCA 회원 : 주님,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서로에게 무관심하지 않게 도와주소서. 주님께서 한국YMCA의 청소년운동에 주신 그 소중한 사명을 목적으로 기도하며 행하게 하여 주소서. 이기주의를 버리고 하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다양한 생각들이 완전한 친교 안에서 서로를 풍요롭게 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친히 인도해 주시는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 **다함께 :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청원기도 2

- 인도자 : 00 청소년YMCA연합회‘청소년 운동’을 위해 기도합니다. (잠시침묵)
- 청소년YMCA 회원 : 주님, 우리가 주님의 진리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성령께서 오늘날 구리고교YMCA연합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세상의 구원을 위해 그 말씀을 선포 하길 원합니다.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돌보며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에 어린아이와 같은 순결한 마음으로 달려가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진리 안에 함께 모여, 이미 100년 전 이 땅에서 한국YMCA에서 청소년운동을 시작하신 당신의 거룩한 뜻이 지금도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주님 닮은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아멘
- **다함께 :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청원기도 3

- 인도자 : 우리나라와 이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잠시침묵)
- 청소년YMCA 회원 : 주님, 주님께서는 “나는 생명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세계와 거듭남을 통하여 주님, 주님께서는 “나는 생명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와 거듭남을 통하여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은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어, 당신의 생명이 충만한 세상을 이루게 하소서.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이 재산을 함께 나누는 정의로운 세상이 임하도록 인도하소서. 당신께서 창조하신 만물들이 함께 사는 세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도록 인도하소서. 주님, 이 땅에 분단의 상처를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로하여주소서. 이민족이 하나가 되고 이 땅 위에 주님의 참 평화가 임하게 하소서. 이라크 전쟁과 같은 비인도적 참상이 다시는 재현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이 세상이 평화로운 곳이 되게 하소서. 아멘.
- 다함께 :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5) 파송과 축복

- 마침찬송 -----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 다함께
- 평화의 인사 ----- 다함께
 인도자 : 사랑하는 자매 형제여러분,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며 서로 친교의 정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 옆 사람과 포옹하며 불을 비비며 인사를 나눈다.)
 인도자 :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 YMCA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 주의기도 ----- 다함께
 • 인도자 :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 다함께 : 지금 여기 모든 이들의 삶과 진리를 향한 씨름의 자리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 당신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평화와 생명의 물결”을 일구려는 이 자리에.
 • 인도자 :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 다함께 : 당신의 부름을 받고 YMCA운동에 땀과 눈물로 헌신한 이들도 거룩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 인도자 : 나라가 임하옵시며,
 • 다함께 : 해방과 정의의 나라, 서로 존중하고 보살피는 상생의 나라, 사람들 사이에 진정한 소통이 있는 나라, 가장 약하고 보잘 것 없는 이들이 주인되는, 그 평화의 나라가 속히 임하소서.
 • 인도자 :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 다함께 :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더불어 살리시는 당신의 뜻, 희망과 기쁨 그리고 삶 자체를 축하하는 그런 세상을 일구시려는 뜻, 다시는 갈등과 증오, 전쟁과 눈물 없는 세계로 인류를 이끄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이다.
- 인도자 :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 다함께 : 우리의 마음과 행위에서 실현되는 사랑과 동정의 양식을,
어려운 이웃들과 기쁨으로 나누는 선행과 겸손함의 양식을,
당신이 주신 사명을 쉽게 찾고 실천하는 의지와 인내의 양식을,
YMCA안에서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한 몸을 이루려는 일치와 연대의 양식을 주옵소서.
- 인도자 :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 다함께 :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 우리의 불충함과 교만을 용서해 주옵시고,
이웃의 어려운 현실로부터 고개를 돌리는 무관심을 용서해 주옵시고,
저희로 하여금 다른 이들을 용서하되, 불의에 대해서는 언제나 저항하고
싸울 수 있게 하옵소서.
- 인도자 :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 다함께 : 스스로 옳다는 그릇된 자기 확신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자신의 편견으로 시대의 징조를 재단하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삶과 YMCA 운동에서 현실에 안주하려는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고 갱신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 인도자 :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 다함께 : 당신은 섬김을 받으러가 아니라 섬기러 오셨음을 믿습니다.
당신은 부와 권세 있는 자들을 거꾸러뜨리시고 힘없고 뿌리 뽑힌 자들을
일으키시기 위해 오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하에서 모든
민족이 공평하게 살아가는 세계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거기서 인류는 당신의 모든 피조물들과 더불어 평화롭고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 2부 -동아리인준식, 신입회원입회식, 자원지도자위촉식

사회 : 청소년YMCA 회원

- 시작하는 노래 ————— 당신은 사랑받기위해 태어난 사람 ————— 다함께

동아리인준식

- 인준신청 ----- 청소년YMCA 동아리 000, 000, 000, 000 등
- 우수동아리 시상 ----- 000동아리 ----- 000 이사
- 축사 ----- (00YMCA청소년사업위원장)

신입회원 입회식

●사회자 : 이제 새롭게 YMCA와 함께 할 회원들을 소개하고 맞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올해 입회를 희망하는 모든 회원들은 일어서십시오. (입회를 희망하는 모든 회원들은 일어선다) 신입회원 대표는 단으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각 동아리별 신입회원 대표 1명은 단상 위로 올라온다.)

●선배회원 :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그분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를 분간하도록 하십시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정도에 따라 분수에 맞는 생각을 하십시오.(로마서 11장 2-3절)

●선배회원: 사람은 몸은 하나이지만 그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고 그 지체의 기능도 각각 다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한 사람 한 사람은 서로 지체의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은 각각 다릅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라면 자기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써야하고 그것이 봉사하는 일이라면 봉사하는데 써야하고 가르치는 일이라면 가르치는데 써야하고 격려하는 일이라면 격려하는데 써야합니다. 나누어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하고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을 다해서 해야 하며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로마서 11장 4-8절)

●선배회원 : YMCA 한 몸, 한 지체가 되심을 환영합니다. YMCA회원이 된다는 것은

●신입회원(다같이) : 스스로 훈련하고 배우기를 게으르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선배회원 : YMCA 회원이 된다는 것은

●신입회원(다같이) : 섬김과 나눔의 청지기의 삶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선배회원 : YMCA 회원이 된다는 것은

●신입회원(다같이) : 공동체적 희망과 녹색의 상상력을 그치지 않는 삶입니다.

●선배회원 : YMCA 회원이 된다는 것은

●신입회원(다같이) : 항상 깨어있어 개인과 공동체의 변화를 꿈꾸는 것입니다.

●선배회원) : YMCA 회원이 된다는 것은

●신입회원(다같이) : 예수의 삶의 모범을 쫓아가는 제자직의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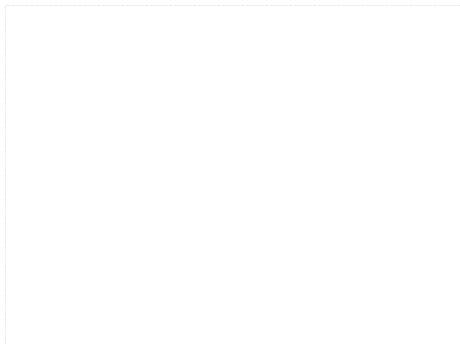
●선배회원 : YMCA 회원이 된다는 것은

●신입회원(다같이) :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시민사회의 가치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 신입회원선서 00청소년YMCA 신입회원대표
- 신입회원 회원증 및 뺏지전달 000 (00YMCA사무총장)
- 고교Y목적문 낭독 다함께

자원지도자 위촉식

- 자원지도자 선서 000, 000(청소년 자원지도자)
- 자원지도자 위촉장전달 000 (00YMCA사무총장)
- 축하공연 000 동아리
- 마치는 노래 바로그한사람이 다함께
- 광고 사회자
- 폐회선언 사회자



■부록8 : 청소년YMCA 평가 및 인준심사표

00지역 청소년Y연합회 인준 심사표

클럽명		동아리명	동아리명	동아리명	
구분		점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사업	없다	0			
	1개	20			
	2개	30			
	소계				
연합회 행사참여	신입회원교육	30			
	인준식	30			
	임원단교육	10			
	권역별 하령회	10			
	동령회	10			
	청소년Y 하령회	1명~25%	5		
		20%~50%	10		
		51%~75%	20		
		76%~100%	30		
	우리들만의 거리축제	30			
소계					
대표자회의 참석여부	0~25%	5			
	26%~50%	10			
	51%~75%	15			
	76%~100%	20			
	소계				
활동계획 달성여부	하	10			
	중	30			
	상	50			
	소계				
집회일수	0~15회	10			
	16~30회	30			
	31회 이상	50			
	소계				
총점					

■부록9 : 청소년YMCA 정기총회(안)

00년 00지역 청소년YMCA연합회 「정기총회」

- 개회선언 청소년YMCA 회원대표

- 1부 -

- 예배 사회자
- 여는노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회자
- 기도
- 교독문 사회자다함께

-사회자 :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다함께 : 당신은 우리의 삶과 뿌리가 되시며 희망의 꽃이 피어나는 발이 되십니다. 진리와 정의, 사랑과 평등이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가 당신계로부터 솟아납니다. 당신 앞에서 우리는 모두 한 형제가 됩니다.

-사회자 :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다함께 : 우리는 이 세상에 당신의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이 없음을 믿으며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 당신의 이름이 찬양 받으셔야함을 믿습니다.

-사회자 :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다함께 : 우리가 모든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고 당신의 백성인 가난한 형제들과 함께 이 땅의 불의와 억압과 폭력을 몰아내고 사랑과 정의가 넘치는 당신의 나라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사회자 : 오늘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다함께 : 우리가 내일에 대한 막연한 걱정예 메일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우리의 힘과 지혜를 쓰게 하옵소서.

-사회자 :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다함께 : 당신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여셨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오해하고 비방하며 억압하는 이들을 서로 용서하고 깨우쳐서 우리가 삶의 참 가치를 맛보며 살 수 있는 희망의 공동체를 이루려 하오니 도와 주소서.

-사회자 :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 하옵소서

-다함께 : 이 땅에 희망의 공동체 건설을 막는 모든 세력의 꼬임과 선전에 속지 아니하고 당신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진리의 길을 가도록 도와주소서

다함께 :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 축사 000 YMCA사무총장)
- 마치는 노래 당신을 향한 노래 다함께

- 2부 -

- 2006년 00지역 청소년YMCA연합회 활동보고 청소년YMCA연합회 회장
- 동아리별 2006년 활동보고 및 2007년 활동계획 보고 각 동아리 회장

- 3부 -

- 인준심사 및 임원선출 사회자
- 각 동아리 신입 임원단 소개
- 광고 및 폐회선언 사회자

■부록10 : 청소년YMCA전국대표자회 회칙

청소년YMCA 전국대표자회 회칙

제 1장 총칙

- 제 1조 본회는 '청소년 YMCA 전국 대표자회'라 칭한다.
- 제 2조 본회는 한국YMCA전국 연맹에 속한다.
- 제 3조 본회는 전국 모든 청소년YMCA를 대표함과 동시에 모든 청소년YMCA를 하나로 뭉칠 수 있게 도와주는 매개체가 되도록 한다.
- 제 4조 본회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 1) 청소년YMCA 문화 사업 계획
 - 2) 지역 간의 교류활동
 - 3) 지도력 계발 활동
 - 4) 기타 본 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활동

제 2장 입회

- 제 5조 본회의 가입자격은 각 권역별 연합회 대표 및 임원으로 제한한다.
- 제 6조 본회의 각 회원은 본 회의 헌장 및 모든 결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 3장 총회

- 제 7조 1) 정기 총회는 연 1회 대표자회가 소집한다.
2) 임시 총회는 대표자회의 2/3(3분의2)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 제 8조 1) 대표자회는 총회의 소집통지를 개회 30일 전(前)공문으로 회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한다. 단, 임시총회는 개회 14일 전으로 한다.
2) 총회의 소집 통지는 일시, 장소, 의안을 명시해야 한다.
- 제 9조 총회의 참가 자격은 본회에 소속된 지역의 회원으로 하여 각 회원 단위의 선거권을 갖는다.

- 제 10조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전국 및 권역별 사업보고
- 2) 예산 및 결산 보고
- 3) 회칙 개정
- 4) 기타 중요사항

제 11조 총회의 성립은 다음과 같다.

- 1) 총회는 전체 회원 $\frac{2}{3}$ (3분의2)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한다.
- 2) 총회 의결은 전체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12조 총회는 대표자회가 주관하여 모든 사무를 관장한다.

제 4장 회의

제 13조 회의는 회원 $\frac{1}{3}$ (3분의1)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온라인 포함)

제 14조 회의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모든 의안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5조 1) 회의는 임시의장이 2주 전(前) 통지하고 공고한다.

- 2) 회의의 소집통지는 일시, 장소, 의안을 명시하여야 한다.
- 3) 회의는 년 2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개최할 수 있다.

제 16조 본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총회와 전국사업 준비 및 평가
- 2) 지역 간의 교류
- 3) 임원 및 위원 교육

제 17조 회의는 권역별 연합회 담당간사 및 지도자를 회원으로 둘 수 있다.

단, 위의 회원은 발언권은 있지만 의결권은 없다.

제 5장 부칙

제 18조 본 회칙의 세칙은 대표자회의에서 정한다.

제 19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회의에 따른다.

제 20조 본 회칙은 2006년 3월 18일 이후로 효력을 발휘한다. 단, 개정 시에는 총회 통과 다음날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부록11 : 00지역 청소년YMCA연합회 회칙

00지역 청소년YMCA연합회 기준헌장

제 1장 총 칙

제 1조 본회는 ○○청소년YMCA라 칭한다.

제 2조 본회는 ○○YMCA에 속하며 회관 및 기타 장소에서 활동한다.

제 3조 본회는 청소년들이 하나로 모여 함께 배우고 훈련하며 또 그 힘을 합하여 새로운 청소년문화를 형성하고 올바른 인격형성과 사랑과 정의의 사회실현을 위한 기본성향을 학습하는 공동체 활동을 함으로서 민주시민과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본 회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 1) 선교활동
- 2) 청소년문화창조활동
- 3) 지도력개발활동
- 4) 사회개발활동
- 5) 국제교류활동
- 6)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활동

제 2장 입 회

제 5조 본회의 가입자격은 ○○YMCA 청소년회원에 가입한 자로 한다.

제 6조 본회의 각 회원은 소정의 입회비 및 입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7조 본회의 각 회원은 본회 헌장 및 모든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3장 클 럽

제 8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면 본회의 가맹클럽이 될 수 있다.

- 1) ○○YMCA 청소년회원으로 등록된 10인 이상의 회원
- 2) ○○고교YMCA 현장에 준한 소정의 회칙
- 3) 대표자회의 승인

- 4) 담당간사의 승인
- 제 9조 가맹클럽으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면 총회의 의결로 인준클럽이 될 수 있다.
- 1) 가맹클럽으로서 1년이 경과한 클럽
 - 2) 1회의 클럽정기총회와 연간활동보고서
 - 3) 연간 20회 이상의 정기집회
 - 4) 집회정지 1개월 이상의 징계를 받지 않은 가맹클럽
 - 5) 대표자회의 승인
 - 6) 담당간사의 승인

제 4장 총 회

- 제 10조 1) 정기총회는 연 1회(4월) 임원회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나 대표자 1/3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 제 11조 1) 회장은 총회의 소집통지를 총회개회 30일 전에 서면으로 각 청소년YMCA 클럽에 통지하고 공고한다. 단, 임시총회는 개회 7일전으로 한다.
2) 총회의 소집통지는 일시, 장소, 의안을 명시해야 한다.
- 제 12조 총회의 참가자격은 본회 클럽에 소속된 회원으로 하며 각 회원단위의 선거권을 갖는다.
- 제 13조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사업보고
 - 2) 예산 및 결산보고
 - 3) 회칙개정
 - 4) 임원회 정, 부회장 선출
 - 5) 기타 중요사항
- 제 14조 총회의 성립과 의결은 다음과 같다.
- 1) 총회는 전체회원 2/3이상, 인준클럽 2/3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한다.
 - 2) 총회의결은 전체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제 15조 총회는 대표자회가 주관하며 모든 사무를 관장한다.
- 제 16조 임원회 정, 부회장의 선출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임원회 정, 부회장후보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총회 3주전까지 소정의 양식을 구비하여 등록 하여야 한다.
 - 2) 입후보자의 자격은 고교 2학년에 재학중인 회원으로 1년이상 인준클럽에서 그 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사람으로 한다.
 - 3) 대표자회는 선임지도자와 함께 입후보자 등록서류를 심사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한 총회 2주 전에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 4)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 출석인원 과반수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다.
- 5) 입후보자가 없을 때는 대표자회에서 추천하여 담당간사와 선임지도자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제 5장 대표자회

제 17조 대표자회는 임원회, 각 클럽 회장과 부회장 (또는 총무)으로 구성된다.

제 18조 대표자회의 의장은 임원회 회장이 맡는다.

제 19조 대표자회는 월 1회 임원회 회장이 소집하고 필요시 위원 중 1/3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제 20조 대표자회는 대표자회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모든 의안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징계에 관한 사항은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1조 1) 대표자회는 의장이 7일전 통지하고 공고한다.

2) 대표자회의 소집통지는 일시, 장소 및 의안을 명시하여야 한다.

3) 대표자회의에 사유서 없이 2회 이상 불참하는 클럽은 2주간 집회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 22조 대표자회는 모든 청소년Y 활동을 결정하며 대표자회의 결정이 없는 활동은 행할 수 없다.

제 23조 대표자회의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총회와 각 클럽주최행사 준비 및 평가
- 2) 클럽간의 교류
- 3) 임원 및 위원교육
- 4) 회지발행
- 5) 타지역 청소년Y와의 교류
- 6) 기타 대표자회의의 결정사항 집행

제 24조 대표자회는 선임지도자와 담당간사 등 필요인원으로 고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 25조 1) 대표자회는 청소년Y 행사처리 과정에 대하여 임원회, 선임지도자, 담당간사에 게 질의할 수 있다.

2) 회장 또는 그에 준하는 대표자회 위원은 행사처리 상황을 보고 하거나 질의에 응답하여야 한다.

제 26조 고문위원과 가맹클럽의 임원은 의결권이 없다.

제 6장 임원회

- 제 27조 1) 임원회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총회와 대표자회의 의장이 된다.
 2) 임원회 회장은 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을 재검토하여 다시 건의할 수 있다.
 3) 임원회 회장은 청소년Y 사업진행에 책임을 진다.
- 제 28조 임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1)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부재시 대표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권한과 역할을 대행한다.
 2) 총무는 각종 사업 및 행사의 전반업무를 담당한다.
 3) 서기는 대표자회의 제반문서를 정리 보관하고 사무기록을 담당한다.
 4) 회계는 본회의 재정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담당한다.
 5) 이 외에도 필요에 따라 대표자회의 승인을 거쳐 임원을 둘 수 있다.
- 제 29조 정,부회장 이외의 임원은 전년도 대표자회 임원, 선임지도자, 담당간사가 심사하여 복수추천하고 대표자회에서 임명한다.
- 제 30조 임원회는 정,부회장 선출 후 2주 이내에 구성하여야 한다.

제 7장 재 정

- 제 31조 본회의 재정은 소속클럽의 분담금과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 32조 본회의 수입 지출은 정기총회시 보고한다.
 제 33조 소속클럽은 분담금 등 재정부담을 하여야 한다.
 제 34조 소속클럽 분담금은 대표자회에서 결정한다.

제 8장 부 칙

- 제 1조 본 회칙의 세칙은 대표자회에서 결정한다.
 제 2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규례에 의한다.
 제 3조 본 회칙은 총회 통과 다음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0000년 00월 00일 제정

0000년 00월 00일 확정

■부록12 : 00지역 청소년YMCA 회칙

00지역 청소년YMCA동아리(000)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동아리는 000 동아리라 칭한다.

제 2 조 (등록) 본 동아리는 00지역 YMCA 시청년회에 등록하고 그 지도를 받으며, 00 지역 청소년YMCA 연합회에 가입한다.

제 3 조 (목적) 000동아리의 목적에 따라 회원들이 하나로 모여 함께 배우고 훈련하며 또 그 힘을 합하여 새로운 청소년 문화를 형성하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계를 이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활동) 본 동아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한다.

- 가. 선교 및 봉사활동
- 나. 청소년 문화창조 활동
- 다. 지도력개발 활동
- 라. 조직 활동
- 마. 사회개발 활동

제 5 조 (집회) 제 4조의 활동을 위해 다음과 같이 모임을 가진다.

- 가. 정기집회 : 매주 0요일 오후 00시-00시까지, 000회관
- 나. 임시집회
- 다. 특별활동
- 라. 연합집회

제 2 장 회 원

제 6 조 (자격) 다음과 같은 사람은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 가. 000학교 재학 중인 학생이다.
- 나. 000YMCA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000YMCA와 본 동아리의 목적에 찬동하여야 한다.

제 7 조 (권리와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가. 본 동아리의 집회에 참가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나. 회무처리의 발언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다.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제 8 조 (종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이 있다.

가. 정회원 : 준회원으로 3회 이상 정기집회에 빠짐없이 참석하면 임원회의 결의를 통해 정회원으로 인준한다. 회무처리의 발언권, 선거권, 피선거권은 정회원만이 가진다.

나. 준회원 : 정회원으로 인준받기 전까지는 준회원이며 집회에 참가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 명예회원 : 정회원으로 활동하던 선배, 동아리 자원지도자, 그 외 동아리 활동에 공로가 많은 사람을 임원회의 결의를 통해 명예회원으로 인준할 수 있다.

제 9 조 (제명) 회원 중에 본 동아리의 목적을 위배하고 회칙을 준수하지 않는 자에 한하여 임원회의 결의를 통해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총 회

제 10 조 (구성)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되는 본 동아리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정회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구성되어 진다.

제 11 조 (구분)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 12 조 (소집) 총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가. 정기총회는 매년 4사분기(12월 - 차기년 1,2월)중 회장이 소집한다.

나. 임시총회는 회원1/3이상의 요구나 임원회의 결의를 통해 회장이 소집한다.

제 13 조 (의결) 총회는 참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헌장 개정 및 임원해임의 사항은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4 조 (사항) 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회칙의 개정

나. 사업계획 및 보고의 승인

다. 임원(회장, 부회장)의 선출과 해임

라. 예산의 결산

마. 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바. 기타 안건

제 4 장 임 원

생명평화운동의 리더! |

제 15 조 (기능) 본 동아리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가. 회 장 :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활동을 총괄한다.
- 나.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재 시에 대신한다.]
- 다. 총 무 : 제반 회무를 담당한다.
- 라. 회 계 : 회계업무를 담당한다.

제 16 조 (부서) 다음과 같은 부서 및 부서원을 둘 수 있다.

- 가. 회원관리부
- 나. 사업부
- 다. 홍보부
- 라. 봉사부
- 마. 그 외 필요에 따라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 5 장 기 타

제 17 조 (재정) 본 동아리의 재정의 임원회에서 결정한 동아리회비로 충당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모금을 실시할 수 있다.

제 18 조 (개정) 본 회칙 중에 제1장 총칙의 개정은 000 단체의 담당 간사의 인준을 얻어 개정한다.

부 칙

제 1 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규례에 준한다.

제 2 조 수정은 통과일로부터 실시한다.

0000년 00월 00일 제정

0000년 00월 00일 개정

< 『생명평화운동의 리더! 청소년YMCA 활동지침서』 편집 및 감수위원 >

고상연		순천YMCA 청소년부 간사
구자훈		원주YMCA 청소년부 간사
권연주		한국YMCA전국연맹 간사
김기선		천안YMCA 청소년부 간사
남궁제정		춘천YMCA 간사
라영석		수원YMCA 청소년부 간사
박종희		구리YMCA 청소년부 간사
이지양		마산YMCA 간사
이혜정		한국YMCA전국연맹 간사
임태식		안동YMCA 청소년부 간사
정건희		군산YMCA 간사
조 영		용인YMCA 청소년부 간사

- 발행인 : 이학영
- 발행처 : 청소년YMCA전국대표자회 · 한국YMCA전국연맹
- 발행일 : 2007년 4월
- 인쇄처 : 한성기획
- 주 소 : 서울 중구 소공동 117
- 전화번호 : (02) 754-7893
- F A X : (02) 774-8889
- 홈페이지 : <http://1318.ymcakorea.org>